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 학위논문

노점의 이주 및 정착 과정을 통한
도시공간 점유방식에 관한 연구
: 동묘 벼룩시장을 중심으로

Study on Space Occupancy of Street Vendor Through
the Process of Street Vendor' s Migration
: Focused on Dongmyo Flea Market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나 준 수

노점의 이주 및 정착 과정을 통한
도시공간 점유방식에 관한 연구
: 동묘 벼룩시장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서 예 례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나 준 수

나준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위 원 장 이 석 정

부위원장 김 세 훈

위 원 M예211



노점의 이주 및 정착 과정을 통한 도시공간 점유방식에 관한 연구

: 동묘 벼룩시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나 준 수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2월

위 원 장 이성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부위원장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위 원 이예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국 문 초 록

노점의 이주 및 정착 과정을 통한 도시공간 점유방식에 관한 연구 : 동묘 벼룩시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나 준 수

지도교수 : 서 예 례

1980·90년대에 거리에 즐비했던 노점은 도시공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일상적 공간인 동시에 서민들의 삶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도시위생, 도로교통 문제 등을 야기시키고, 탈세를 하는 등 불법적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도시공간에서 단속과 철거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1950년대 이후 노점 밀집 공간이었던 청계천은 청계천 복개, 청계고가도로 건설, 청계천 복원 사업 등의 도시개발에 맞물려 대규모 노점이 철거되고 이주된 공간이다. 그 결과로 현재 청계천 변의 노점은 대부분 정비되었으며, 동묘 벼룩시장 등 일부 공간을 중심으로 노점이 밀집되어 있다. 이에 도심에서 사라져가는 도시 공간인 노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다뤘다. 연구 내용과 각각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 보도자료 등 문헌자료를 통해 대한제국시기부터 2010년대까지 시기별 노점의 쟁점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점은 국가의 노점 정책, 경제 상황, 도시개발 방향에 따라 철거와 이전 그리고 재생산을 시기별로 반

복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정부의 노점 규제정책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다. 반면, 2010년대에 들어 노점은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재생산된다. 이는 근래의 노점에 대한 학계의 연구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즉, ‘노점상=도시빈민’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비공식부문인 노점과 도시공식부문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며, 노점을 도시공간에서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의견이 제언되어 왔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기존 노점에 대해 단속과 규제를 지속화 하면서 노점에 대한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구체적인 연구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청계천 일대를 대상으로 1950년대 이후 청계천 개발에 따른 노점의 이주 및 정착 과정을 분석하였다. 청계천 주변의 도시개발은 결국 기존 노점상의 철거와 이주를 유발시켰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청계천에는 청계 8·9가 일대에 노점이 밀집하게 되는 현상을 낳았다. 도시개발의 결과로 형성된 동묘 벼룩시장은 청계천 일대 노점 밀집공간으로 재래식 노점의 형태를 유지하며 고유한 상권을 이뤘다는 측면에서 연구 가치를 지닌다.

셋째, 도시개발로 인한 노점 이주 및 정착 외에도 물리적·사회적 관계를 통해 노점은 동묘 인근에 정착하고 확장 및 고착화 과정을 거친다. 동묘 벼룩시장은 좌판형·적치형·벽부착형 노점을 중심으로 도로, 건물, 가로시설물 등 다양한 도시공간을 변용하며 점유하고 하고 있다. 이는 동묘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는 동시에 인근 점포에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점포확장형, 반점포형의 변이된 형태의 노점·점포가 등장하였으며, 점포 업종변경 등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현재 동묘 벼룩시장은 소매를 포함하여 중고 의류를 지방 및 해외로 수출하는 도매유통망을 형성하였으며, 이에 대규모 물량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시장 내 건물에 들어섬에 따라 유통 환경은 더욱 견고화 된다. 이어 노점은 노점관련단체, 서울시, 구청, 방문객 등과의 사회적 관계 내에서 단속 및 민원 그리고 지원 및 보호를 받으며 확장하였다.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 외에도 노점 단체의 성장으로 인한 노점권리 증대, 노점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 경기침체, 젊은 층을 중심으로한 중고 물품 소비 트렌드 형성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은 노점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청계천 일대의 도시개발 과정은 노점 이주 과정과 맥을 같이 함을 지적한다. 둘째, 동묘 벼룩시장이 형성된 배경에는 단순히 도시개발에 의해 철거된 노점상인들의 물리적 측면 뿐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의 사회적 관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공간인 노점은 가변적 형태의 노점이 갖는 물리적 특성을 통해 도시공간을 점유하고, 적극적으로 변용하면서 변하는 물리적 도시환경과 정책 내에서 도시공간에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주요어: 노점, 이주, 정착, 도시개발, 청계천, 동묘벼룩시장

목 차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5
2절. 연구의 범위	17
1. 연구 대상	17
2. 공간적 범위	17
3. 내용적 범위	20
3절. 선행연구 검토	21
1. 시기별 노점 연구	21
2. 주제별 노점 연구	22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연구의 차별성	24
4절. 연구의 방법	25
1. 연구의 방법	25
2. 연구진행과정	26

제2장 노점의 개념적 고찰

1절. 노점의 정의 및 개념	27
1. 사전적 정의	27
2. 법률적 정의	28
3. 학술적 정의	29

2절. 노점의 유형 분류	30
1. 시설물 형태에 따른 유형	30
2. 노점 분포 형태에 따른 유형	31
3절. 시기별 노점에 관한 쟁점변화	33
1. 노점 정비 시기 : 대한제국시기-일제강점기	34
2. 노점 확산 시기 : 1945년-50년대	35
3. 노점 단속 시기 : 1960년-70년대	39
4. 노점 단속 강화 시기 : 1980년-90년대 중반	40
5. 노점 재생산 시기 : 1990년대 후반	43
6. 노점 이주 시기 : 2000년대	44
7. 노점 전환 시기 : 2010년대	46
4절. 소결	47
1. 시기별 노점에 관한 쟁점변화	47
2. 최근 노점 정책에 대한 한계	48

제3장 청계천변 노점의 이주 및 정착과정

1절. 시기별 청계천변 노점의 이주 및 정착과정	49
1. 1950년대 후반 - 1970년대	49
2. 1980년대 - 1990년대	51
3. 2000년대 - 2010년대	53
2절. 소결	55

제4장 동묘 벼룩시장 노점 분석

1절. 동묘 벼룩시장 개요	57
1. 개요	57
2. 동묘 벼룩시장 인근 상권 현황	58
2절. 동묘 벼룩시장 형성과정	59
1. 1960년대 이전 동묘인근 시장에 관한 기록	59
2. 1960년대 이후 동묘 벼룩시장 형성과정	60
3. 기타요인	61
4. 동묘 벼룩시장 노점상인 심층 인터뷰	62

3절. 동묘 벼룩시장 현황 분석	75
1. 노점의 물리적 현황	75
2. 노점의 사회적 관계	98
4절. 소결	106

제5장 결론

1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110
1. 연구 요약	110
2. 연구 시사점	113
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14
1. 연구 한계점	114
2. 향후과제	114
[참고문헌]	115

표 목 차

[표 1-1] 노점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23
[표 1-2] 도시 비공식성·공식성 개념에 기반한 노점 선행연구	24
[표 2-1] 노점 유형 분류	32
[표 2-2] 시기별 노점에 관한 쟁점 변화	47
[표 4-1] 노점 취급품목 분류	78
[표 4-2] 동묘 벼룩시장에서 발견되는 노점 유형	94
[표 4-3] 동묘벼룩시장 노점의 물리적 행태	97
[표 4-4] 동묘벼룩시장 형성 및 고착화 과정에서의 물리적·사회적 관계	108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 대상지: 동묘 벼룩시장	18
[그림 1-2] 연구 주요 내용 및 진행순서	20
[그림 1-3] 연구진행과정	26
[그림 2-1] 노점((朝鮮文化普及會, 1938)	35
[그림 2-2] 경성부도로계획변경도(부분확대)	35
[그림 2-3] 청계천변의 노점상	36
[그림 2-4] 동대문 시장	36
[그림 2-5] 지번입최신서울특별시가도(부분확대) 1958	39
[그림 2-6] 지번입최신서울특별시가도(부분확대) 1968	39
[그림 2-7] 청계3가 일대 야시장	40
[그림 2-8] 석천호수 노점 철거	41
[그림 2-9] 차량 형태 노점	42
[그림 2-10] 가판 형태 노점	42
[그림 2-11] 동대문 운동장 앞	43
[그림 2-12] 청계천 복원 직전	44
[그림 2-13] 동대문 풍물시장	44
[그림 2-14] 서울 밤도비깨야시장	46
[그림 2-15] 인사동 노점상 단속	46
[그림 2-16] 시기별 노점철거 및 재생산 과정	48
[그림 3-1] 세운상가 육교 위 노점(1977)	50
[그림 3-2] 1950년대 후반-1970년대 청계천 개발 및 주요 노점 이주·형성 경로	51
[그림 3-3] 황학동 벼룩시장 노점	51
[그림 3-4] 1980년대-1990년대 청계천 개발 및 주요 노점 이주·형성 경로	52
[그림 3-5] 2000년대-2010년대 청계천 개발 및 주요 노점 이주·형성 경로	53
[그림 3-6] 1950년대 후반-2010년대의 노점 이주 및 형성 과정	56
[그림 4-1] 동묘 벼룩시장 인근 교통 현황	57

[그림 4-2] 동묘 벼룩시장 인근 상권 및 관광지	58
[그림 4-3] 동묘 벼룩시장 형성과정	60
[그림 4-4] 소○○ 노점상인 노점 이주 경로	72
[그림 4-5] 양○○ 노점상인 노점 이주 경로	74
[그림 4-6] 동묘 벼룩시장 평일 시간대 노점 분포도	76
[그림 4-7] 동묘 벼룩시장 주말 시간대 노점 분포도	77
[그림 4-8] 노점 취급품목 비율(좌:평일, 우:주말)	78
[그림 4-9] 주요 노점 분포 가로 키맵	79
[그림 4-10]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종로변)	80
[그림 4-11] 종로변 단면도	80
[그림 4-12]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종로 58길)	81
[그림 4-13] 종로 58길 단면	82
[그림 4-14]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난계로 27길)	82
[그림 4-15] 난계로 27길 단면-1	83
[그림 4-16] 난계로 27길 단면-2	83
[그림 4-17]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동묘 동측 담벼락)	84
[그림 4-18] 동묘 동측 담벼락 단면	84
[그림 4-19]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종로 60길)	85
[그림 4-20] 종로 60길 단면	85
[그림 4-21]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난계로 25길)	86
[그림 4-22] 난계로 25길 단면	86
[그림 4-23]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종로 56길)	87
[그림 4-24] 종로 56길 단면	87
[그림 4-25]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지봉로)	88
[그림 4-26] 지봉로변 단면	88
[그림 4-27]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지봉로 2길)	89
[그림 4-28] 지봉로 2길 단면	89
[그림 4-29]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지봉로 4길)	90
[그림 4-30] 지봉로4길 단면	90
[그림 4-31]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청계천로)	91
[그림 4-32] 청계천로 단면	91
[그림 4-33]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영도교)	92
[그림 4-34] 영도교 단면	92
[그림 4-35] 노점의 면적 분포의 대표 지역(난계로 27길 유료 주차장)	93

[그림 4-36] 재원 주차장 노점	93
[그림 4-37] 제일 주차장 노점	93
[그림 4-38] 의류 적치물	95
[그림 4-39] CD 적치물	95
[그림 4-40] 서적 적치물	95
[그림 4-41] 동묘 벼룩시장 노점 사회관계망	98
[그림 4-42] 전기 인입선을 연장하여 노점에서 사용	99
[그림 4-43] 노점 정비 예정도	100
[그림 4-44] 평일 청계로 도로변	101
[그림 4-45] 주말 청계로 도로변	101
[그림 4-46] ‘2017 전통시장 다시 찾기 판촉전’ 포스터	102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노점에 관한 기존의 논의

‘노점’에 대한 논의는 학계 연구와 언론보도를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크게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점철된다.

첫째, 노점을 배제의 공간으로 보는 관점이다. 도시공간의 주체를 공적 기관인 정부와 소비주체인 시민으로 설정하여, 노점을 ‘불법적 상행위 공간’으로서 철거와 재정비의 대상으로 인식한다.(엄정운, 2010) 도시 미화·위생·보행권 등을 기치로 노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형성하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탑다운(Top-down)방식의 도시계획에 의해 관리 대상이 된다. 또한 도시 관리의 근간이 되는 조세의 문제에 있어서 불법적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은 조세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이에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노점상은 철거되거나 세금을 내는 형태의 상행위로 유도 된다.

둘째, 노점을 도시공간의 일부로 수용하는 입장이다. 이때, 노점 점유공간의 주체를 노점상으로 바라본다. 노점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빈민의 생계터전으로 버텨업(bottom-up) 방식으로 형성된다. 이때 도시공간의 관리 주체인 정부의 단속에 대응하여 노점 점유공간을 유지하고, 상업행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위해 노점상들은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집단 활동을 한다.¹⁾

노점상에 대한 대립되는 관점은 학계에서 ‘도시비공식부문(Urban Informal Sector)’과 ‘도시공식부문(Urban Formal Sector)’이라는 학술적 이론을 통

1) 노점상이 본격적으로 조직화된 시기는 1980년대 이후부터이다. 1980년대 초반에는 노점상 조직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존재했으나, 1986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정부의 노점상 단속이 강화되면서 청계천, 동대문 일대의 서적 판매노점을 중심으로 ‘도시노점상복지협의회’가 발족된다. 이는 노점상 단체의 효시가 되는 것으로 노점 운동을 통해 도시공간에서 노점 권리를 획득해 가는 자세한 과정은 제4장 2절에서 다룬다.

해 정의되고, 수정되어 왔다.²⁾ 초창기의 이론은 도시공식부문과 도시비공식부문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연구 대상은 개발도상국으로 대부분 한정지어졌다.(강현수, 1995) 자본주의 중심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배제된 계층은 도시 비공식부문에 종속되어 노점상, 무허가 주택, 개별입지 공장 등의 도시공간을 생산하였다. 이는 ‘도시비공식부문 종사자는 곧 도시 빈민’이라는 시각을 형성하여 근래 노점상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어 왔다. 도시비공식부문의 순기능으로 노점공간은 도시 빈곤층을 흡수하면서 사회안정망의 역할을 하지만, 결국 도시공식부문 대 비공식부문이라는 이분법적 틀 안에서 노점은 탈세의 온상지로 인식되었으며, 비위생적이고, 무질서한 공간으로써 철거 및 규제 대상으로 다뤄졌다.

■ 노점에 관한 최근 담론 동향

한편 최근의 노점 공간에 관한 연구는 배제 대 수용이라는 대립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도시 공간에서 노점을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현상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도시비공식부문과 공식부문의 상호작용이 작동하는 공간으로 노점을 바라보고 있다.(김지연, 2016 ; 전예린, 2016.) 이는 아난야 로이(Ananya Roy), 네자르 알사야드(Nezar AlSayyad) 등이 제시한 ‘도시 비공식성(urban informality)’의 개념이 등장한 시기를 기점으로 한다. 이들은 노점상을 자본주의라는 정치경제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의미있는 역동적 주체임에 주목한다.(황진태 외, 2015)

해외의 경우 미국 시애틀시(Seattle)는 2006년, 허가를 받은 예술가, 공연자, 노점상인들에게 공원 내 지정된 공간과 시간대에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

2) 도시공간을 도시비공식부문과 공식부문으로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노점상은 도시비공식부문의 하위 개념으로 간주되어 연구된다. 도시비공식성에 관한 연구는 1971년 하트(Hart, K)가 가나(Ghana)를 대상으로 도시연구를 하면서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비공식부문 논의가 받아들여지고,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시행되면서 이론의 발전이 본격화 되었다.

역사회 예술가와 거리공연 예술가, 노점상 등을 통해 도심공원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는 2009년 7월 노점상, 가내 수공업자 등을 비롯한 무허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월별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영업을 합법화 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한편 뉴욕에서는 도시 브랜드 차원에서 2009년 ‘Vendor Power!’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뉴욕 노점의 역사, 개별 노점상의 스토리, 노점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노점 가이드북을 만들기도 하였다.³⁾ 이처럼 국제적으로 노점 공간을 도시공간에 탄력적으로 편입시키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고, 도시빈민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보이고 있다.

■ 서울시의 노점 정책

위와 같이 노점에 대한 변화된 관점은 국내의 노점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 야시장, 플리마켓(flea market), 푸드트럭 거리 등 공식적으로 허가된 공간에 한하여 노점상에게 영업 허가권을 제공한다.⁴⁾ 이는 규제의 대상이었던 도시비공식부문의 자율성을 일부 인정하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일정 공간과 일정 기간에 한해 노점상을 허가해 주는 것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이어오고 있어 노점에 대한 모순된 정책입장을 보이고 있다.⁵⁾

3) 「도심공원 활성화를 위한 예술가 모집 (시애틀)」,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2004.10.18.) ; 「2009년 7월부터 무허가 영세자영업자(노점상, 가내 수공업자 등)가 월 50세알(약 2만 5000원)만 내면 영업」,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2009.08.30.) ; candychang.com/work/street-vendor-guide/

4) 푸드트럭은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합법화 되었다. 2015년 3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푸드트럭은 3대였으나 2016년 4월 기준 184대가 등록하면서 푸드트럭 시장은 급성장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은 지정 장소에서만 영업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식품의 약안전처는 2016년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 할 시 제출해야 하는 영업서류 간소화를 결정했다. 하지만 허가공간에서만 영업을 하는 한계가 있어,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장사를 하는 푸드트럭이 발생하는 등 다른 형태의 노점 재생산으로 이어진다. (「규제개혁 상징 ‘푸드트럭’ 절반이 폐업」, 『파이낸셜 뉴스』, (2017.04.17.)

5) 2017년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노점 정책으로는 ‘서울 밤도깨비야시장’, ‘1890 남산골 야시장’, ‘덕수궁 페어샵’ 등이 있다. 특히 ‘서울 밤 도깨비야시장’의 위치는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 반포 한강 시민공원,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청계광장, 청계천 가로변이다. 역설적이게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노점 정책인 ‘서울 밤 도깨비 야시장’이 열리는 한강시민공원은 과거 노점 밀집 지역이었으나 정부의 정책으로 노점이 철거되었던 공간이기도 하다.

결국 노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노점의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007년 2월 서울시가 발표한 ‘노점관리대책’에 그 의도가 반영되어있다. 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의 내용은 일부 노점에 대해 합법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기존 노점상을 감축시키고 신규 노점상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준희, 2012) 정책에 대한 실천으로 서울시는 2009년 ‘걷기 편한 종로거리 만들기(종로특화거리 조성 사업)’ 사업을 통하여 “무질서하게 운영하던 노점을 규격화하여 쾌적한 공간 제공” 하고, “노점 특화 거리 조성을 통한 도심 환경개선,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불법노점 해결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히는 등 노점에 대한 정비와 규제를 이어 나갔다.⁶⁾

■ 사라져 가는 노점에 대한 연구 필요성

1980·90년대 거리에 즐비했던 노점은 도시공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일상적 공간인 동시에 서민들의 삶을 표상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⁷⁾ 하지만 서울시는 노점의 감축을 목표로 노점 정책을 일관해왔으며, 이에 노점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기준으로 2010년에 9,395개였던 노점은 2015년 8,038개로 약 천여 개의 노점이 감소하였다. 즉, 서울시 도심에 분포한 노점 밀집공간은 사라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⁸⁾ 대표적으로 1950년대부터 노점 밀집공간이었던 청계천 변의 노점은 청계천 복개공사, 청계고가도로 건설, 청계천 복원사업 등의 도시 개발로 인해 동묘 벼룩시장 등

-
- 6) 「종로3가, 깔끔해진 보행자 도로」, 『라펜트』(2009. 11.. 30)
 ; 종로노점특화거리는 종로2가 관철동 ‘젊음의 거리’. 공평동 ‘화신 먹거리촌’, 종로3가 낙원동 ‘다문화거리’. 관수동 ‘빛의 거리’. 종로4가 창경궁로 ‘녹지거리’, 종로6가 양사길 ‘화훼·묘목거리’, 대학전 남길 등 7개의 가로를 중심으로 한다. (서울연구원, 「특화거리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 종로노점거리를 중심으로」, 2012.)
- 7) 노점의 한 유형인 포장마차는 드라마 혹은 영화의 배경이 되는 무대 장치로서 등장인물들의 소탈한 대화가 오고가는 공간으로 등장하며,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주기적으로 찾는 곳이다. 또한 외국 관광객에게 서민적인 한국적 경관으로 대표된다. (강보라, 2012)
- 8) 서울시, 「거리가게 디자인 개선가이드라인 연구」, 2015 ; 2013년 기준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에 분포한 노점의 수가 1,492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종로구 1,130, 동대문구가 818개로 뒤를 잇고 있다.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는 각각 2012년 기준 1년간 각각 88개, 19개, 2개의 노점이 감소하였다.; 서울시, 「2013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결과보고」, 2013. 12)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철거되거나 정비된 상태이다.

노점은 도심에서 사라져 가는 공간이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의 생계수단인 동시에, 경제유통망을 보완하고 대체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순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인간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는 등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⁹⁾ 이에 도시에 남아있는 노점 밀집공간을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일련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혹은 재생산된 노점공간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과 정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점의 이주 및 정착과정을 파악한다. 그 결과로 현재 노점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을 도출해 내고, 그 공간을 바탕으로 노점의 생태계를 이해한다. 이를 통해 노점이 도시공간을 점유하는 방식과 유목적 성격의 노점이 특정한 도시공간에 정착하여 확장·고착화 되어가는 과정을 연구 할 필요를 갖는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도시개발과정을 노점의 시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노점은 도시개발 발생 시 우선적인 철거대상이 되며, 그로 인해 노점은 도시공간에서 ‘철거-해체’ 또는 ‘철거-이주-정착’과 같은 일정한 패턴을 반복해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청계천 일대의 개발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발생한 노점의 이주 및 정착과정을 추적한다.

둘째, 노점의 행태에 관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축적한다. 노점의 분포, 점유 방식 등과 같은 공간적·물리적 특성에 집중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물리적 현

9) 노점상에 관한 각계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일반시민: 저소득층 생계수단의 일환, 보행권침해, 교통방해, 비위생적. ②시민단체: 경제유통망 보완기능과 대체고용 기회를 제공, 단속은 부분적 해결을 위한 미봉책, 도시미관 차원 적극정비(환경단체), 생존권보장차원 접근(사회·복지단체). ③전문가: 생계수단으로 자구적 사회안전망 역할, 도시에 활기, 인간적분위기 등 긍정적. ④공무원: 노점은 현행법상으로 단속대상, 노점을 인정하면 양산될 우려, 법과 현실과의 크나큰 괴리. ⑤점포주: 단속이 필요하지만 상가 활성화의 보완적 요소로도 작용, 인근점포와 동일상품 입지 배제. ⑥노점상: 생계수단인 노점은 본업, 노점정비를 생존권 탄압으로 간주 (서울시, 「노점상 관련 각계 입장」, 2007.02)

상과 연계된 사회적 관계에도 주목하여 노점 생태계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때, 노점, 점포, 정부, 노점 단체, 방문객, 지역주민 등 노점 관련 이해집단을 중심으로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동묘 벼룩시장은 이며, 이에 동묘벼룩시장의 노점을 관찰·분석하여 청계천 변에서 사라져 가는 공간 중 하나인 노점 밀집공간에 대해 기록한다. 노점은 ‘철거-이주-정착’ 과정을 거쳐 특정 도시공간에 고착화되기도 하는데, 동묘 벼룩시장 역시 그 과정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형성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전제이며, 동일한 맥락에서 동묘 벼룩시장을 바라본다.

■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도시개발에 따른 노점의 이주 및 정착 과정을 통해 도시의 변화 과정을 노점의 시각으로 바라본 대에 의의를 지닌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지로 청계천 일대를 선정하여, 1950년대 이후부터 2010년대까지의 청계천 개발사를 노점 이주사(移住史)를 축으로 재구성하는 대에 연구 가치를 지닌다.

또한 현장관찰 및 관련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 해당지역인 동묘 벼룩시장의 노점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축적하여, 향후 진행 될 동묘 벼룩시장 및 노점에 관한 연구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 된다. 특히, 노점상과의 심층 인터뷰는 노점의 내부자적인 입장에서 노점 이주과정을 구술 기록한 것으로써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없는 노점상인의 경험적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로 활용된다.

기존의 노점연구는 물리적 현상만을 다루거나 정치·사회적 관점만을 다루는 등 비교적 양분화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점이 형성 및 확장되고, 고착화 되는 과정을 물리적·사회적 관계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노점 생태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 대에 본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

2절 연구의 범위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노점 밀집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때, 노점이라 함은 포장마차, 차량, 손수레, 좌판, 부스 등 노점상으로 분류되는 모든 형태를 포괄한다. 또한 도로상 혹은 광장과 같은 공공공간에 위치한 노점상을 지칭하며 법률적으로 불법상행위에 해당하는 노점뿐 아니라 일시적인 허가를 받거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상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즉, 노점이 지니는 기본적인 특징인 ‘가로에서의 상행위’라는 정의를 기저로 둔 것으로, 노점을 행정적 차원에서 국한되어 다루기보다 도시공간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도시공간의 개발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인 ‘노점의 이주 및 정착과정을 통한 도시공간의 점유방식 분석’을 하기 위함이다. 노점의 이주 및 정착은 노점 단속정책의 집행에 의해 이루어 지기도 하지만 도시공간에서는 대규모 도시개발과정을 통해 뚜렷하게 발생한다.

2.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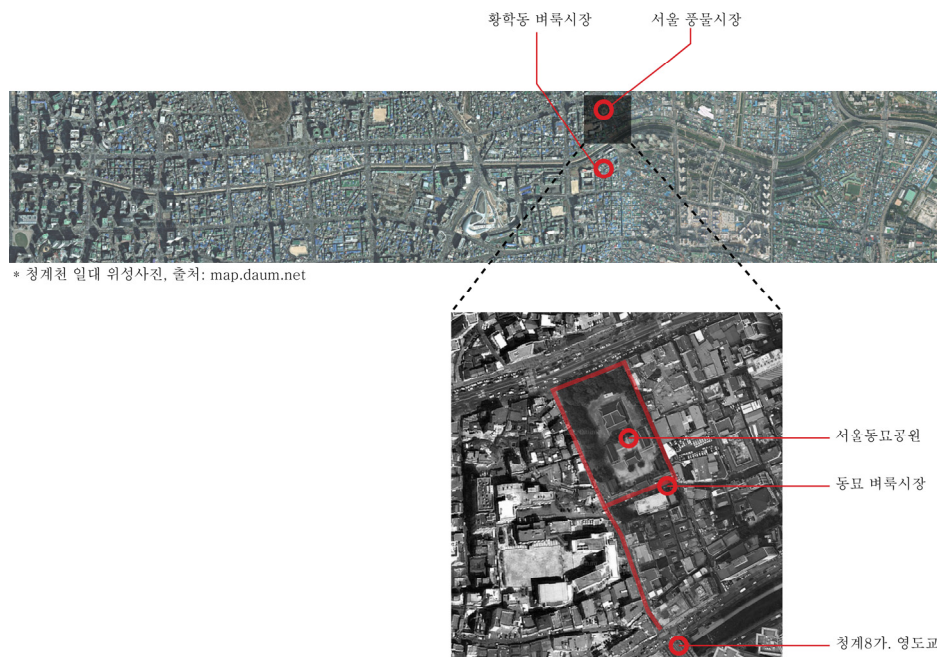
■ 연구 대상지 선정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지는 크게 두 개로 나뉜다. 우선, 청계광장에서부터 청계9가에 이르는 청계천 일대를 연구 대상지로 한다. 시간적 범주로는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로 시기별로 청계천 일대에서 발생한 일련의 도시개발에 따른 노점의 이주 및 정착과정을 분석한다.

두 번째 연구 대상지는 보다 지역적인 영역으로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동묘 벼룩시장일대로 한다. 여기서 ‘동묘 벼룩시장’이라 함은 청계천 영도교 북쪽에 서울동묘공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벼룩시장을 가리킨다.¹⁰⁾ 대부

10) 천혜정(2015)는 ‘동묘 벼룩시장’과 ‘황학동 벼룩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황학동/동묘 벼룩시장으로 명칭을 설정하여 동묘 벼룩시장 일대를 연구하였다. 이는 일반 방문객이 황학동 벼룩시장과 동묘 벼룩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동묘 벼룩시장과 황학동 벼룩시장을 구분한다.

분의 노점은 유동적 형태를 띠고 있어, 시간에 따라 분포 범위를 달리한다. 특히, 동묘 벼룩시장의 경우 평일과 주말의 노점 분포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점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시기인 주말을 기준으로 연구 범위를 지정한다. 보다 구체적인 범위로는 서울동묘공원 경계의 네 면을 둘러싸는 가로인 종로, 종로58길, 난계로27, 동묘 동측 담벼락과 추가로 주말에 확장되는 가로인 종로56길, 종로 60길, 난계로 25길, 지봉로, 지봉로2길, 지봉로4길, 천계천로, 영도교 등 약 2.4km 길이의 가로를 대상으로 한다.([그림1-1] 참조)



[그림 1-1] 연구 대상지: 동묘 벼룩시장

■ 대상지 선정 배경

본 연구는 도시개발과 동반한 노점의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노점이 도시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점유하였으며, 정착, 고착화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계천 일대의 도시공간은 유의미한 연구적 가치를 지닌다. 청계천은 서울 근대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인식되며, 이는 1950·60년대에 걸쳐 진행된 청계천 복개공사 및 청계고가도로 건설로 대표된다. 이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청계천 복원 과정 등으로 인해 청계천 일대의 도시조직은 급격하게 변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1950년대부터 청계천변에 밀집되었던 대부분의 노점은 철거, 이주 그리고 재생산 과정을 반복한다. 즉, 청계천 일대는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난 공간이며, 그에 따른 노점의 이주 및 정착과정 역시 뚜렷하게 발생한 공간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다.

2차적 연구대상지인 동묘 벼룩시장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적 가치를 지닌다. 첫째, 동묘 벼룩시장은 청계천 일대의 개발에 따른 노점의 철거 및 이주의 결과로 형성된 노점 밀집공간이다. 현재 청계천 일대의 노점은 대부분 철거되거나 정비되었으나, 동묘 벼룩시장은 정비되지 않은 채 노점 밀집공간으로 남아있다. 또한 동묘 벼룩시장에 정착한 노점상인들의 일부 구성원은 예전에 황학동 벼룩시장, 동대문 풍물시장, 훈련원 공원, 서울 풍물시장 등을 포함한 청계천 주변에서 노점상을 하였으며, 이에 도시개발에 따른 이주 및 정착에 대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둘째, 동묘 벼룩시장의 노점은 정부의 노점 정책에 의해 정비되지 않은 재래적 행태로, 노점이 도시공간을 자생적으로 점유하고 정착하는 과정의 원형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도 시장의 규모가 확장되고, 고착화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노점이 도시공간을 점유해 가는 방식을 살펴 볼 수 있어 연구의 가치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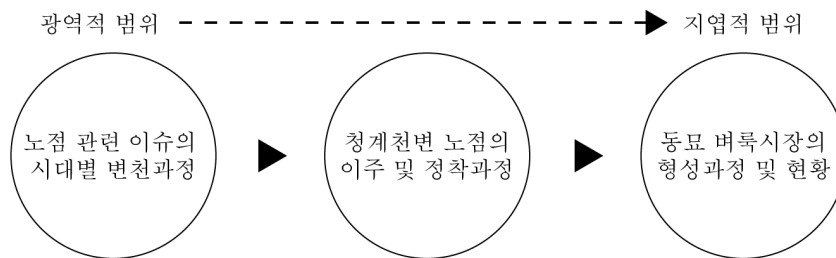
3.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광역적 범위에서 지역적 범위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축소하며 연구를 진행한다.

우선, 노점에 관한 개념 고찰을 한다. 노점의 사전적·법률적·학술적 정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이어 노점의 유형 분류 작업을 통해 노점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한다. 노점의 유형분류는 향후 제4장에서 다뤄질 동묘 벼룩시장 노점의 물리적 현황을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이어 대한제국시기부터 2010년대까지 시기별로 노점에 관한 이슈를 분석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노점의 쟁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다룬다.

이어 청계천 일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청계천변 도시개발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에 해당하는 노점의 이주 및 정착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축소하여 청계천 8,9가에 위치한 동묘 벼룩시장의 형성과정 및 현황에 대해 연구한다. 제2장에서 정리한 청계천 일대 도시개발의 맥락에서 동묘 벼룩시장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그 외의 요인을 찾아 기술한다. 다음으로 동묘 벼룩시장의 현황으로 노점의 물리적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연구 주요 내용 및 진행순서

3절 선행연구 검토

국내의 노점상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노점상에 대한 연구는 주제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노점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둘째, 도시공식부문·비공식부문의 이론을 배경으로 노점상을 다룬 연구이다. 이에 앞서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최근 약 30년간 시기별로 노점 연구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노점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선행연구의 한계를 파악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1. 시기별 노점 연구 경향

■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노점 연구 경향

노점에 관한 국내의 1980년대 연구는 주로 도시 빈곤 문제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신경희, 1984; 안원실, 1984; 한우섭, 198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6; 강정원, 1989; 장재준, 1989) 199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 노점상인과 시민간의 역학적 관계, 노점상이라는 직업의 특성, 형태특성 그리고 실태에 대해 다루기 시작하였다.(배수미, 1990; 정원오, 199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3; 박대영, 1999; 김한수, 1997; 홍인옥, 1999)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및 미취업자의 증가에 따라 노점상 역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증가하는 노점상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노점상 정책연구 역시 진행되었다.(조대현, 1999; 김준연, 200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① 도시빈곤문제(1980년대) ② 노점 공간 실태 및 행태적 특성(1990년대) ③ 노점상 정책 연구(2000년대)의 순으로 연구 경향이 있음을 확인 수 있다.

■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2017년)까지의 노점 연구

2000년대 중반이후의 노점 연구는 주된 경향 없이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서울 황학동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의 장소성과 노점상을 분석한 연구(안주영, 2007), 언론 보도자료를 통한 노점상 공간인식 분석(엄정윤, 2010), 노점상 운동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도시공간과 노점상의 권리를 분석한 연구(김준희, 2011), 도시 비공식성 개념에 기반한 노점상 연구(황진태, 2015), 노점상 가로 환경에 관한 연구(박재은, 2015), 도심문화재 주변 노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임진강, 2016), 노점상에서 드러난 비공식성과 공식성의 상호작용 연구(김지언, 2016; 진예린, 2016), 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상업가로 변화 및 이용자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안현, 2017) 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다만 노점상을 ‘도시비공식성’ 개념으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는데(황진태, 2015; 김지언, 2016; 진예린, 2016), 이는 1986년에 진행된 ‘도시비공식부문에 관한 연구-부산시 가로상을 중심으로-(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6)’와 내용적으로 차별성을 지닌다. 1980년대에 진행된 도시비공식부문(Urban Informal Sector)에 관한 연구에서는 노점상을 도시빈민으로 바라보았다면, 2010년대에 진행된 도시비공식성(Urban Informality)에 관한 연구에서는 노점상을 도시빈민이 아닌 도시비공식부문과 공식부문의 상호작용관계에서의 능동적 주체로 다루었다.

2. 주제별 노점 연구

■ 노점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노점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주제는 다수의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연구 대상지로는 크게 가로, 시장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노점상을 활용한 가로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로는 문정숙(2002), 이상현(2007), 박동욱(2007), 김희석(2012), 박재은 외(2015)가 있었다. 이승석 외(2008), 김영기(2010)는 노점상을 활용한 재래시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1-1]과 같다.

[표 1-1] 노점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논문제목	저자	출판 연도
강남대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축계획안 :제일생명사거리-강남역사거리구간을 중심으로	문정숙	2002
택지개발지구 내 노점상의 분포와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이상현	2007
선택모형을 이용한 거리환경개선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연구 :노점상 정비를 중심으로	박동욱	2007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노점관리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석	2012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경주시 안강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이승석 외	2008
전통시장 및 인접구역의 생계형 노점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기	2010
거리가게 가로환경 적용기준 연구-서울 거리가게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박재은 외	2015

■ 도시 비공식성·공식성 개념에 기반한 노점상 연구

2000년대에 들어 노점을 도시 비공식부문과 공식부문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재송(2007)은 노점 등록제와 실명제를 개선하여 비공식영역인 노점상의 공식화를 주장하였으며, 복지적 차원에서 빈곤층의 노점상 유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비공식 경제로서 이동 노점상을 주축으로 하는 오일장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등 노동 부문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이상열, 2012) 이와는 다르게 포장마차 연구를 통해 도시 비공식 공간이 지니고 있는 장소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박동래, 2015) 한편 황진태 외(2015)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노점상 연구에서 도시 비공식부문과 공식부문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강조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론적 시각에 입각하여 실제 노점 밀집공간을 연구한 사례로 김지연(2016), 진예린(2016)의 연구를 들 수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1-2]와 같다.

[표 1-2] 도시 비공식성·공식성 개념에 기반한 노점 선행연구

논문제목	저자	출판 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노점상 문제 해결 방안	최재송	2007
재래시장 정책과 오일장의 변화	이상열	2012
도시의 비공식적 공공장소로서 포장마차의 특성연구	박동래	2015
노점상 연구에서 도시 비공식성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함의	황진태 외	2015
도시 공간 속 노점상에서 드러난 비공식성과 공식성의 상호작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측 강남대로의 노점상에 대한 사례 연구	김지연	2016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의 계획·정책결정 과정으로 살펴본 도시 비공식성과 공식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상호작용	진예린	2016

3. 선행 연구의 한계 및 연구의 차별성

노점상을 통한 거리활성화를 주제로한 연구들은 현장 관찰, 현장조사, 설문조사, 회기분석, 선택모형기법 등 실증적 방법론을 통하여 대상지를 연구하였으나, 단편적인 물리적 공간 연구에 치우친 경향을 보였다. 반면 도시 비공식성을 주제로 한 노점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공간 분석이 빈약하며 주로 사회학적인 맥락에서 노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노점을 연구함에 있어 물리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다룬다는 점에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노점의 물리적 현상에 집중함과 동시에 노점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물리적 형상 이면의 사회적 관계망을 조사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관점으로 노점 공간을 살펴본다.

4절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방법

주로 시계열적 관점에서 노점을 연구하는 제2장, 제3장에서는 문헌자료 조사가 주를 이루며, 동묘 벼룩시장의 노점을 분석하는 제4장에서는 현장관찰이 주된 연구 방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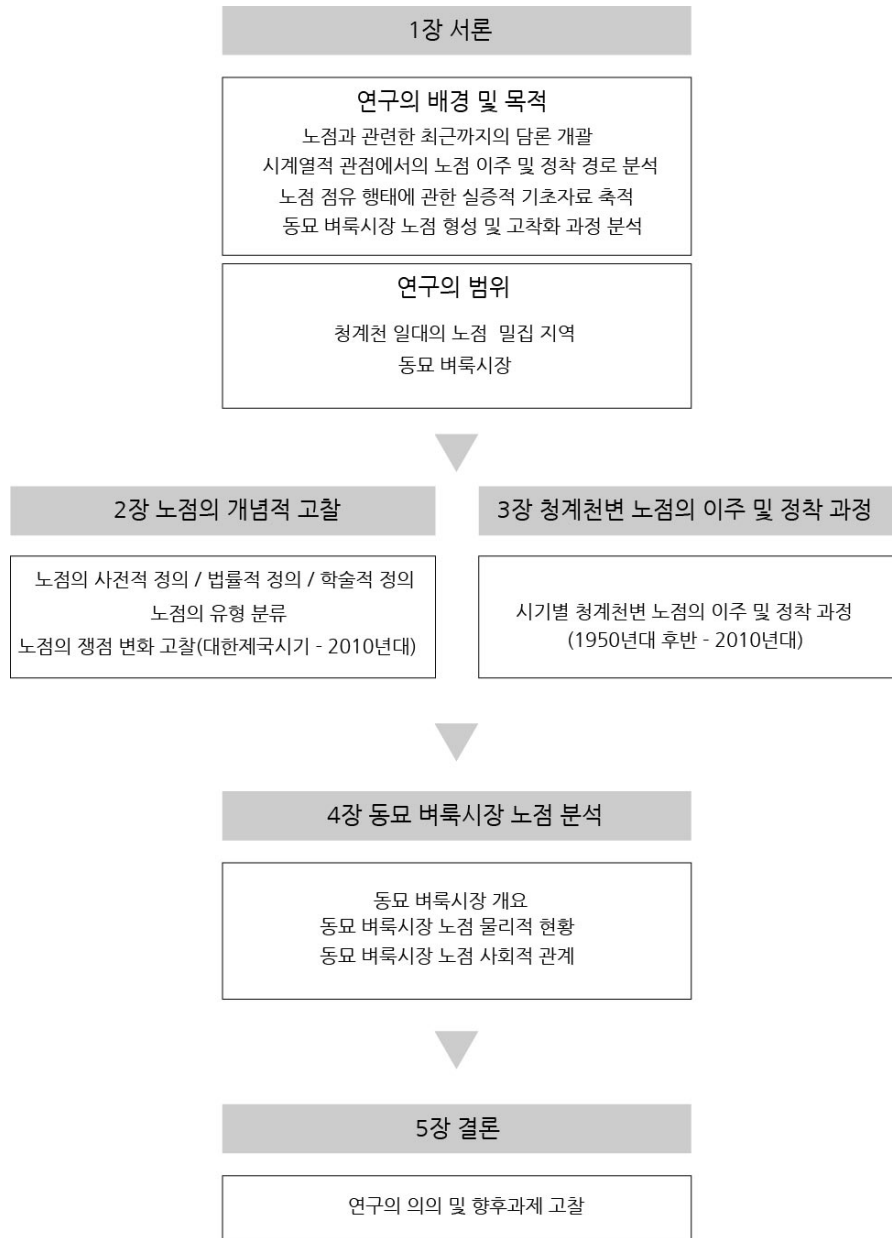
우선, 제2장에서는 논문, 연구 보고서 등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노점에 대한 사전적·법률적·학술적 정의를 살펴보고, 노점의 물리적 행태 유형을 표로 분류한다. 이어서 고문헌, 단행본, 신문 보도자료, 논문, 연구 보고서 등 문헌자료를 통하여 노점과 관련한 쟁점을 시기별로 분석한다. 신문 보도자료의 경우 1930년대 이후의 자료를 검색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 하였으며,¹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동아일보, 매일경제, 경향신문, 한겨레 등 4개 일간지의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점의 시기별 쟁점 변천과정을 표로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고지도, 신문 보도자료, 논문, 연구 보고서 등 문헌자료를 통해 1950년대 이후 진행된 청계천 일대의 도시개발에 따른 노점의 이주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다. 조사된 자료는 도판을 시각화한다.

제4장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동묘 벼룩시장 노점의 물리적 현황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관찰을 통해 노점의 분포, 공간 점유방식, 형태적 유형, 분포 유형 등을 현장 사진과 기술, 도면 등으로 정리한다. 또한 노점 상인과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구술 기록한다. 그 밖에 동묘 관할 구청에서 제공한 동묘 벼룩시장 노점 관리에 대한 1차 자료를 분석한다. 조사된 동묘 벼룩시장의 기초자료를 종합하여 동묘 벼룩시장 노점의 물리적 행태 및 일부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한다.

11)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 검색어: 노점, 노점상

2. 연구진행과정



[그림1-3] 연구진행과정

제2장 노점의 개념적 고찰

1절 노점의 정의 및 개념

1. 사전적 정의

노점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적 유형과 복잡한 사회적 관계로 인하여 그 개념 역시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다. 우선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노점(露店)이란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놓고 장사하는 곳” 으로 정의되며, ‘거리가게’로 순화되어 표현되기도 한다.¹²⁾ 이때 노점상(露店商)이라 함은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놓고 하는 장사. 또는 그런 장수”를 뜻하며,¹³⁾ 노점이란 노점상이 점유한 공간 즉, ‘노점상 점유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노점은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공간을 지칭하며,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법률적 성격보다는 공간적 성격에 의해 노점상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대만에서는 노점상을 ‘탄판’으로 불리며, 판을 펼쳐 놓고 상품을 파는 상행위로 정의된다. 홍콩에서는 ‘소판’이라 불리며, 소규모로 물건을 파는 행위를 지칭한다. 반면 영문으로는 ‘vendor’, ‘peddler’ 등으로 표기되며 각각 ‘일정지역에서 반 유동형, 고정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노점상 혹은 이동식 노점상’으로 정의된다. ¹⁴⁾ 일본에서는 야타이(屋台)라고 표기하며, ‘작은 집모양으로 지붕을 달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든 대(臺) 또는 축제(祝祭) 때 보조를 맞추어 가며 천천히 끌고 다니는 수레’ ¹⁵⁾ 라고 정의되며, 국내의 포장마차 유형과 유사하다. 즉, 국내를 비롯한 해외에서 사용되는 노점상의 공통된 성격은 기본적으로 가로라는 공간적 특성과 더불어 이동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12) 2013년 서울시는 국립국어원의 자문과 ‘서울시 행정용어순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노점상을 ‘거리가게’로 순화하는 표현을 발표

1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17.08.12

1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노점상 관리방안 중장기 대책 모색』, 2001.06. p16.

15) 일본어사전. jpdic.naver.com

2. 법률적 정의

노점은 주지하다시피 가로를 ‘점유한’ 형태로 벌어지는 경제행위이다. 점유(占有)라 함은 물건 혹은 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함을 말한다. 하지만 점유는 소유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개념으로, 소유권 혹은 임차권을 통해 점유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권리 없이 단순히 그 공간을 물리적으로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¹⁶⁾ 즉, 무단점유, 불법점유를 지칭한다. 노점은 일반적으로 도시공간을 소유 혹은 임대를 통해 점유하는 것이 아닌 방식으로 타인의 사유지 혹은 국공유지, 사유지 등을 사적으로 점유하게 된다. 이에 노점은 법률에 의해 경제 행위를 허가 받기도 하며, 동시에 규제받기도 한다. 각각의 적용되는 법률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의 의의

법적 규제의 대상 혹은 행정적 차원에서 관리 대상으로서 노점상 유형은 ① 합법 노점상, ②불법 노점상 ③허가 노점상으로 나누어진다. 허가 노점상과 합법 노점상과의 차이점은 가로판매대, 버스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도로상의 영업행위 규제 조례나 지침을 통해 일부 영업행위를 인정하는 허가제 지정 여부에 있다.¹⁷⁾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노점상 허가에 관한 관련 법률로는 다음과 같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16) 「법률용어사전」, 검색일: 2017. 12. 20, 검색어: 점유

1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노점상 관리방안 중장기 대책 모색』, 2001.06. p2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5.8.11.>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노점 규제관련 법규

노점 규제와 관련하여 주로 적용되는 법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도로 및 기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에 관한 법률로 구체적으로는 『도로법』 제43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등이 있다.

둘째, 미등록사업자 상행위에 관한 법률로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등이 있다.

셋째, 부적절한 식품제조행위에 관한 법률로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79조(폐쇄조치 등), 제83조(위해식품 등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등이 있다.

3. 학술적 정의

■ 해외 연구

멕기(T.G.McGee, 1977)는 노점상에 대해 “법률적 측면으로 공공장소에서 불법적인 상업 활동을 하는 상인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자본으로 경영하는 소상공인 집단으로 소매상과 다른 점은 물품판매를 위한 이동입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¹⁸⁾라고 정의한다. 즉, 노점의 특징으로 ① 법률적으로 불법적

이며 ② 경제적으로 소자본이고 ③ 공간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이동 가능한 형태의 것으로 보았다.

■ 해외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1)은 노점상의 정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로 정리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장소, 특히 가로 상의 상행위 ② 소규모 사업 ③ 불법적 경제행위 ④ 임시적이고 가변적 형태 ⑤ 도시의 경제 활동이다. 맥기와 서울시가 정의한 노점은 형태적·입지적 특징과 더불어 노점상이 갖는 사회적 위치를 포함하여 정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학술 연구에서 노점상은 “공공장소인 ‘도로’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지칭”(김준희, 2011)으로 정의된다. 즉, 노점의 사전적 정의는 노점의 물리적 형태, 점유하는 공간의 성격에 한정되며, 학술적으로 다뤄진 노점상은 보다 확대되어 법률적 적법 여부, 경제적 규모 등 사회·경제적 관계까지 포함시킨다.

2절 노점의 유형 분류

1. 시설물 형태에 따른 유형

노점상은 포장마차, 차량, 손수레, 좌판, 부스 등 노점을 구성하는 필요 시설물의 종류를 중심으로 분류된다.¹⁸⁾ 또한 이동성 여부를 기준으로 고정형, 반고정형, 유동형 등으로 분류한다. 고정형 노점상은 특정 위치에 상설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24시간 고정되어 거리가구로 인식되기도 한다. 반고정형 노점상은 특정 위치에 일정한 영업시간대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영업을 마치면 철거하여 이동하는 형태의 노점상이다. 유동형 노점상은 특정하게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을 하기 보다는 차량 등을 이용하여 좁게는 구

1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노점상의 실태와 대응방안』(1993) p.23.

19) 서울시민청, 「2013년 구별 노점상 현황」에서 노점 분류항목 참조

(區)단위. 넓게는 전국단위 등 넓은 범주의 지역을 이동해가며 상행위를 하고 있어, 유동 범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2. 점유 공간 형태에 따른 유형

노점의 점유공간에 따른 노점 유형분류는 분포형태에 따른 점유유형과 군집 밀도에 따른 점유유형으로 크게 나뉜다.([표2-1] 참조)

우선 노점의 분포형태에 따른 노점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선형 노점상과 둘째, 면적 노점상 그리고 셋째, 혼합형이다. 선형 노점의 경우 주로 도로를 따라 노점이 일렬로 늘어선 선형적 형태의 노점 군집을 가리킨다. 이때 도로의 경우 간선도로 혹은 이면도로인가에 따라 그 성격이 나뉜다. 일반적으로 노점상은 유동인구가 많은 간선도로 변에서 영업하기를 원하며, 실제로 간선도로 변으로 노점이 밀집한다. 하지만 노점 단속에 의해 철거되거나 이면도로로 이주된다. 이면도로 역시 합법화된 노점 공간은 아니나, 노점상의 저항 및 생계마련 차원에서 암묵적 합의하에 이면도로에서 노점상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각 도로마다 보행 및 교통활동의 빈도수, 직접 면한 지역의 토지이용에 따라 성격이 구분되기도 한다. 면적(面的) 분포 형태를 띠는 노점의 경우 광장 혹은 공터에 들어선 시장과 같은 형태의 장소 집중형이라 할 수 있다. 선형 노점상과 비교하였을 때 면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선형 노점상에 비하여 상행위에 있어서 시설물의 배치가 보다 자유로우며, 노점상들간에 다양한 조합방식을 통해 군집형태를 다양하게 조직할 수 있다. 혼합형은 선형적 공간에 집중적으로 노점이 분포함으로써 면적이 형태를 띠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선형적 형태의 재래시장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군집 밀도에 따라 분류하면 개발형, 소규모 군집, 대규모 군집으로 나뉠 수 있다. 개별형은 개별 시설물으로써 독립적인 형태로 노점이 분포한 것으로 대부분 한 두 개의 소수의 노점이 분산적으로 배치된다. 소규모 군집은 가

로변을 중심으로 노점들이 군집한 형태를 가리키며, 대규모 군집은 시장과 같이 대규모로 노점들이 군집한 형태이다. 소규모 군집과 대규모 군집을 구분하는데 기준이 되는 명확한 노점의 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점이 일정 개소가 모여, 시장 혹은 노점거리와 같은 장소성을 가진 노점 밀집공간이 형성된 공간으로 본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노점 유형 분류

분류 유형		종류	내용
시설물 형태	시설물	포장마차	천막이 덮여 외부 공간을 반(半)실내공간으로 변용, 이동형 혹은 반고정형이 일반적
		차량	트럭 등 차량을 개조하여 노점으로 활용, 이동형
		손수레	손수레를 인력으로 이동시키며 영업, 이동형
		좌판	지면상에 좌판을 펼쳐 놓은 형태, 이동형
		부스	박스 형태의 가설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정형 혹은 반고정형
	이동성	고정형	특정 위치에 상설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24시간 고정형
		반고정형	특정 위치에 일정한 영업시간대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영업을 마치면 철거하여 이동
		유동형	차량을 이용하여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영업 이동하며 영업하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 구분 가능
점유 공간 형태	분포 형태	선형	주로 도로변을 따라 일렬로 노점이 군집
		면적	광장 혹은 공터에 들어선 시장과 같은 형태의 장소 집중형
		혼합형	선형적 공간에 집중적으로 노점이 분포하면서 면적 형태를 띠는 것
	군집 밀도	개별형	개별 시설물으로써 독립적인 형태로 한, 두 개의 노점 분포
		소규모	가로를 중심으로 노점들이 소규모로 군집한 형태
		대규모	시장과 같이 대규모로 노점들이 군집한 형태

3절 시기별 노점의 쟁점 변화

대한제국시기(1987)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노점과 관련된 신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노점에 관한 쟁점이 도시 공간에서 등장하고, 변화되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선시기에도 난전의 형태로 노점상이 존재하였지만,²⁰⁾ 조사 시기를 대한제국시기부터로 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서울의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을 대한제국시기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공간에 실재 분포한 노점을 연구하기에 앞서 거시적 관점에서 노점에 관련된 쟁점변화를 연구하는 이유는 경제·사회적 맥락에서 현재까지 이어오는 노점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한 조사 방법으로는 단행본, 논문, 고지도 등 문헌 고찰과 더불어 주요 언론사의 신문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²¹⁾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의 근대화 과정에서 노점에 대한 담론의 형성 및 변화를 시대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노점상의 철거, 해체, 이주 그리고 정착에 대한 주기를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현재에 이르러 노점에 대한 인식이 언론과 정책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살펴 볼 수 있다.

20) 조선시대의 난전(亂塵) 역시 오늘날의 노점과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시전(市廛)상인 이외의 상인으로 국가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 상행위로 규정되었다. 조선 전기부터 난전의 존재는 고 문헌 등을 통해 확인되며, 난전에 대한 강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37권』, 연산 6년 3월 5일 기미 2번째 기사, 1500년) 임진왜란(1592, 1598)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이후 발생한 도시빈민들은 급료병을 택하였으며, 훈련도감에서 지급하는 급료로 생계를 충당하기 힘든 군인들에 의해 난전이 확대되었다. 특히 17세기 후반 한양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상난전이 활성화 되어 시전상인들과 난전들과의 갈등이 커져갔다. 하지만 흥년의 시기에는 조정에서도 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증가하는 난전 단속에 소홀하였으며, 권세가문과 결탁한 사상난전은 본격적으로 그 규모를 확장하기 시작하였다.(고동환, 2013) 하지만 난전에 대한 단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610년(광해 2년)에 난전에 대한 단속 기록이 있으나 처벌이 가벼워 불법적 상행위는 지속되었다. 난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현종(1668년)부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 들어 난전이 활발해 지자 조정은 시전을 대상으로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금난전권(禁亂塵權)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대동법 실시 이후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난전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고, 자본력을 축적한 상인들은 금난전권에 대항하여, 1791년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이 갖고 있는 금난전권을 폐지하게 된다.(한국고중세사사전)

21) 신문 보도 자료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로 선정하였으며, 보도자료 출처는 인터넷 검색(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검색어: 노점, 노점상)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1. 노점 정비시기 : 대한제국기(1897-1910) - 일제강점기(1910-1945)

■ 근대 도시화에 따른 노점 정비

대한제국 시기 및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서울은 근대적 의미의 도시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에 따라 도시환경에서 도시 위생개념이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는데, 이는 비위생지역의 개조, 상하수도 및 도시하천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대한제국 시기 친미개화파관료들(박정양, 이채연, 이계필, 남궁억 등)의 주도로 ‘한성부 개조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당시 미국에서 진행중인 근대화 계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개화파 관료들은 상인들과 협력하여 도로의 정비와 신설 등 도로망을 정비하였으며 청계천 준천 등 도시의 질서, 청결, 위생 등을 강화해나갔다.(박세훈, 2013)

1910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일제는 시구개정(市區改正)을 통해 도시계획을 진행하였는데, 불규칙한 시의 구획 정비와 굴곡진 도로의 직선화, 하수도 부설 등의 비교적 단순한 도시개조사업에 집중되었다. 1920년대에는 경성부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전염병이 창궐하는 등 위생개념이 더욱더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청계천 부근에 빈민들의 밀집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수인성 전염병이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청계천은 ‘더러움과 비위생’의 상징이 되었다. 그밖에 한성부의 도시화 과정에서 위생에 관한 기록은 1934년 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 1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령에서 시가지계획이라고 칭함은 **시가지의 창설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 위생, 보안, 경제 등에 관한 중요시설의 계획으로서 시가지계획구역에 대하여 시행할 것으로 함.[필자의 강조]

이와 같이 근대적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의 위생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도시개조의 주요한 명목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노점에 관한 기록

을 많이 발견할 수 없으나 몇몇 신문 보도자료를 통해 노점은 도시 위생기준으로 인해 철거 및 단속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개성일대의 음식업 노점을 대상으로 위생·보건상 이유와 교통사고방지, 도시미관 상 등의 이유로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였다는 기록 등을 찾아볼 수 있다.²²⁾



[그림 2-1] 노점(朝鮮文化普及會, 1938)



[그림2-2] 경성부도로계획변경도(부분확대)
(서울역사박물관,1930년대말-1940년대초)²³⁾

2. 노점 확산시기 : 1945년-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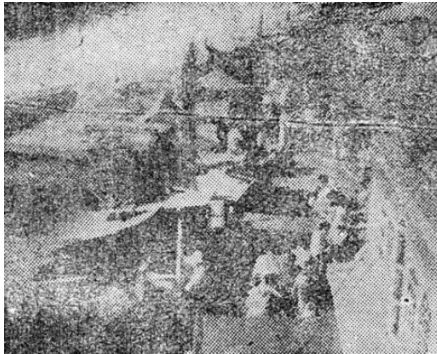
■ 전재민 노점 형성 및 증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노점은 전재민들을 포함하여 서민층 및 빈민층들의 생계수단으로써 기능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내에 판자형태의 노점상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취급하는 품목으로는 일본군들의 배급 물자를 비롯하여 각종 음식류와 고무신 등의 생필품 등 다양하였다. 노점은 동대문에서부터 을지로, 청계천변, 낙원동(낙원시장), 인현동, 낙원동, 당주동, 남대문시장, 명동, 서울역전 등 서울 도심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다. 노점상 대부분은 생계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경우였지만 당시 노점상의 수입은 평균적인

22) 「不正露店에 鐵槌」, 『동아일보』 (1938. 10. 01.)

23) 정식명칭은 <경성부공평인사정지내계획도로일부변경도京城府公平仁寺町地內計劃道路一部變更圖>이며 현 태화빌딩 주변의 인사동, 종로구 공평동 지역의 일부 도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작성된 청사진 도면이다. 도면에는 기존 불규칙한 도로를 직선화시키는 계획이 표현되어있다.

직장인들의 월급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어 새로운 부의 축적 수단이기도 하였다.²⁴⁾ 하지만 노점상들은 도시미관, 교통질서 확립, 위생문제, 무허가 상행위라는 이유로 당국의 단속을 받게 되며, 철거의 대상이 되었다.



[그림2-3] 청계천변의 노점상(「서울의 断面(4)“삶”을 爲한 露商轉身④清溪川 변두리 에 “와글와글”」 『경향신문』, 1948.10.05)



[그림2-4] 동대문 시장(「復歸 서울 消息(2) 東大門市場」, 『경향신문』 1953.04.11.)

한편 1946년 발생한 수해와 전염병 등 재해로 인하여 식량 유통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상인들은 농촌에서 낮은 품질의 쌀을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 서울 시내의 음식노점상 혹은 쌀 배급소 등에 높은 가격에 쌀을 매매하여 유통시키기도 하였다. 이는 “경제를 교란케” 한다는 명목으로 경찰들의 단속 대상이 되었다. 증가하는 노점상 혹은 무허가 건축은 전재민들의 경제적 문제를 일부 해결해주도 하였으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기회로 생각하여 가족단위의 노점상들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또한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되었다.²⁵⁾

1940년대 후반 당시 서울에는 18개의 시장을 중심으로 전재민노점상들이 분포 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경영 상태였다. 이러한 이유로 당국에서는

24) 「樂園市場組合 結成大會舉行」, 「서울의 断面(4) “삶”을爲한 露商轉身」, 『경향신문』(1948. 07. 14); 『경향신문』(1948. 10. 05); 『동아일보』(1948. 11. 27) 당시 서울에서 고수익 직업의 순위로는 1위 여급(女給), 2위 기생, 3위 길거리 악사, 4위 노점우동장사, 5위 빈대떡집으로 조사됐다.

25) 「“쌀”謀利에는極刑」, 『동아일보』(1946. 07. 14); 「無許可建築, 露店等取締」, 『경향신문』(1947. 08.30)

노점상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전재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기도 하였다. 단속 뿐 아니라 도시 구획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토지관리인이 변경되면서 노점상이 철거되기도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노점상들은 각기 나름의 생존환경을 조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단속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 관과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낙원시장조합이나 자유시장 노점상인 조합 등과 같이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인들의 관계망을 맺기 위한 조직들이 결성되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그 예로 경관이 전재민들의 노점상으로부터 물품을 강취한 사건이 적발되어 파면처리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전재민 노점상의 후생기관을 자처 하였던 청계후생회(淸溪厚生會)를 포함한 종로 북부후생회, 중구 노점관리처 등이 경찰에 의해 해체되었는데, 그들은 노점상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갈취하여 경찰후원회비로 거액을 제공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²⁶⁾

그런 와중 1948년 9월 28일 서울시에서는 도시미관과 위생적 문제로 도심지에 분포된 노점상인을 왕십리와 마포 두 지역으로의 이전 방침을 논의하였다.²⁷⁾ 이후 시경(市警)위원회에서도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막연한 단속으로 노점상을 근절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집단시장을 개설하여 노점상을 일정한 공간에 수용시키는 안을 제안 하였다.²⁸⁾

한국전쟁 발발 이후 당시 피난민들까지 합하여 1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인구가 부산지역으로 집중되면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노점 문제가 불어졌다. 부산시 당국에서는 도로에 산재된 노점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신설노점상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였다. 하지만 그 정책은 그마저 일괄성을 갖지는 못하여 충무로 일대의 백여 호에 달하는 노점상이 철거되

26) 「自由市場 앞 露店 明渡逐出로 彷徨」, 『경향신문』 (1947. 7. 26.); 「物品强奪한 警官 首都廳에 摘發 罷免」 『동아일보』 (1947. 12. 27); 「戰災同胞 주머니털던 露店厚生會解體令」, 『동아일보』 (1948. 04. 16)

27) 1948년 당시 서울 시내에 전염병이 창궐하였는데, 그 대표적 이유로 노점상의 불결함이 지적되었다. 「무섭지 않습니까? 봄철의 전염병 주사를 맞아 물리칩시다」, 『경향신문』 (1948. 04. 04.)

28) 「露店地域設置 市警委서 對策研究」, 『동아일보』 (1948. 10. 06.)

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청측과 상인측의 대립이 이루어졌는데, 시청측은 보건 위생, 교통질서 그리고 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철거를 정당화 하였고, 철거당한 업자들을 공설시장으로 이전 할 것이라 언급하였다.²⁹⁾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노점상 단속 및 철거는 대규모 노점상 밀집 지역인 국제시장에도 해당되었다. 국제시장 터는 본래 해방 이후 귀환동포들의 생활터전으로 부산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지정된 시소유지였으나, 노점 또는 ‘하고방’이 들어서기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후 교통지장, 공중위생, 화재위험, 도시미관상 등의 이유로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에 노점상들의 탄원이 증가하자 부산시는 도시계획 실시 전까지 교통의 지장이 없는 한에서 단속을 완화할 것을 밝혔으며, 부산시노점지도위원회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부산시내 영주동 가로의 4백명가량의 노점상인들에게 철거명령을 내렸으며, 노점상으로 생존을 이어가는 피난민들은 이에 대해 반감을 사기도 하였다.³⁰⁾

한편 서울 재수복 이후 폐허가 되었던 서울에 인파가 몰려들면서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그리고 청계천변 등에서 노점상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규모에 있어서는 6.25 전쟁 이전보다 증가하여 총 4천 5백여개의 노점상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시 제반산업기관의 부흥부진으로 인한 실업자가 노점상 시장에 진입된 것으로 보인다.³¹⁾ 1954년 6월 23일 오후 7시 25분 남대문시장 내 협동양복점에서 발화한 화재는 동북풍을 타고 주변시장으로 확산되어 같은 날 9시 25분 한미합동소방대에 의하여 진화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재민이 3천 5백여명 발생한 대규모 화재사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경에서는 각 시장 내에 방화반을 조직하여 소방차통로에 밀집된 판자집, 천막, 노점을 완전 철거할 것을 밝혔다. 전

29) 「露店占用料增收」, 『경향신문』 (1952. 03. 16.); 「忠武路露店을 突然撤去 市廳處事に 物議!!」, 『경향신문』 (1952. 07. 13)

30) 「國際市場에 波 曲折重첩 公設市場論再擡頭」, 『경향신문』 (1952. 01. 29.); 「靑天霹靂撤去令 영洲洞 露商들은 어디로!」, 『경향신문』 (1952. 05. 10)

31) 「옛主人맞이는 昨今の『서울』」, 『동아일보』 (1953. 07. 17)

소된 남대문시장의 상인들은 남대문시장 맞은편의 북창동 시장으로 자진 이전하여 북창동 시장길 뒤편의 공지공간을 점유하기도 하였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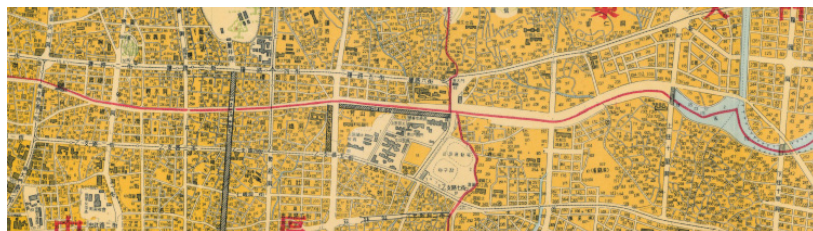
3. 노점 단속시기 : 1960년-70년대

■ 경제성장 중심 도시구조 재편에 따른 노점 이전

1960년대를 기점으로 공업중심의 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도시공간에서 노점상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들은 주로 이농인구로서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공식부문에 흡수되지 못하고 노점상을 포함한 도시 비공식부문으로 일부 흡수되기도 하였다.(김준희, 2011) 특히 1960·70년대를 거쳐 청계천이 복개(그림2-6참조)되고 청계고가도로가 설치되면서 청계천 부근에 위치하고 있던 일부 노점상들은 철거 및 이전을 당하면서 또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노점 밀집지역을 형성하기도 하였다.³³⁾



[그림2-5] 지번입척신서울특별시지도(부분확대) 1958,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그림2-6] 지번입척신서울특별시지도(부분확대) 1968,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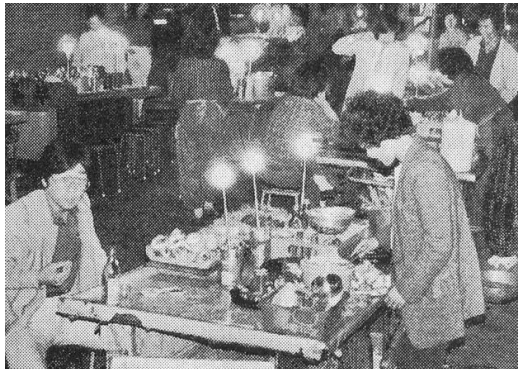
32) 「各市場에 防火班을 組織」, 『경향신문』 (1954. 07. 04.); 「天幕까지도 撤去 商街(는 北倉洞에 移動」 『경향신문』 (1954. 06. 26)

33) 노점의 이전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노점밀집 지역의 예로 동대문 현책방 거리가 있다. 1960년대 청계천6가 등 청계천 인근에서 노점 형태로 운영되었던 현책방들은 청계천 복개공사로 인하여 평화시장 및 대학천상가 일대로 모여들면서 동대문 현책방 거리를 형성하였다.

4. 노점 단속 강화시기 : 1980년대-90년대 중반

■ 야간통행금지 조치 해제로 인한 야간운영 노점 형성

1982년 1월 5일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야간에 활동하는 경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남대문시장이나 신촌시장, 청계3가, 종로3가 등 노점상 철야 야시장이 증가하였으며, 백화점·극장 인근 도로에 무신고 노점상 군집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곧 서울시는 1982년 2월 24일 도로 불법점용자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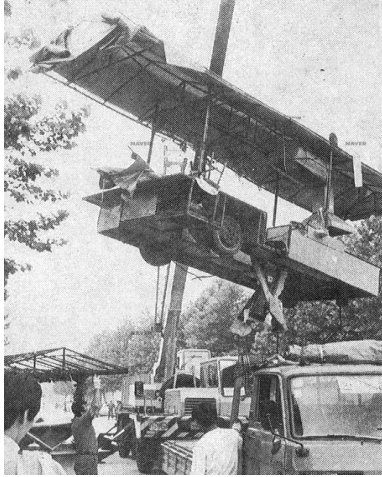
[그림 2-7] 청계3가 일대 야시장(동아일보, 1982. 10.15)

해 점용료를 부과할 방침을 세우고, 종로, 청계로, 을지로, 남대문로 등 4대문 내 11개 간선 도로변에 우선 적용키로 하였다. 당시 서울시는 4대문안 간선도로변에 분포한 노점상을 7천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³⁴⁾

■ 국제행사 준비로 인한 서울시의 노점상 단속 강화

80년대는 미주지역여행자협회총회(1983년), 국제의회연맹총회(1983년),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총회(1985년), 아시안게임(1986년), 서울올림픽(1988년) 등 다수의 국제행사가 개최된 시기이다. 당국은 국제행사를 준비하면서 도시환경정화라는 명목으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노점을 외국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관광적 요소로 인식하는 동시에 거리미화 차원에서 단속을 지속하는 등 노점에 대한 모순된 시각을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다. 86년 아시안게임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는 시설건설,

34) 「4대문안 11개 幹線道路邊 露店·雜商人 장사못한다」, 『동아일보』 (1982. 02. 24.)



[그림 2-8] 석천호수 노점 철거
(동아일보, 1989.07.10)

환경, 보건·위생, 교통, 관광·숙박, 시민의식, 문화·예술 등 7개분야로 나눠 대회개최 준비를 하였던, 노점상 철거 문제는 환경분야에 속하여 다뤄졌다. 경기장, 숙소주변의 노점상을 포함하여 시내 간선도로변의 포장마차와 노점상, 구두담기 박스 등을 철거기로 발표하였다.³⁵⁾ 단속의 강도는 더욱 높아져 서울시는 1988년 6월 포장마차·손수레 보관소의 출입로를 봉쇄하였으며, 1989년 7·8월에 걸쳐 상계6동 주공아파트 3단지 일대, 석촌호수, 명동, 이화여대 주변, 강남터미널 주변,

여의도시민공원, 뚝섬유원지 등지의 노점상을 대상으로 철거에 들어갔으며, 두달 동안 서울지역에서 철거된 노점 수는 4천3백64개에 달했으며, 전국 노점의 45%가량이 철거되었다.³⁶⁾

35) 「간선도로변 포장마차·露店 뒷골목등에 옮기도록 유도」, 『동아일보』 (1986. 03. 07.); 「86게임 앞으로 100일大會준비 어디까지 왔나 亞洲의 젊음 잠실벌에서 技와 힘을 겨룬다」, 『매일경제』 (1986.06.12.)

36) 당시 포장마차·손수레 보관소는 노점상들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포장 마차 혹은 손수레를 보관하는 장소로써 노점상인들간 정보를 주고 받는 등 노점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일정한 노점 집결지 역할을 하였다.; 「露店철거대책으로 街販店 증설 영세업자끼리 과당경쟁 부채질」, 『동아일보』 (1989. 09. 09); 「露店行商도 自動車시대」, 『경향신문』 (1987. 03. 24.); 그 밖의 노점상 철거 대상지역으로 는 1) 종로구 : 비각~종각, 새문안길, 사직로, 율곡로, 대학로, 창경궁로 2) 중구 : 을지로 일부, 서소문로, 새문안길 3) 용산구 : 서울역 주변 4) 동대문구 : 청량리역 주변 5) 서대문구 : 사직로, 서소문로 6) 마포구 : 마포로, 양화로 7) 관악구 : 신림동사거리 주변 8) 송파구 : 풍납로, 성내역 주변 9) 강동구 : 천호동 사거리 주변, 고덕전철역부지 주변 등이 있다.

본문에 열거된 노점상 철거 지역의 철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상계6동 주공아파트 3단지 일대의 노점상의 경우 1989년 7월 12일 오전 10시, 노위구청직원 160여명과 경찰 300여명 등 총 500여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으며, 노점상 80여개소를 철거하였다. 『경향신문』 (1989. 07. 12)
- ② 석천호수 주변 노점의 경우 1989년 7월 10일 오전 6시, 서울시직원 1,000여명, 경찰 4,000여명 등 총 5,000여명의 인력과 중장비 28대가 동원되어 214개의 포장마차를 철거하였으며, 석촌호수주변에 경비초소를 설치하였다. 『동아일보』 (1989. 7. 10)
- ③ 명동 노점의 경우 1989년 7월 19일 오후 2시, 구청직원, 가로정비요원 등 1천여명과 경찰 36개중대 4,700명의 인력과 운반차량 50대, 견인차 4대 등 6대의 차량이 동원되어 손수레, 좌판 등 164점의 노점을 철거한 뒤 19개소의 경비초소를 설치하였다. 『경향신문』 (1989. 07. 19)
- ④ 이화여대 주변 노점의 경우 1989년 7월 20일 오전 5시, 서울서대문구청은 서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 새로운 형태의 노점상 등장



[그림 2-9] 차량 형태 노점(동아일보, 1987. 03. 24)



[그림 2-10] 가판 형태 노점(동아일보, 1990. 01. 06)

서울시는 노점상철거대책으로 불법적으로 거리를 점유하던 좌판 형태의 노점상을 철거하는 대신 합법화된 고정식의 가판점(街販店)을 인도에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기존 노점이 철거된 자리에 차량 형태의 노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여의도 및 명동·소공동·수송동의 빌딩가, 종로·영등포·동대문시장 일대에 차량형 노점 밀집지역이 형성되었다.³⁷⁾ 트럭을 개조하는 등의 차량 형태의 노점이 등장하게된 배경으로 1980년대 후반 저달러·저유가·저금리의 이른바 ‘3저현상’과 88올림픽 특수로 인하여 두터워진 중산층을 바탕으로 시작된 ‘마이카 시대’를 들 수 있다. 특히 1979년 서울 곳곳에 분산되어있던 중고차 매매업체와 정비업체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된 장안평

손수레, 좌판 등 221점을 철거하였다. 구청직원 385명, 경찰5개중대 7백여명 등 1,100여명의 인력 동원. 경비초소 5개소 설치. 『경향신문』 (1989. 07. 20)

- ⑤ 강남터미널주변 노점의 경우 1989년 7월 24일 오후2시, 서울시 직원 110명과 경찰 55명 등 165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강남고속터미널 일대 노점상 69개를 철거하였다. 철거 전날 53곳은 자진 철거하였다. 『경향신문』 (1989. 07. 24)
- ⑥ 여의도시민공원 노점의 경우 1989년 7월 31일 오전6시, 서울시는 영등포구청 및 한강관리사업소직원 1,164명과 경찰 1,440명 등 2,971명과 크레인 차량 차량보트등 80여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포장마차 166개, 손수레 9개, 좌판 33개 등 280개 노점상을 철거하였다. 『동아일보』 (1989. 07. 31)
- ⑦ 독섬 노점의 경우 1989년 8월 7일 오전 6시, 경찰 1천 7백 90명 등 3천 1백 37명의 인력과 크레인 9대 등 차량 76대를 동원하여 한강시민공원 독섬지구내 포장마차 122개소, 손수레 13개소, 좌판 14개소, 가설점포 9 개소 등 노점상 158개소를 철거. 노점상 재발을 막기위해 시민공원 내 8개 경비초소 설치. 『경향신문』 (1989. 08. 07)

중고시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노점상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 할 수 있었다. 차량형 노점은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었으며,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동하며 상권이 형성되어있는 장소를 찾아 상행위를 가능케 했다. 또한 개조한 트럭의 적재 공간은 물건을 저장 할 수 있는 창고인 동시에 편리하게 진열 할 수 있는 좌판의 기능을 지니고 있어 철거된 노점의 대안으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5. 노점 재생산 시기 : 1990년대 후반

■ 경기침체로 인한 노점 시장 확대



[그림 2-11] 동대문 운동장 앞
(한겨레, 1998. 05. 20)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 및 미취업자들이 생계의 수단으로 노점 시장에 유입되면서 노점의 수는 증가하였으며, 분포 지역 역시 지하철 역세권 뿐만 아니라 대기업 사옥 주변, 주택가 골목, 아파트 단지 등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신·구 노점상 사이에서 자리 경

쟁이 심화되었다.³⁸⁾ 뿐만 아니라 노점상 운영자의 평균 나이가 낮아져 20~30대 기반의 젊은 계층이 노점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급증하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고, 당시 310곳인 노점상 ‘유도구역’을 자치구별로 확대해 나갔으며, 특히 주말을 이용하여 주택가의 공지나 아파트단지, 학교 운동장, 구청 앞마당 등 도시 내 비어있는 토지에 벼룩시장과 알뜰시장 등을 개최하여 생계형 노점상을 유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38) 서울 주요 간선도로변 노점상의 수는 IMF 이전(1997년)에는 약 1만여 개였으나, 이후 1998년에는 13,551개로 증가하였다. 경기 회복시 까지 노점 단속을 완화하겠다는 서울시 발표 이후 매년 20~35%의 노점상 증가율을 이어왔다. (서울시, 1998)

6. 노점 이주 시기 : 2000년대

■ 도시 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한 노점상 철거 및 이주



[그림 2-12] 청계천 복원 직전

자료: www.omn.kr/obswh



[그림 2-13] 동대문 품물시장

자료: 노동시당 웹진

2000년대에 들어서 2003년 청계천복원사업, 2007년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2008년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사업 등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노점 및 점포에 대한 이주 정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따른 갈등구조가 상인과 서울시 사이에서 형성되고 변화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세력은 노점상이었는데 서울시는 점포상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협상을 거듭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계2~9가를 ‘노점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행정 대집행’을 통해 광고에서 청계 9가에 이르기까지의 1500여명의 노점상들은 강제적 철거 및 이주의 대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 6m였던 청계천변 일대의 보도는 3m로 노점을 설치할 공간이 줄어들자, 노점의 형태는 고정식 좌판에서 이동이 용이한 보자기 및 바퀴달린 수레 형태로 변모하기도 하였다.³⁹⁾ 하지만 이전을 거부한 200여 노점상은 황학동 벼룩시장 등지에서 청계천 일대에서 흩어져 단속을 피하며 노점 활동을 지속하기도 하였다.

39) 「청계천 노점상 강제철거 1주일」, 『경향신문』 (20013. 12. 07); 서울시와 점포상과의 협상 내용의 골자는 공사 시 영업피해의 최소화과 공공상을 중심으로 ‘문정지역 종합 개발 구상안’에 의거 도심 부적합 업소의 송파구 문정동으로의 이전이었다.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철거된 노점상은 크게 세군대로 나뉘어 이전되었는데, 동묘 주변, 성동공고 뒷편 그리고 동대문 운동장 내부 등이 있다. 그 중 약 900여 개의 노점상이 이주한 동대문 운동장은 ‘풍물시장’으로 개칭하였으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풍물시장을 세계적 명소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건다. 하지만 2008년 서울 시장이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동대문 운동장은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일명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사업)으로 대체되면서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전한 노점들은 다시 황학동 시장, 서울 풍물시장(옛 송인여중 부지), 한양공고 뒷편, 훈련원공원 주변 등으로 재 이전하게 된다. 이는 당시 노점상들이 내세웠던 구호인 ‘노점이 축구공이냐’라는 문구는 도시 개발에 의해 이주를 반복하던 노점상들의 상황을 대변한다.

한편 서울시는 2007년 2월 27일 동대문운동장 철거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맞물려 ‘노점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노점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노점시범거리’를 자치구별로 선정하여 일정구역에 한하여 노점을 허용하며 노점의 운영시간, 운영기간, 규격, 취급 품목 등의 관리를 골자로 한다. 동년 9월 서울시는 디자인거리 10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이어 2008년 1월 시간제 및 규격화 노점거리 확대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 서울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노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다. 디자인서울의 기본전략은 ① 거리의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하고 저밀도 고효율의 디자인을 지향하는 ‘비우는 디자인 서울’, ② 건물주와 점포주, 시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더불어 디자인 하는 서울’, ③ 지속적인 관리로 불법 간판, 불법 노점상 등을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디장니 서울’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을 설명하는 글에서 “지저분한” 상업 간판과 노점상은 선진도시에 어울리지 않음을 서술하고 있어, 정비되지 않는 노점 가로 등 “지저분함으로 상징”되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⁴⁰⁾

7. 노점 전환 시기 : 2010년대

노점에 대한 인식 및 노점 행태 변화는 2010년도에 들어 두드러졌다. 푸드 트럭(Food truck) 및 플리마켓(Flea Market) 등 관 주도로 노점상을 유치하여,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⁴¹⁾ 이들의 특징은 오일장 및 요일장(알뜰시장)과 유사한 형식으로 일정 기간·시간·장소를 정해놓고 영업 행위를 하게끔 하는데 있으며, 광장, 공원, 유희공간, 가로 등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여의도 한강공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반포한강공원 등에서 ‘서울 밤도깨비야시장’을 개최하면서, 푸드트럭 또는 악세서리 및 의류 등을 판매하는 좌판형태의 노점들을 배치하여 도심을 관광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1890 남산골 야시장’, ‘덕수궁 페어샵’ 등 노점을 활용한 지역 관광화에 관이 주도적으로 나서 등 노점의 활용이 다각화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노점 실태조사, 노점특화거리 조성, 노점 허가제 시행 등을 통한 노점총량제를 도입하고 시행함으로써



[그림 2-14] 서울
밤도깨비야시장
(www.bamdokkaebi.or)



[그림 2-15] 인사동 노점 단속
(뉴시스 2011.07.22.)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노점의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점의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점 정책에 대한 모순된 입장을 보인다.

40)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data.si.re.kr/node/168) 일부 발췌, 2007년 서울디자인 거리는 총 10군데에서 진행되었으며, 1)종로구 디자인 대학 2) 중구 남대문로 링크 스트리트 3) 용산구 이태원 거리 4) 구로구 창조길 5) 성북구 하이브리드 거리 6) 금천구 통하는길, 쾌활한 거리 7) 광진구 어린이거리 8) 강동구 얼굴과 개성이 매력있는 토탈디자인거리 9) 강남구 Iconic media Street 10) 관악구 참된 걷기와 기분 좋은 머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1) 김지아(2014)는 서울시 플리마켓 혹은 ‘도시형 장터’ 목록으로 1) 프리마켓 2) 달시장 3) SAM 삼청 동아트마켓 4) 명량시장 5) 농부의 시장 6)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7) 마르쉐@ 8) 도폐기 마켓 9) 이태원 계단장 10) 돌예공 11) 헬로우문래 12) 세종예술시장 소소 13) 놀장 등을 들고있다. 이 중 1)프리마켓(2002)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0년도 이후에 형성된 도시형 장터이다. ; 푸드트럭에 관한 내용은 7p 각주 참조

4절 소결

1. 시기별 노점에 관한 쟁점 변화

이상 노점상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하였다. 정리하면 노점의 변천시기 별로 크게 7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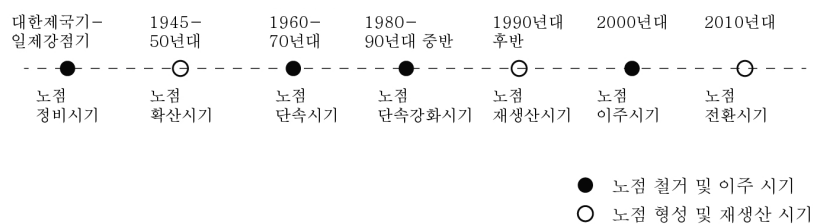
① 서울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도시 위생개념이 등장하면서 노점이 정비되는 시기(대한제국-일제강점기), ② 독립 전쟁 및 6.25전쟁으로 인한 전재민 노점을 중심으로한 노점 확산시기(1945년-1950년대), ③ 성장중심의 서울시 도시개발에 따른 노점 철거 및 이전이 활발했던 노점 단속시기(1960년대-1970년대), ④ 국제행사 준비로 인한 서울시의 노점상 단속이 강화되었던 노점 단속강화시기(1980년대-1990년대 중반), ⑤ IMF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 및 미취업자들의 노점 시장 유입으로 인한 노점 재생산 시기(1990년대 후반), ⑥ 도시 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 노점들의 철거 및 이전이 일어난 노점 이주 시기(2000년대), ⑦ 규제의 대상이었던 노점에 대한 인식의 재고로 인하여 노점의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되었던 노점 전환시기(2010년대)로 정리 할 수 있다.

[표 2-2] 시기별 노점에 관한 쟁점 변화

노점 성격	시대별	주요 내용
①노점 정비시기	대한제국-일제강점기	- 근대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위생개념 등장
②노점 확산시기	1945년-1950년대	- 전재민 노점 형성 및 증가
③노점 단속시기	1960년대-1970년대	- 경제성장 중심 도시구조 재편에 따른 노점 철거 및 이전
④ 노점 단속강화시기	1980년대-1990년대 중반	-야간통행금지조치 해제로 야간운영 노점 형성 - 국제행사 준비로 서울시의 노점상 단속 강화 - 새로운 형태의 노점상 등장
⑤ 노점 재생산시기	1990년대 후반	-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미취업자들의 노점 시장 유입
⑥노점 이주시기	2000년대	- 도시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한 노점 철거 및 이전
⑦노점 전환시기	2010년대	- 지역활성화의 방안으로 노점상 활용

물론 지역별·시기별로 시기상 노점 정책의 차이가 존재하며, 앞서 진행한 노점의 쟁점 변천과정 조사가 노점 전체를 대표하기 힘든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주요 언론사의 신문 보도 자료에서 이슈가 되었던 노점관련 사건을 다룬 만큼 당시 노점의 쟁점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특히 기존 노점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1940·50년대 초의 노점을 다뤘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대한제국 시기(1897-1910)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노점의 변천과정을 살펴 본 결과 노점은 국가 정책, 사회·경제상황 및 도시개발 방향에 따라 철거와 이전 그리고 재생산을 반복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16]참조) 이는 관 주도의 노점상 단속으로 노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단속에 대응하여 노점은 자생적으로 재생산을 이뤄왔다.



[그림 2-16] 시기별 노점 철거 및 재생산 과정

2. 최근 노점 정책에 대한 한계

반면 2010년대에 들어 노점에 대한 인식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에 의해 철거의 대상으로 관리되어 왔던 노점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정부 주도하에 지역 활성화의 주체로 다뤄진다. 하지만 이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한 일부 노점에 해당하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기존 노점에 대한 대책으로 보기는 힘들다. 또한 노점을 중심으로 지역을 활성화 하려는 정책과 더불어 서울시는 노점총량제 등 노점의 증가를 규제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노점에 대한 모순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노점상의 진입을 차단하지만 정부 주도하에 푸드트럭 및 야시장 등을 중심으로 신규 노점상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제3장 청계천변 노점의 이주 및 정착 과정

1절 시기별 청계천변 노점의 이주 및 정착 과정

앞서 거시적 맥락에서 노점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본 장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축소하여 청계천변 노점의 이주 및 정착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계천변을 공간적 범위로 선정한 배경으로 청계천은 광복 및 6.25전쟁 전후로 하여 판자 집, 판자 점포 및 노점이 크게 증가한 공간이며, 이후 일련의 청계천변 도시개발로 인하여 노점의 철거 및 해체, 이주 그리고 정착이 활발히 일어난 공간임에 기인한다.

시간적 범위로는 195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로 한정하였다. 1950년대 후반 이후를 기점으로 선정한 이유는 1950년대 청계천 복개공사가 개시되면서 청계천변의 공간조직이 급격하게 변하였으며 그에 따라 노점의 이주 및 정착이 활발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1. 1950년대 후반 - 1970년대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진행된 청계천 복개공사 및 청계고가도로 건설에 의해 청계천 일대의 도시공간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청계천 복개공사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태평로에서 광통교에 이르는 구간을 복개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광복이후 청계천 준설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였으나,⁴²⁾ 청계천 부지의 판자점포 점포주들이 서울시에게 철거 유보를 요구하며 저항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포 철거를 연기하였으며 그에 따라 복개공사는 중단되었다. 하지만 1955년 서울시는 도시 미관 및 하천 준설을 명목으로 청계천변에 있는 판자점포와 판잣집들의 일부를 강제

42) 「清溪川の 堤防工事 五月부터 十萬圓豫算으로 改修 道土木課에서」, 『동아일보』(1946.04.28.)

철거하여 광통교에서 광교에 이르는 구간을 복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판자점포 상인들과 서울시간의 갈등이 있었으나, 복개 사업은 강행 되었다. 이후 1958년부터 1961년까지 광교에서 청계6가에 이르는 구간이, 1965년부터 1967년 까지 청계 6가에서부터 청계8가에 이르는 구간이, 1970년부터 1977년까지 청계 8가부터 신답철교에 이르는 구간이 복개되었다. 복개공사를 마친 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4년에 걸쳐 광교에서 마장동에 이르는 청계고가도로가 건설되었다. 그 결과 청계2가 일대는 고층건물이 들어섰으며, 청계3·4가에는 공구상가와 전기상가, 전자상가가, 청계 4·5가에는 재래시장인, 청계5·6·7가에는 의류상가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청계천2에 밀집했던 고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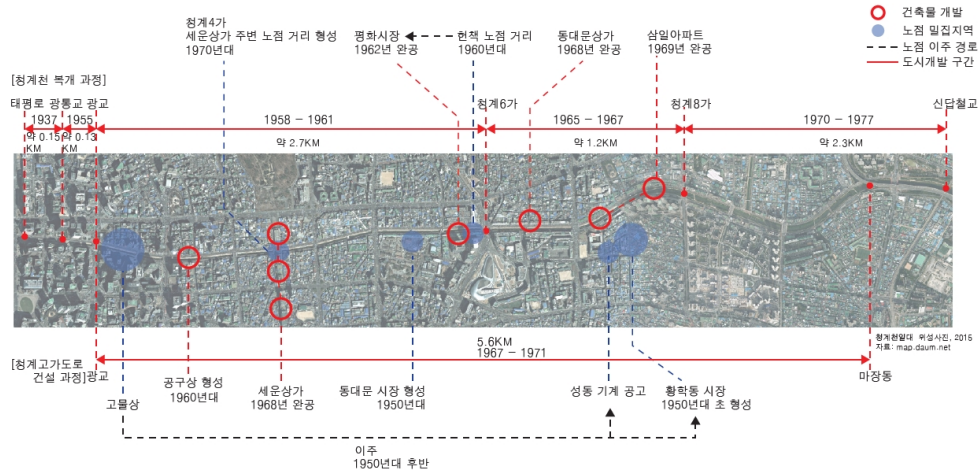


[그림 3-1]세운상가 육교 위 노점(1977),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들은 철거됐으며, 황학동 시장 등으로 이주하였다.(류철호, 2008) 복개공사 및 청계고가도로 건설이 진행되는 동시에 청계천 변에는 평화시장(1962년 완공), 동대문 상가(1968년 완공), 세운상가(1968년 완공), 삼일아파트(1969년 완공) 등의 선형적 형태의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⁴³⁾ 이로써 1950년대 청계천변을 채우고 있던 무허가 판자촌을 비롯한 판자 점포들은 대부분 철거되어 일부는 세운상가([그림3-1]참조) 혹은 청계천 8가 등지에 자리하게 되고,⁴⁴⁾ 일부는 봉천동, 신림동, 상계동, 경기도 광주 등지로 이주하게 된다.

43) 천계천 변을 따라 늘어선 선형적 형태의 건물은 가로변에 노점거리가 형성되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청계천의 복개공사로 인해 해체되었던 노점들은 선형적 건물 전면의 도로를 따라 노점 밀집 구역을 형성하여, 청계천 변 특유의 노점 경관을 형성하게 된다.

44) 청계천 8가에 형성된 황학동 시장의 기원은 1950년대 초로 본다. 동대문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한 노점상을 비롯한 고물상들과 피난민들이 청계7가와 8가 주변의 황학동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였다. 당시 노점상들은 주로 미군물품을 판매하였다.(진양교, 2000)



[그림 3-2] 1950년대 후반-1970년대 청계천 개발 및 주요 노점 이주·형성 경로

2. 1980년대 - 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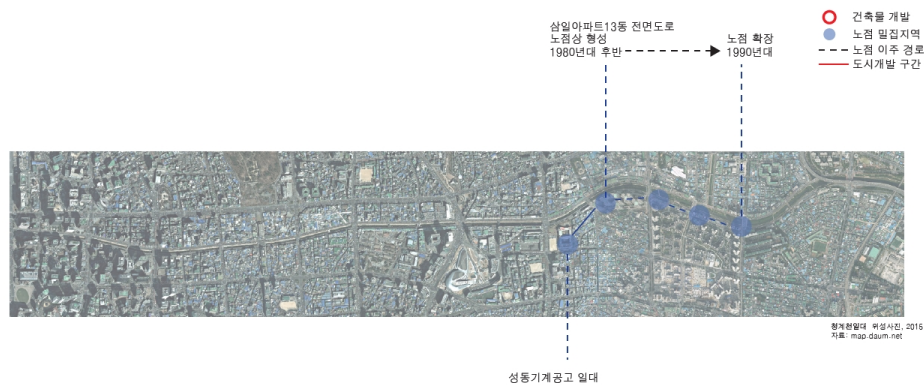
[그림 3-3] 황학동 벼룩시장 노점
(주거환경신문, 2003.07.29.)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삼일시민아파트 전면 도로에 노점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IMF로 인한 경제침체로 90년대 후반 노점은 크게 증가한다. 당시 삼일시민아파트 후면에 위치한 황학동시장에 노점상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인적 연고가 필요하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자리에 대한 권리금이나 자릿세를 내어 장사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도 하였다.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노

점상으로 인하여 삼일아파트 13동에 집중되어 있던 노점은 청계천7가와 청계

천 8가, 청계천 9가까지 확장하게 된다. 노점이 급격히 증가하자 노점상들은 점포상들과 마찰을 빚게 되면서 점포상들은 노점상인들을 대상으로 단속할 것을 관에 요구하였으나, 일시적인 단속 이후에는 다시 노점상이 들어섰으며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노점의 모습이 황학동 시장의 대표적 경관으로 자리잡으면서, 노점상과 점포상은 공존하는 방향으로 상생관계를 맺어갔다. (진양교,2000; 안영주,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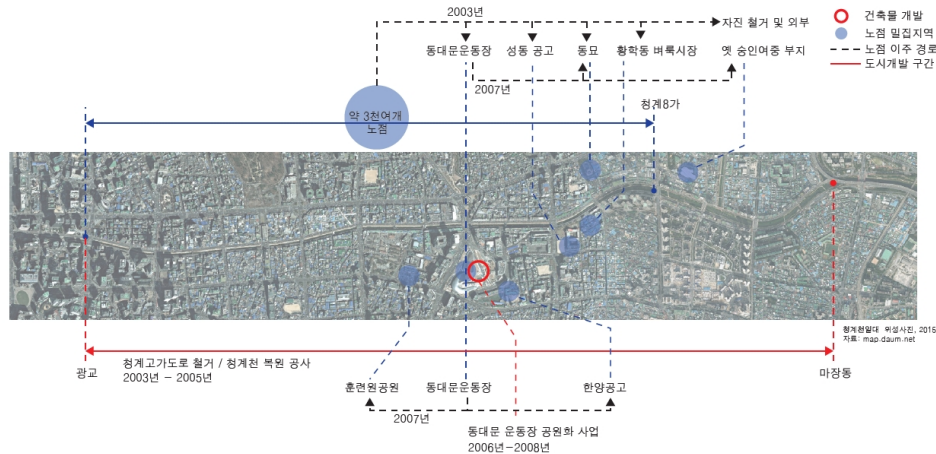
한편 동묘 벼룩시장은 1980년대부터 상인들이 모이면서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 있으나,⁴⁵⁾ 80·90년대 동묘 인근은 ‘쓰레기 적환장’ 및 ‘고물집하장’이 방치 되어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문제시 되거나, 동묘 시민공원화로 인하여 인근에 노인들이 모여 쉬는 공간으로 전환되었을 뿐, 8·90년대 동묘 벼룩시장의 노점 밀집 공간을 두시 받침 할 만한 자료는 되지 않았다.



[그림 3-4] 1980년대-1990년대 청계천 개발 및 주요 노점 이주·형성 경로

45) 『시사상식사전』(terms.naver.com/entry.nhn, 검색어: 동묘벼룩시장, 검색일: 2017.10.10.)에 의하면 동묘 벼룩시장은 1980년대부터 상인들이 모여 상권이 형성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1983년 6월 장한평에 고미술품 상가가 조성되면서 많은 점포가 장한평으로 이주하자, 동묘 시장 자리에 중고품 상인들이 남아 중고품 만물상으로 인해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는 황학동 점포상인들에 관한 내용으로 노점상인들에 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동묘 벼룩시장과 황학동 벼룩시장의 명칭 혼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쓰레기 적환장이 돼버린 동묘의정문앞...」, 『경향신문』(1983.03.19.); 「무의탁 노인 음식대접」, 『매일경제』(1993.12.07)

3. 2000년대 - 2010년대



[그림 3-5] 2000년대-2010년대 청계천 개발 및 주요 노점 이주·형성 경로

청계천 일대는 2003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진행된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겪는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청계고가도로의 구조물과 복개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진행과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공약으로 채택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시기로 2001년 9월부터 2002년 6월까지의 ‘형성기’와 이어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청계천복원사업시민위원회’의 복원사업 추진 체계를 형성하는 등 ‘준비기’,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공사진행 기간’으로 구분된다.(홍성태, 2004) 그 과정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울시와 노점상간의 갈등이 일어났으며 노점상인이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건에서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⁴⁶⁾ 반면 서울시는 청계천 점포상인을 대상으로 ‘문정지역 종합 개발 구상안’을 토대로 이곳으로의 점포 이전을 계획하면서 점포상인들과 서울시와의 관계에서는 커다

46) 2002년 8월 22일 청계3가에서 공구노점을 하던 60세의 노점상 주인이 분신자살을 기도하여 사망한 사건(『한겨레』, 2002. 08. 26)

란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노점은 불법적 공간이기에 서울시에서 노점을 대상으로 별도의 이전 보상 계획을 수립하진 않았으며, 청계천 일대는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 설정되었다. 당시 광교에서부터 청계천 8가까지 분포한 서울시 추정 약3천여 명의 청계천 노점상에 대한 강제 철거가 강행되자 노점상들은 이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으나,⁴⁷⁾ 자진철거 혹은 강제철거를 당하였다. 하지만 노점상들은 노점 영업권을 보장해 줄 것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이에 노점상들은 크게 동대문 운동장, 동묘 벼룩시장, 성동공고 근처 등 세 지역으로 집단 이주하게 되었다.

한편 노점상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장소는 동대문운동장으로 약 900여명의 노점상들이 동대문운동장의 트랙을 따라 노점 시장을 형성하였다. 동대문 운동장은 2003년 3월 1일부로 폐쇄되어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2003년 11월 30일에 약 350여명의 노점상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2003년 12월 500여명의 노점상인들이 추가로 입주 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노점상인들이 유입되어 약 900여명 이상의 노점상들이 동대문 운동장 일부에서 상권을 이루어 ‘동대문풍물벼룩시장’이라는 명칭으로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청계천 복원사업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동대문 운동장에 자리잡은 풍물시장을 세계적인 명소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내걸지만, 2006년 9월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발표하면서 노점들은 다시 한번 철거 상항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2007년 8월 22일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자치위원회와의 합의로 동대문운동장 풍물벼룩시장 내 894개의 노점을 철거하고 동대문구

47) 청계천복원공사로 인한 노점상 강제퇴거에 맞서 노점상들이 대규모로 시위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① 2003년 5월 2일 1천여 명의 노점상이 청계 9가에서 ‘청계천 노점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개최하였다.(최인기, 2011, 『도시와 빈곤』)

② 2003년 11월 29일 청계7가와 8가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던 1500여명의 노점상들과 서울시의 물리적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2003년 11월 30일 오전 7시경, 공무원 및 용역업체를 포함한 인력 3500여명과 작업차량 400여대를 투입해 노점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이날 청계2가에서 9가까지 540여개에 이르는 노점을 철거하였으며, 철거에 협조한 250여개의 노점은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주 할 계획이라 밝혔다. (「서울 청계천 노점상 강제철거...노점상들 불지르며 저항」, 『동아일보』 2003. 11. 30)

송인동 옛 송인여중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신설동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하기로 밝혔다. 결국 동대문 운동장 공간을 점유하던 노점은 다시 한번 이주를 해야 했으며, 850여명의 노점상이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하였고, 120여명은 한양공고 뒤편으로, 70여명은 훈련원공원 주변과 옛 전매청 자리 주변으로 이주하게 되었다.⁴⁸⁾ 하지만 2009년 한양 공고 뒤편에 자리 잡은 노점들은 서울시에 의해 철거되었으며, 훈련원공원의 노점의 경우 인근 통과 인구가 적어 장사가 되지 않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폐업을 하기에 이른다.⁴⁹⁾ 한편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노점 이주 공간 중 하나였던 성동공고 뒤편에 자리 잡았던 청계천 노점들은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 단속 대상이 되었으며, 2015년 8월 12일 200여명의 단속반에 의하여 강제 철거되었다.⁵⁰⁾

2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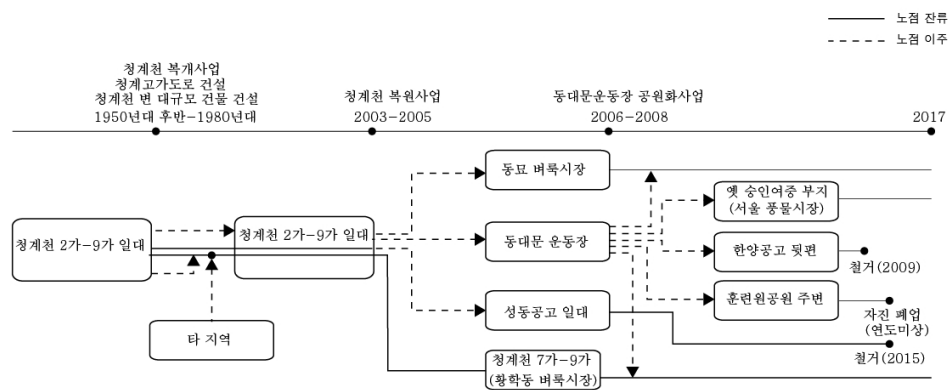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온 청계천 일대의 도시공간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노점 공간의 해체 및 이주를 유발시켜 노점 공간의 상실로 이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노점 이주는 새로운 도시공간을 점유하며 노점 밀집공간을 형성시키는 동인으로 작동하면서 노점은 도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장소를 달리하며 상업행위를 지속하였다. 과거 1950·60년대 청계 2-9가에 걸쳐 분포했던 노점은 현재 대부분 철거되거나 정비된 상태이며, 청계 9가 인근을 중심으로 분포해있다. 즉, 세종로와 가까운 청계천 중심부의 개발에 밀려 비교적 개발수요가 적은 신설동 인근까지 밀려난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동묘 벼룩시장과 황학동 벼룩시장이 있으며, 황학동 벼룩시장 역시 노점 단속으로 인하

48) 「청계천에 풍물벼룩시장 만든다」, 『매일경제』(2007. 08. 21); 「청계천서 쫓겨나 동대문서 길 잃다」, 『주간경향』(2009. 10. 29)

49) 「한쪽선 철거하고, 또 한쪽선 생기고... ‘노점의 아이러니」, 『헤럴드경제』(2015. 05. 27)

50) 「노점상 단체, 중구청 ‘기습 철거’ 규탄 집회」, 『뉴스』(2013. 07. 02); 「서울 성동공고 청계천변 불법노점 58곳 정비」, 『연합뉴스』(2014. 08. 27); 「서울중구청, 노점 20곳 강제 철거...쑥대밭 된 ‘삶의 터전」, 『민중의 소리』(2015. 08. 12)

여 다수의 노점이 철거된 상태이다. 그 과정에서 노점은 보상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노점상들은 정부와 협상과 시위를 통해 대응하였다. 그 결과 임시적 노점 허가지역 혹은 그 외의 도시공간으로 유도되거나 자발적으로 철거하여 이주하는 등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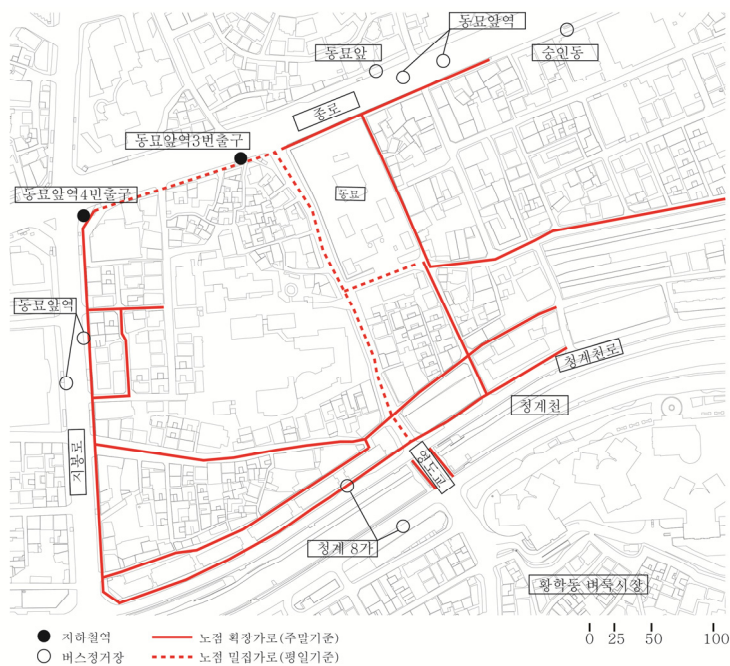
[그림 3-6] 1950년대 후반-2010년대의 노점 이주 및 형성 과정

제4장 동묘 벼룩시장 노점 분석

1절 동묘벼룩시장 개요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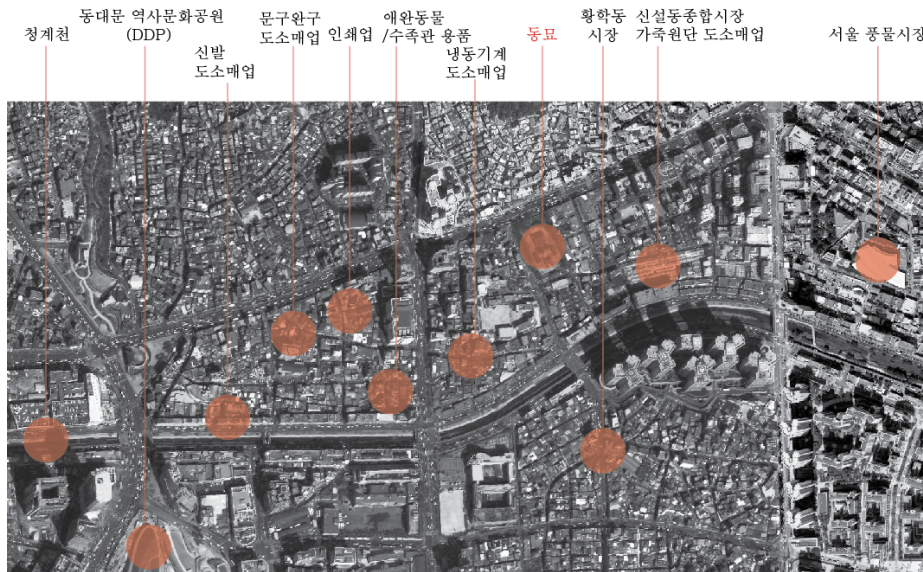
‘동묘 벼룩시장’은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시장으로 보물 제142호로 지정되어 있는 동묘 역사공원에 인접해 있다. 높이 약 2m의 담자으로 둘러싸인 동묘공원에 인접한 노점상들이 동묘 벼룩시장의 주요 구성원이다. 동묘 벼룩시장 형성 초기에는 동묘앞역 3번출구에서 30m가량 떨어진 동묘의 담벼락을 중심으로 분포했으나, 현재 그 규모가 확장되어 동묘앞역 3번·4번·5번 출구에 직접 면하여 노점이 이어진다. 또한 27개의 버스노선이 통과하는 버스정거장이 동묘 벼룩시장 인근에 분포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높은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⁵¹⁾



[그림 4-1] 동묘 벼룩시장 인근 교통 현황

2. 동묘 벼룩시장 인근 상권 및 관광 현황

동묘 벼룩시장은 황학동 벼룩시장, 서울 품물시장 등 중고품을 다루는 유사한 성격의 상권과 한 대 분포되어 있다.⁵²⁾ 동묘벼룩시장 인근의 집적산업은 주로 가죽 및 원단 도소매업, 냉동기계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냉동기계업 및 가죽 및 원단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감소와 중국 저가 제품의 유입,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의 요인에 의해 기존 산업 망이 이탈하고 있으며, 그 공간을 중고 의류 상권이 대체하고 있다.⁵³⁾ 지봉로 건너의 창신동에는 신발 도소매업, 문구완구 도소매업, 애완동물 도소매업, 숙박업, 인장 및 인쇄업 등이 발달되어 있다. 또한 인근 관광지로는 청계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문구완구 도소매업, 인쇄업, 애완동물/수족관 용품 냉동기계 도소매업, 동묘 시장, 황학동 신설동종합시장 가죽원단 도소매업, 서울 품물시장



[그림 4-2] 동묘 벼룩시장 인근 상권 및 관광지

51) 동묘 벼룩시장 주변을 통과하는 해당 버스정거장 명(도로명)과 버스노선은 다음과 같다. 1) 동묘앞역 정거장 버스노선(종로): 간선 101, 103, 105, 144, 152, 201, 260, 261, 262, 270, 271, 420, 720, N13, N15, N26, 지선 2233, 공항6002. 2) 동묘앞 정거장 버스노선(종로): 지선 1014. 3) 송인동 정거장 버스노선(종로): 간선 370, 721, N30, 지선2112, 광역9403, 일반 111. 4) 동묘앞역 정거장 버스노선(지봉로): 간선 142. 5) 청계 8가 정거장 버스노선(지봉로): 간선 173

2절 동묘 벼룩시장 형성과정

1. 1960년대 이전 동묘인근 시장에 관한 기록

동묘 인근에 노점이 밀집된 배경에는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진행된 청계천 복원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하지만 1936년 3월 21일 동아일보 조간 1면에 실린 신문 보도에 의하면 “왕비께 진공(進貢)하려고 일부러 동묘(東廟) 옆에 나물장을 버리고 철쫓아 채소를 진공하니 이로 연유하여 여기 채소시장이 생겨서 오십년전 까지도 여기는 여인의 나물장으로 유명”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일찍이 동묘 인근에 노점이 밀집해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가리키는 왕비는 단종의 정비인 정순왕후 송씨(定順王后 宋氏, 1440년~1521년 7월 7일)로 남편 단종이 강등되면서 궁궐에서 쫓겨나 생계가 곤란해지자 송씨의 시녀들이 거리에서 채소를 팔아 정순왕후를 도운 것에서 유래된다. 이에 노점을 하는 여인들이 점차 증가하여 여인시장 혹은 장거리(場巨里)라고도 일컬어졌다.⁵⁵⁾ ‘여인시장’의 정확한 형성시점과 존속기간에 대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나, 위의 신문보도 글을 통해 1880년대 후반까지 동묘 인근에 노점 시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이전, 동묘 인근에 시장이 있었다는 또 다른 기록은 1922년 9월 27일 동아일보 기사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당시 경성부 위생계는 “새로 경영하는 가축시장을 동대문 밖 동묘 옆에 약 칠천평의 토지를 이만구천원에 사들이기로 결정되고 시장을 개시하기는 십일월경”으로 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⁵⁶⁾ 이와 같이 조선시대 및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동묘 인근에 노점상 혹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있

52) 동묘 벼룩시장과 황학동 벼룩시장, 서울 풍물시장은 비슷한 상권으로 인해 미디어와 소비자를 통해 동일한 상권으로 인식되나, 지리적으로는 각각 청계천, 난계로를 경계로 구분되어 있다.

53) 서울시, 『동묘역 일대 생활형산업 및 벼룩시장 발전방안 연구』, 2006.11. p76

54) ‘전통문화코스’는 서울투어버스여행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도대문역사문화공원)-방산,중부시장-을지로3가-을지로입구(덕수궁, 시청)-통인시장, 청와대-세종문화회관(광화문, 경복궁)-서울역-남대문시장-명동입구-종각역-인사동(운현궁)-종묘,세운전자상가-광장시장-**동묘역**-서울풍물시장-신당동 중앙시장(떡볶이골목)의 경로를 따라 지나다.

55) 「京城洞名點考 (3)」, 『동아일보』, 1936. 03. 21; 『시사상식사전』, 검색일: 2017.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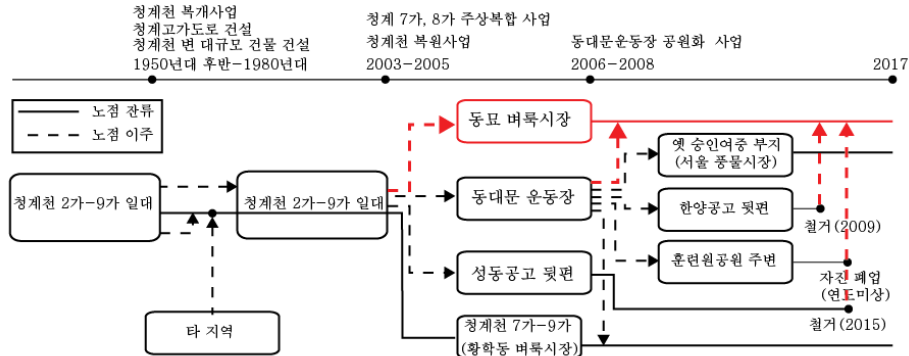
56) 「市街衛生을 妨害하든」, 『동아일보』(1922. 09. 27); 「家畜市場規定」, 『동아일보』(1922. 11. 02)

으나, 현재 동묘 벼룩시장의 원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⁵⁷⁾

2. 1960년대 이후 동묘 벼룩시장 형성과정

동묘 벼룩시장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대를 포함하여 그 이전의 청계천 일대 도시개발과 연관지어 이해된다. 광복 이후 청계천 복개공사를 필두로 1960·70년대의 청계고가도로 건설, 2000년대 초반의 청계천 복원 사업, 청계 7·8가 주상복합 사업, 2000년대 후반의 동대문 운동장 공영화 사업 등으로 인한 노점상의 해체 및 이주 과정의 한 지류로써 동묘 벼룩시장이 형성된 것이다.([그림 4-3] 참조) 특히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진행된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철거된 노점상 중 일부가 동대문운동장 내 벼룩시장으로 이전하였으며, 입주하지 일부 못한 노점상은 동묘 인근으로 이주하였다. 이어 2006년에 동대문 운동장 공영화 사업이 진행되자 동대문운동장 내에 있던 노점이 다시 해체되고 일부는 서울시에서 신설한 서울풍물시장(옛 승인여중 터)으로, 일부는 동묘 벼룩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동묘 벼룩시장은 확대되기 시작한다. 또한 서울풍물시장의 경우 동묘 벼룩시장과 비교하여 낮은 접근성과 좁은 상업공간으로 인해 상업 활성화가 저조하자 서울풍물시장에 입주한 노점상인들의 일부는 동묘 벼룩시장으로 유입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 1절 ‘시기별 청계천변 노점의 이주 및 정착과정’을 통해 기술하였다.

57) 시사상식사전(terms.naver.com, 검색어: 동묘 벼룩시장) 등 일부 동묘 벼룩시장을 소개하는 글에서는 동묘 벼룩시장의 연원을 조선시대에 형성된 ‘여인시장’에서 찾는다.



[그림 4-3] 동묘벼룩시장 형성과정

3. 기타 요인

동묘 벼룩시장이 형성된 주된 요인은 2003년, 2006년에 각각 진행된 청계천 복원사업과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의해 철거된 노점이 동묘 인근에 정착한데에 찾을 수 있다. 한편 대규모 도시개발 외에도 동묘 인근으로 노점이 유입된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침체로 인한 노점 및 방문객 증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미취업자 및 실업자가 노점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노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에 황학동, 동묘 일대 청계고가도로 양쪽 도로변에 분포한 노점이 확대되면서 일부 동묘 인근으로 노점이 유입된다.⁵⁸⁾

또한 저성장 등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침체로 인하여 중고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대중들은 저렴한 가격의 중고품을 소비하는 동시에 경제상황이 비교적 양호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에 따라 복고 혹은 중고 물건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다.(천혜정 외 2015 ; 김창남 2009) 즉, 동묘 벼룩시장에서 취급하는

58) 서울시, 『동묘역 일대 생활형산업 및 벼룩시장 발전방안 연구』, 2006.11. p68

중고품은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와 과거의 향수를 지니고 있는 복고풍 및 회소적 가치를 지닌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소비자의 수요와 부합하며 동묘 벼룩시장만의 고유한 시장성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 지하철역 개통으로 인한 역세권 발달

지하철 동묘앞역의 개통의 영향을 들 수 있다. 2000년 12월 15일, 2005년 12월 21일에 각각 지하철 6호선과 1호선이 개통된다. 그에 따라 유동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동묘 주변으로 골목길 등 단속을 피해 노점상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인 이면도로가 기존에 형성되어 있어, 동묘 인근으로 노점이 유입된다.⁵⁹⁾

4. 동묘 벼룩시장 노점상인 심층 인터뷰

앞서 동묘벼룩시장의 형성과정을 신문 보도자료, 논문, 연구 보고서 등 문헌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문헌자료에 드러나지 않은 동묘 벼룩시장의 형성 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동묘 벼룩시장 인근 노점상인 2인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면접자의 동의하에 녹취되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 발췌하여 본문에 구술 기록하였다.

■ 소○○

· 인터뷰 일자 : 2017년 11월 29일

· 구술 기록

제가 청계천에서 노점 장사를 한 것은 86년. 청계천 8가. 옛날에는 삼일아파트라고 양쪽에 쪽 있었어요. 서울에서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고, 그 무렵에 삼일아파트를 지었죠. 16동 (삼일)아파트 (앞)에서 장사를 했죠. 신발을 팔았습니다. 2005년도 청계천 복원공사가 끝날 때 까지 있었습니다. 철거하니깐 자동적으로 못했죠. 철거하고 나서는 예전에 (동대문) 축구장, 야구장으로. 그 때 당시 서울시에서 임시로 장사를 하게

59) 2017년 11월 23일에 진행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수석부위원장 최인기와의 인터뷰 내용에 근거함

했어요. 복원공사 마무리 할 때 까지 2년 동안 장사 했어요. 전부 청계천 2가부터 9가까지 천여 명이 (동대문 운동장에서).

저희들이 86년도에 장사를 하다 보니깐 그 때 당시 아시아 게임이 있었죠. 88올림픽. 올림픽 때문에 서울시에서 환경미화 같은 걸로 대대적인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 노점상 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는 노점상 연합회가 단일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분열돼서 전국노점상연합회와 민주노점상연합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분열됐다가 통합하고 하는 과정이 지금에도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에서 2년 (노점상)하다가 축구장 자리가 DDP공사를 해야 하니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신설동에 있는 풍물시장으로. 거기서 장사를 한 1년 가까이 하다가. 그 때도 신발 팔았습니다. 전혀 장사가 안 되고 외지고, 너무 비좁고 해서 1년 가까이 장사를 하다가 치웠습니다. 지금은 장사를 안 하고 있고.

(동대문)축구장으로 가기 전까지 동묘 쪽에는 장사꾼들이 그냥 상가 위주로 있었지, 벼룩시장 개념이 없었습니다. ...(중략)...예전에 황학동, 건너편에 집중적으로 있었어요. 동묘 쪽에는 없었는데, 신설동 풍물시장으로 가니깐 여기서 풍물시장으로 찾아가다보면 여기(동묘인근)가 자연스럽게 동묘 시장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중략)...구제. 그런 황학시장에 있던 것들이 동묘 시장으로 그대로 왔습니다. 지금 동묘시장이 예전에는 황학동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칠팔십 프로가 구제. 중국산.

황학동 시장은 삼일아파트를 다 헐고, 이제 저희들을 장지동 가든파이프, 청계천 상인들 전체를 해서 이주시키는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노점상들은 축구장으로. 원래 노점상들도 가든파이프 주변으로 갈 구상이 있었는데, 노점상들이 당장 지어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깐. 서울시에서 급한 대로 축구장에서 장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황학동, 동묘 벼룩시장이 동묘 상가라고도 하고, 벼룩시장이라는 명칭도 있었고, 도깨비 시장, 개미 시장, 이름이 몇 가지 있었어요. 만물시장.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있었어요. 전자제품 중고도 엄청 많았습니다. 아무리 고장 나도 고쳐서 여기서 새것으로 팔았습니다.

(노점)자리 같은 것은 86년도 장사를 나왔을 때는 이 쪽(황학동)이 허허벌판이었습니

다. 간단하게 인도. 그래서 누구고 먼저 나와서 손수레를 가지고 나와서 장사를 하면 그 사람 자리가 되는 거죠. 황학동 그 쪽 주변에서는 제가 노점상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3가에서부터 9가까지, 마장동까지 노점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청계고가도로 양쪽 도로변으로 노점상이 죽 이어졌습니다. 세운상가나 5가정도 까지는 부분적으로 있었고, 동대문부터 9가까지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축구장 야구장 (바깥) 주변에도 일이백 명이 있었고, 그분들도 축구장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일부 팔십 명에서 백여 명만 거부하고 안 들어갔습니다. 그 때 대안으로 그 사람들을 훈련원 주변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훈련원 주변에) 장사가 전혀 안 돼요. (노점) 하나도 없어요. 백여 명 남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해야겠다(고) 황학동 이 쪽으로 와서 한두 달 싸움을 하고 했는데, (결국) 훈련원 주변으로 갔습니다. 서울 풍물시장으로 안 들어간 이유가 무조건 장사가 안 되니깐. 외지고. 비좁고. 도태되니깐. 그 사람들은 아예 거부 한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동대문에서 내려서 풍물시장을 찾아 오려고 물으면 다섯 번은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깐 장사가 돼요?

80년도에는 (노점)단속을 구청에서하고, 경찰하고 했어요. 같이. 그 때 당시 파출소에 방법대원이 있어서 경찰들이 시키니깐 방법대원들이 집중적으로 했죠. 모자를 쓰고 호투라기를 붙고 치우라고 하면 치우고. 안치우면 구청에 신고하죠. 그러면 구청에서 용역들을 시켜서 젊은 애들. 폭력배죠. 이삼십 명이 와서 치웠죠. 전부 다 치우지 않고 몇몇만 치웠죠. 장사를 하면서 중구청 쪽으로 쳐다보면서 장사를 했어요. 단속 오면 치워야 하니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어요. 파출소에서 개네(경찰)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은 (노점)다섯 명 딱지를 떼어라. 내일은 여섯 명 떼고. 스티커. 어떤 때는 직결(재판)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직결에서 벌금을 때리면 내고 나오고. ... (중략)... 직결은 보통 (재판 후에)집에 갔다가 네 시 정도면 파출소를(로) 와야 돼. 직결차가 아침에 나와서 (손수레를)씩 신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직결 하면 벌금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못 내는 사람은 하루 이틀 (구치소에)있다가 나오고 했어요.

예전에는 서울시에 손수레 보관소가 많았어요. 지금 주차장이예요. 거기에다가 손수레를 보관하고 하루에 얼마, 한 달에 얼마 했어요. 장사가 끝나면 거기다가 놓고 그랬어요. 아침이 되면 일이백 명 노점상들이 죽 리어카를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 노점상들이 자기 (노점)자리에 딱 갖다 놓습니다. 자리가 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리가 딱 있어요. 이 쪽(옆 노점상 자리)으로 뺐지도 않고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가요.

그 때 당시 방법대원들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방법대원들이) 호루라기를 불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고 있으며 어린애들이 호루라기를 불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는 단속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이리저리 쳐다보고 그래요. 단속 나와서 치우면 다시 피했다가 차리고. 그 중 몇 개는 뺏기고. 찾으려고 구청으로 찾으러 갑니다. 당시 중구청 단속반 보관소는 남산 2호 터널 바로 나가면 (보이는) 거기에 갖다 뺐어요. 오늘 뺏겼는데 내일 찾으러 가면 용역들이 다 떼려 부서서 없어요. 그럼 비품은 있을 거 아닙니까? 비품은 구석에 처박혀 있어. 그러면 그걸 찾아와요. 리어카를 부수는 건 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린 대응을 하지 못하고 리어카를 사서 또 (장사하러) 나와요. 그 때 왜 떼려 부수냐 물어보면. 불법이고, 도로교통법에 걸려서 그런다고 해요. 당시 포장마차는 오십 만원 돈 했어요. 리어카에 몇 배는 됐어요. 그러면 그걸 또 떼려 부서요. 그러면 당시 돈 없는 사람들은 급하니까 일수를 받아서 또 리어카를 싸요. 86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직을 했어요. 우린 일반 사람이니까. 구청에서 빼앗기면 당연히 항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서 인권변호사를 찾아서 항의하고. 예전에는 대모도 도로에서 못했잖아요. 80년도. 대학 안에서 하고. 도로에서 (시위) 허가도 안내주고, 다 잡아가니까 못하고. 그래서 대학교 안에서 (시위)했어요. 공권력이 못 들어오니깐. 그리고 명동. 명동 성당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때 당시 김수환 추기경.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입장을 하소연 하고, (추기경이) 구청에 전화를 걸어주고. 추기경 그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을) 단속을 해서 못 먹고 산다고 (전화해줬어요). 그리고 인권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어느 야당,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곳(야당)에 가서 하소연 하라고 알려줘요. 당시 DJ. 그때 전국 노점상을 백만 명으로 봤는데, 서울에 대부분 있었죠. 그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이 아니고 전부 호남 사람이다 보니까, 당시 김대중씨. 평민당. 자유연합당도 가고. 김영삼 통일민주당도 가고. 항의하러 가요. 그 때 당시 김대중 씨, 김영삼 씨가 우리 입장을 대변해주고. 구청에도 전화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손수레가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걸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걸 빼앗아가서 사유재산이라는 손수레를 부수느냐. 그걸 인권변호사들이 법적대원을 해주고. 조직원을 만들다 보니까 서울 중심으로 했죠. 단속 받는 노점상들이 단체로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들. 초창기 (도시 노점상 연합회)지도부들이 항의

를 하죠. 도로교통법(을) 위반 한거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처벌해라. 왜 손수레를 뺏느냐. 만약 자동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면 자동차도 부셔야지. 왜 손수레만 부수냐. 당시 자동차를 뺏긴 사람은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하지만 손수레를 뺏긴 사람은 다시 사는 형편이 안됐어. 일반 회원들은 항의를 하면 더 단속이 세질까봐 항의를 못해요. 그래서 단체에서 나와서 대신 항의를 해줘요. 그래서 뺏긴 리어카를 도로 찾아와요. 그러면 일반 회원들이 힘이나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조직이. 서울의 조직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서울시에서 지금 노점상이 해마다 감축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점상 완화라 해서 실명제를 해가지고, 노점상이 있는 각 구별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해서 실명제를 해요. (노점상)파악을 한다 해요. 자기 신상을 다 (조사)합니다. 신상을 (파악)해서 기록이 되면 이 사람은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재산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파악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제재를 하는 거예요. 노점상들을 제재할 적에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시킵니다. (현재) 약 팔, 구십 프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황학동 시장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발을 못 디딜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에 밀려서 이동 할 정도로. 80년도 이후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 노동자, 작업복 같은걸 사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헌옷을 몰려 입었던 것처럼, 80년대 우리나라 헌옷이 외국 사람들에게 훌륭한 옷이죠. 지금도 동묘 헌옷 파는 데에 사람들이 와서 사다가 해외에 팔기도 해요. 품질 좋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팔고, 질이 떨어지는 것은 도매로 다가 방글라데시나 동남아시아에 수출도 하고 그래요.

헌옷 같은 경우 강남에 우성아파트가 있다 하면, 분리수거 하는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거를 (주민들이) 버리면 경비분들이 따로 (보관)해놔요. 그러면 (노점)장사꾼들이 가면 얼마씩 주고 파는 거예요. 쓰레기로 가는 거, 쓸만한 거 (보관)해놓으면 (노점상에게) 얼마씩 팔고 그래요. 그리고 동네에 다니다 보면 헌옷 수거한다고 통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우체통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집어넣으면 그게 고물상으로 가요. 그러면 장사꾼들이 고물상으로 가서 헌 옷이면 헌옷, 헌 신발이면 헌 신발, 골동품 같은거를 따로 (보관)해놓으면 (노점)장사꾼들이 사곤 해요.

창고 같은 것들도 있죠. 물건 같은 것들은 창고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팔고 그래요. 돈을 좀 번 노점상인들은 동묘 인근에 창고를 하나 구해서 장사를 해요. 보따리 장수 같은 경우는 그날 팔 물건을 갖고 와서 팔아버리고 가요. 그러니깐 저녁에는 싸게 팔아 버려요.

또 요즘에는 코미디. 이런 사람들이 소재로 쓰려고 동묘로 많이 와요. 예전에는 노인분들이 많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절반은 돼요.

예전에는 (동묘에) 공구상, 헌책방이 많았어요. 헌책방. 공부하는 학생들, 교수들이 여기부터 청계천 5,6가 까지 중고 책방이 많았어요. 비싸니깐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전 같은 거를 사려고 많이 왔어요. 그리고 황학동 일대에는 골동품이 집중적으로 많았어요. 90년대로 넘어가면서 비디오 테이프가 집중적으로 많았어요. ...(중략)...예전에는 골동품 같은 것들을 싸게 팔았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물건들을 알아봐요. 그럼 백만 원짜리인데 만원에 사버려요. ...(중략)...카메라나 이런 것들, 고장난 것도 전문가들이 사서 고쳐서 팔면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황학동)으로 해서 야바우꾼. 청계천에 야바우꾼들이 집중적으로 있었어요. 옛날에는 연탄을 땃잖아요. 다 탄 연탄을 갖다놓고 야바우루 쳐요. 그럼 다 탄 십구금탄에 불이 붙는다고 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불이 붙는다니깐 구경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면 물건을 팔고 그래요. 그리고 뽕 장사들이 집중적으로 있었는데, 뽕 장사들이 가게에 뽕을 맡겨 놓고 가요. 그러면 뽕이 여기 구 층짜리 (삼일)아파트 있었을 때, 뽕이 아파트를 타고 올라가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어요.

점포 사람들하고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황학동)에 집중적으로 책장사, 비디오 테이프, 보일러 가게. 공구상들이 집중적으로 있었어요. 인도에 나와서 저희들이 장사를 하면 그 분들이 맨 처음에 그런 관계를 안했는데, (노점)장사꾼들이 많이 들어오고 활성화되니깐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노점이 많아지니깐 (점포)장사도 잘돼요. 그러다 보니깐 앞에 노점상 하던 사람을 자기들(점포상)이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리를 챙기려고. 구청에서 단속을 하면. 가게에서 단속이 들어와서 했다 하면 어느 집에서 단속을 했다고 말 안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항의를 하고 그래요. ...(중략)... 어떤 때는 리어카를 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자기 가게 앞으로 해다가 물건을 산더미 같이 쌓아놔요. 가게 주인이니깐 치울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들(점포상)은 계획적으로 저녁까지 안 치워 놓고 놔둬요. 그러면 우리가 항의를 하고 싸움

을 해요. 회원들을 데려다가 물건을 차도로 내려놔요. 그러면 청계천 저 까지 차가 밀려요. 그러면 구청에서 또 난리가 나요. 그러면 경찰들이나 구청 사람들이 와서 가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그러면 이튿날이나 (점포상에서 도로에) 짐을 안 놓고 하죠. 노점상들이 장사가 잘 되니깐, 가게들도 자리를 맡아놓거나 아는 사람한테 (자리를) 연결 시켜주고 그래요. ...(중략)... (점포 앞) 자리에다가 세를 놓아요. 노점상은 불법인데, 자리에 세를 놓고 받으면 안 된다고 (점포상에게) 항의를 또 하죠. 몇 년 동안 장사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장사를 안 해요. 물어보니깐 가게 주인이 몇 년 동안 (노점)가게 세를 받아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점단체가) 가게 주인을 찾아가서 갈취를 한 거라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항의를 해요. 그러면 가게 주인들이 깜짝 놀라서, 장사하던 사람이 도로 와서 장사하라고 해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하는데, 그 때는 인도가 다 넓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장이 없어. ...(후략)

■ 양○○

· 인터뷰 일자 : 2017년 11월 28일

· 구술 기록

88년부터 저 건너(황학동)에서 장사해가지고, 저 건너(황학동)가 장사가 잘됐어요. (삼일 아파트) 20동 앞에서 장사를 했는데, 여기(동묘)는 장사가 잘 안 되서 상인들끼리 시베리아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이쪽(동묘)으로 오지도 않고 저 쪽(황학동)으로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2003년 때 동대문 축구장, 풍물시장으로 이사를 갔어. 한 천 명 정도.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여기 풍물시장(서울 풍물시장)으로 갔는데, 내가 거기 반대해가지고 조명탑에, 한 15m 조명탑에 올라가서. 이십일인가 반대를 했지. 농성을 하고. 그 때, 초봄에 거기서 데모를 했는데. 한 천 명 정도가 거기로(서울 풍물시장) 간다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싸우지 않으려고 하니깐. 그리고 우리가 약 백여 명 정도가 거기(서울 풍물시장)로 안가고 농성을 하고 안가고 했어요. 그러다가 절대 다수가 그 쪽(서울 풍물시장)으로 간다고 하니깐 (합의)하기로 했지. 당시 2003년, 4년도에 (동대문) 풍물시장 천 명 정도의 대표를 맡아서 했었는데, 몇 개월 있다가 조직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서울) 풍물시장이 세워졌는데,

그러다가 여기(동묘)가 장사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풍물 시장이 안 돼버렸어요. 장사가.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서울 풍물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칠십프로 팔십프로 많이 바뀌었어. 안 된다 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중략)...2011년인가 12년인가 여기저기서 장사하다가 안 돼서 여기서(동묘) 장사를 했어요. 지금도 거기(서울 풍물시장 자리)를 못 받았어요.

내가 2004년도에 노숙인 들을 (삼일)아파트에 (점거)해다가 관리를 했어요. 무료 급식소를 3년간 했는데, 아파트를 점거 해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지. 여기서 노숙인 20개 정도 자리를 잡게 해줬지. 그러다가 여기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니깐 장사가 그런대로 되더라고. 서울 풍물시장은 장사가 안됐는데 여기는 잘되는 거야. 동묘 시장이 뜬 거야.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야. 저쪽에는 창신동. 여기는 송인동인데.

그러다가 여기(에) 정착해서 신발만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3년, 4년? 그러다가 자전거를 했는데 잘되더라고. 장사꾼이면 뭐 따지겠어. 돈이 되면 되는 거지. 하여간 여기저기서 장사 하다가, 또 비싼 깔 세라고 있어. 빈 가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여기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 시작 했지.

여기는 7층을 2003년도에 빼가지고, 우리가 점거해가지고 3년인가 4년인가 있다가 7층을 2층까지 잘랐어요. 삼일 아파트가 7층이었잖아. 2층까지 남겨놓고 잘랐어. 그래가지고 점거하고 있다가 그 때 장사를 몇 사람 시켰거든. 노숙인들을.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 그 때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다 포장마차를 해서 무료 급식소를 했거든. 그 때는 잘 안 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가 딱 (노점)이형성 돼버리니깐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중략)...여기 영도교도 장사가 잘 되니깐 한 30여명 (노점)해가지고 구청하고 해서 장사 하고. 합의가 아니고, 노점상들이 살기 힘들니깐 그냥 먹고 살게 하는 거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싸우고. 시위하고. 노숙인들을 해다가 여기 장사를 하면서 자리를 잡게 된 거야.

동묘 저 쪽(동묘 담장 주변)에는 의류(노점)가 많지만, 여기(지봉로 2길)는 골동품이 있고, 중국산이니 뭐니 많아. 쪽.

그 때 황학동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넘어 왔지. 또 서울풍물시장도 장사가 안 되니깐 여기로 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상인)도 많이 바뀌고. 아니면 거기서 버티는 사람도 하고. 또 거기는 바가지도 씌우고. 골동품이 아니라 공산품같은거라서. 그래도 간석이라는게 있잖아. 계속 해놓으면 먹고 살고 있기는 하니깐. 자리 버티고 있으면 또 먹고 살고. 이 근방에 했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 거의 그런 사람들이야.

요 조금 보따리 하나도 장사(자리)가 있어. 다 임자가 있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대로. 여기도 지금 시유지야. 지금 내가 그러니깐 시유지를 점거해서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도로는 아니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애매한 거지 사실은. 도로 같이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파는 물건은 인터넷에서 하기도 하고, 아는 사람한테 얻어 오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하다 하면 연결이 많이 돼. 그 사람들이 싸게 하는 방법. 밀어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정리해서 싸게 헐값으로 할 수 없이 내놓는 경우. 부도나고 그런 경우가 많아.

여기는 보통 오전 여덟, 아홉시부터 시작해. 여덟시부터 나오기도 하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홉시 정도에 나와서 하고, 보통 여섯시 정도면 다 끝나. 여름은 일곱시. 겨울은 다섯시. 추우니깐. 그 때 끝나면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 다른데 큰 사무실이나 주거지가 있으면 오고 가면서 하는데, 여기는 그때 거의 끝나. 일 끝나면 물건을 놓고 천막을 치고, 또 여기에 창고가 있으니깐 비싼 것은 창고에 넣고. 크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창고가 있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차로 싣고 와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보따리로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단속은 신규나 이런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거야. 상생한다 하면 없는 놈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 먹고 사는 거야 말로 천부의 권리이다. 그런데 그 실적 받으려고, 도로교통법 가지고 단속하면 되겠느냐. 크게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건데 단속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 하고 있어요.

여기 한 노점이 이천 명 된다더만. 짹 깔려있는 보따리 까지 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많진 않았지.

20년 전에는 책방 밖에 없었어. 골동품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생기더라고. 내가 책방 할 때 한 오십 명을 모여가지고 사무실 내가지고 노점상을 조직하고 그랬었어. 문익현 목사랑 같이. 예보도 보고 그랬지. 단식도 같이 하고.

황학동 노점은 거의 철거가 됐지. 이쪽으로 많이 건너와 버렸어. 송인동, 창신동 이쪽에만 남았지. 그래서 이쪽에 형성이 돼서 세계적인 벼룩시장이 된 거지 이제. 거의 자리가 잡혀 가서 새로운 노점상이 들어올 일이 없지. 초기에는 서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자리가 잡혀있는거 같애.

그전에도 건너편에도 노점을 단속해 버리니깐 장사가 점포 장사가 잘 안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노점의 재래의식 같은 게 필요해요. 깨끗하게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지.

간단하게 저기에서 엄청나게 그 구청이 와서 여기 점거할 때도 노숙인들한테 전부 아파트를 나눠줬잖아. 공짜로. 나중에 구청하고 합의해서 쌀도 주고, 물도 주고, 전기도 주고. 엄청나게 싸웠어. 그래서 없다는 사람들이 생존권 때문에 함부로 단속을 못하는 거야. 단속을 하기도 하지만은.

여기 (동묘) 상인회, 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큰 역할은 못하고 그냥 상인 역할만 조금 하더라구. 거기는 노점단석은 아니고. 저기 또 노점단석은 따로 있어요. 동묘 노점 연합회가 있고, 상인 연합회가 있고 그래요. 여기서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와 같이 전 노련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전노련이 갈라졌잖아. 민주노련 쪽으로 우리가 거의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저쪽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여기는 민주노련 쪽에서 하고 있고. 단체마다 달리해서 지역을 관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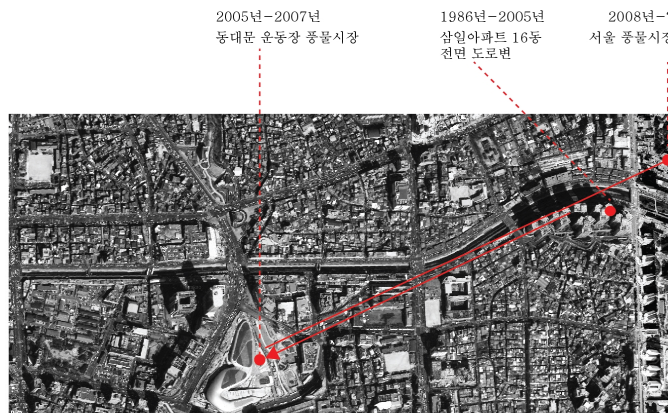
...(중략)...아니 이상한 사람들이 뭘 돈을 내라고 해서 보증금도 못 받고, 보증금만 주는데, 보증금에다가 조금 몇 십만원씩 더 주기도 하고, 이제 장사 권리까지 또 주고. 그렇게 발전해 온 거야. 없는 사람들이 해 와서. 지금 자릿세 같은 거 따로 없어. 저기에 몇 사람들이 자릿세를 챙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린 거부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빈민운동이라고 말 할 수 없는 거지. ...(후략)

■ 인터뷰 내용 분석

① 소○○ 노점상인 인터뷰 분석

· 노점 이주 경로

소○○ 노점상의 노점 이주 경로는 제3장 ‘청계천변 노점의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분석한 2000년대 이후 청계천 복개공사로 인한 노점의 이주 과정과 맥을 같이한다. 소○○ 노점상은 1986년부터 2005년까지 황학동 벼룩시장 인근의 삼일아파트 16동 앞에서 노점상을 하였으며, 청계천 복개공사로 인하여 2005년에 동대문 운동장 풍물시장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2년간 장사를 한 뒤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으로 인하여 2008년에 서울 풍물시장으로 이주하였다. 2008년에 이주한 서울 풍물시장은 비좁고,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상권이 형성되기에 불리한 조건을 지닌다고 말하였다. 이에 자진 철수하여 현재는 노점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림4-4】 소○○ 노점상인 노점 이주 경로

· 노점상 운동을 통한 도시공간점유에 관한 권리 획득

소○○ 노점상은 1986년부터 황학동 벼룩시장 인근 삼일아파트에서 노점을 시작하면서, 노점과 점포의와 갈등 및 상생과정 그리고 노점과 정부와의 갈등 및 합의과정 등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86년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도시미화 목적으로 정부에서 대대적인 노점 단속을 한 사건은

제2장 3절 ‘시기별 노점에 관한 쟁점변화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노점상인들의 대응으로 결성된 ‘도시 노점상 연합’ 을 시작으로 도시공간에서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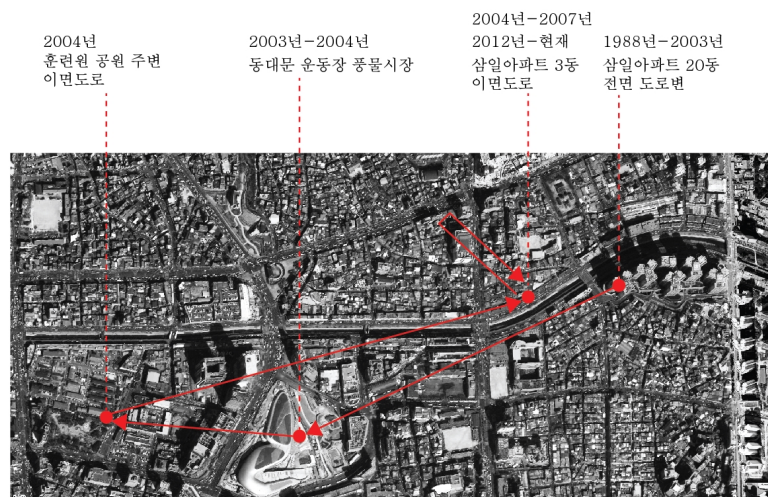
노점상인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도시에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은 김준희(2012)의 ‘노점상 운동의 역사와 주요 쟁점’ 에서 정리되어 있다. 노점상 단체가 형성된 것은 1980년대로 국제행사가 잦았던 1980년대에 노점은 거리 미관상 단속 대상이 되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노점상은 ‘도시노점상복지협의회’ 를 결성하였고,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1987년 명동 성당에서 노점상 대동제를 통해 ‘도시노점상연합회’ 로 전환하면서 조직력과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단속반과 경찰에게 일정 금액을 상납하던 관행이 사라지기도 하였다. 1988년 ‘노점상 생존권 탄압하는 악법 철폐를 위한 대토론회’ 를 개최하고, 도시 빈민의 생계유지 차원에서의 노점상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되자 노점단속 유보라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도시노점상연합회,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 천주교도시민빈민회, 기독교도시빈민회, 빈민 지역의 교회 등으로 구성된 ‘도시빈민투쟁위원회’ 가 건설되자 노점상의 투쟁은 도시빈민운동의 차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조직이 확대되고 ‘도시노점상복지협의회’ 는 ‘도시노점상협의회’ 를 거쳐 1988년 10월 ‘전국노점상연합회’ 로 명칭을 개칭하여, 보다 체계적인 전국 노점상 체계로 개편되었으며, 전국의 노점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또한 1989년 정부의 노점 탄압에 대응하여 명동 성당에서 시위를 하는데, 이를 통해 노점상 문제를 사회·정치적으로 쟁점화 시켰다.

소○○ 노점상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시공간을 점유하는 노점의 물리적 현상 이면에 노점상과 정부 간의 사회적 갈등과 합의 등 사회적 관계가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노점상 단속에 대한 일련의 노점상 투쟁을 통해 도시공간을 점유 할 권리를 일부 획득해 나갔으며, 노점 문제를 사회·정치적으로 공론화 시켰음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양○○ 노점상인 인터뷰 분석

· 노점 이주 경로 및 동묘 벼룩시장 정착과정

양○○ 노점상인은 1988년에 황학동 벼룩시장 인근 삼일아파트 20동 앞에서 노점을 시작하였다. 이후 청계천 복개공사로 인하여 2003년에 동대문 풍물시장으로 이주를 하였다. 이후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서울 풍물시장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에 양○○ 노점상 포함 백여 명의 노점상인들은 서울 풍물시장의 입주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있어 상권이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의 합의로 2004년 훈련원 공원 주변으로 이주하였으나, 장사가 되지 않아 이내 자진 철수 하였다. 철수 이후 이십여 명의 노숙인들과 동묘 벼룩시장 방면 삼일아파트 일부를 점거하였다.⁶⁰⁾ 점거 초기에 노숙인들과 함께 삼일아파트 이면도로에서 노점을 하였으나 장사가 잘 안되어, 포장마차를 설치하여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였다. 이후 이면도로에 노점이 들어서면서 노점 거리가 형성되어 노점상을 재개하였다. 이후 여러 장소에서 노점상을 이어오다 2011년 즈음 동묘 벼룩시장 인근 이면도로에서 노점상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림4-5] 양○○ 노점상인 노점 이주 경로

3절 동묘 벼룩시장 현황 분석

제3장 ‘청계천변 노점의 이주 및 정착과정’ 그리고 제4장 2절 ‘동묘 벼룩시장 형성과정’에서 시계열적 관점으로 동묘 인근에 노점이 이주 및 정착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3절에서는 현재 동묘 벼룩시장에 분포한 노점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함으로써, 연구 범위를 동묘 벼룩시장의 물리적 현황으로 좁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점의 이주 및 정착의 결과로 나타난 동묘 벼룩시장의 노점이 실제 도시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동묘 벼룩시장 노점의 물리적 현황

■ 노점 분포

동묘 벼룩시장에 분포한 노점은 평일과 주말을 경계로 분포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 평일에는 약 80여개의 노점이 종로, 종로58길, 난계로 27길 등 약 450m 길이의 도로에 분포한다.([그림4-6] 참조) 반면 주말의 경우 약 450여개의 노점이 종로, 종로 56길, 종로58길, 난계로 25길, 난계로 27길, 종로60길, 지봉로, 지봉로 4길, 지봉로 2길, 청계천로, 영도교 등 약 2.4km 길이의 도로에 걸쳐 분포하는 등 좁은 골목까지 벼룩시장 영역이 확대된다.([그림4-7]참조)

반면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인 ‘동묘역 일대 생활형 산업 및 벼룩시장 발전방안 연구(2016)’에 따르면 평일에는 116개의 노점, 주말에는 457개의 노점이 동묘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5년에 종로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실시한 ‘동묘 주변 노점정비방안⁶¹⁾’에는 평일 기준 노점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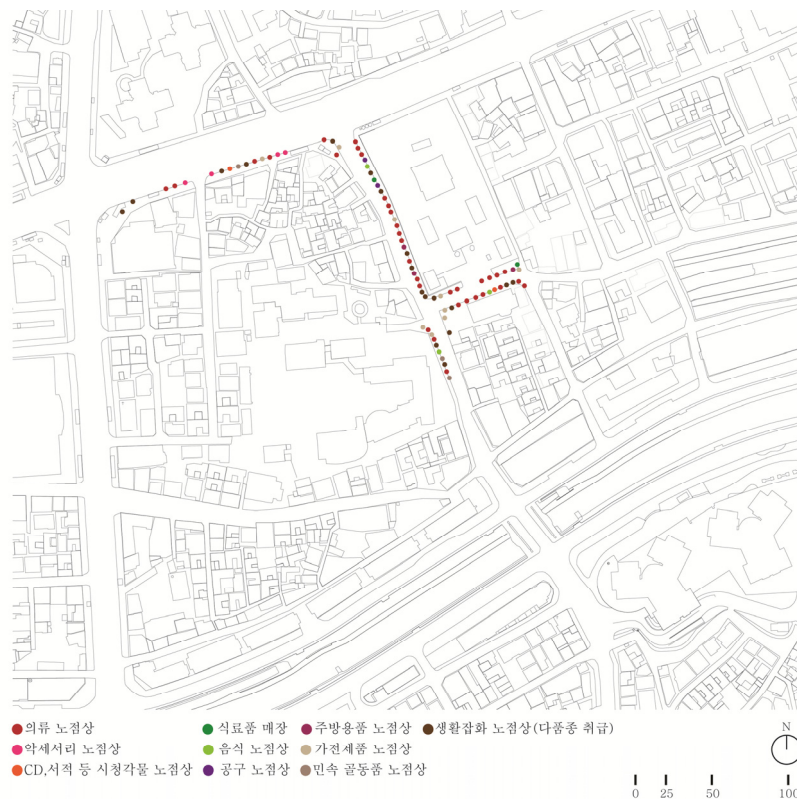
60) 2004년 철거가 계획된 삼일아파트에 노숙인들을 주축으로 삼일아파트를 불법 점거하는 사건이 있었다. (「빼앗긴 삶터 점거하는 예술계릴라들」, 『한겨레』, 2008. 01. 25)

이는 일명 ‘스캇 운동’으로 불리는 것으로 오랫동안 버려진 도심의 빈 건물 및 공간을 점유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문화운동으로 일컬어 지고 있다. 양○○ 노점상인이 스캇 운동의 일환으로 노점 점유 활동을 했는지의 의도는 불분명하나, 노숙인들의 삼일아파트 점거운동과 그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노점을 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 동묘 벼룩시장 일부 구역(지봉로 2길)이 노점상 상권으로 확장되는데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61) 종로구, 「현안검토회의자료」 안건 내용, (2015. 10. 07)

250개, 주말기준 약 600개로 집계되어 조사 시기에 따라 노점 수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는 계절별로 노점의 수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봄부터 노점의 수가 증가하다가, 추석 연휴에 가장 많으며 겨울이 될수록 노점 수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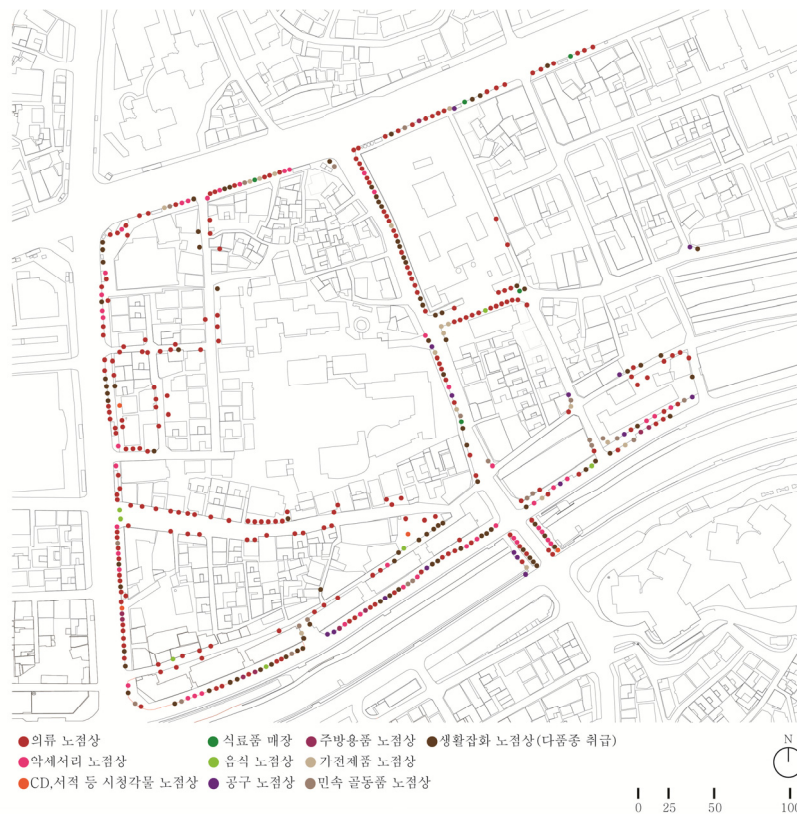
주말과 평일에 노점 분포수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이유로는 주말에 방문객의 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점포가 없는 노점의 경우 평일에 타 지역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주말에 동묘 벼룩시장 인근에 자리를 잡아 상업행위를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도시공간을 노점상 본인의 필요에 따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4-6] 동묘 벼룩시장 평일 시간대 노점 분포도

62) 2017년 11월 23일에 진행한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수석부위원장 최인기와의 인터뷰 내용에 근거함

동묘 인근에 분포한 점포와 노점의 비중을 살펴보면, 평일 기준 노점은 전체 영업개소 중 38.7%를 차지하고, 점포는 61.3%를 차지하는 등 평일에 영업하는 점포 수가 노점보다 많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주말을 기준으로 노점은 65%, 점포는 35%로 주말에는 노점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⁶³⁾



[그림4-7]동묘 벼룩시장 주말 시간대 노점 분포도

■ 노점의 취급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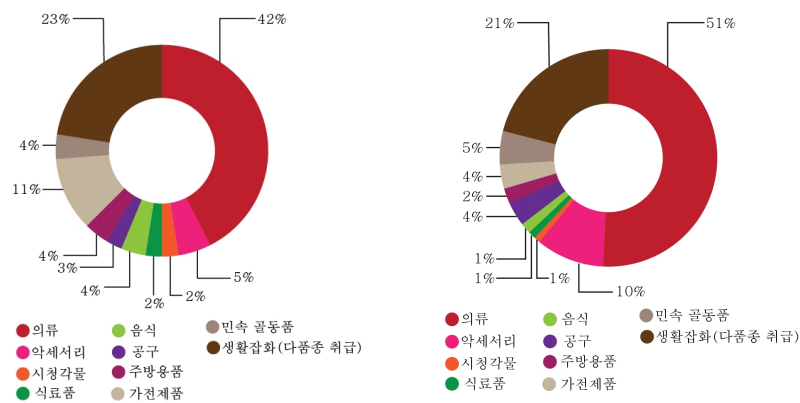
취급 품목으로는 의류, 액세서리, 시청각물, 식료품, 음식, 공구, 주방용품, 가전제품, 민속 골동품, 생활 잡화 등이 있다. 취급품목의 비율로는 평일기준

63) 서울시, 『동묘역 일대 생활형산업 및 벼룩시장 발전방안 연구』, 2006.11. p72

의류 42%, 생활잡화 23%, 가전제품 11% 등으로 확인되며, 주말기준 의류 51%, 생활잡화 21%, 악세서리 10%를 차지한다. 생활잡화 노점상의 경우 대다수가 의류를 포함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의류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즉, 동묘벼룩시장의 상권은 의류 노점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음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8] 참조)

[표 4-1] 노점 취급품목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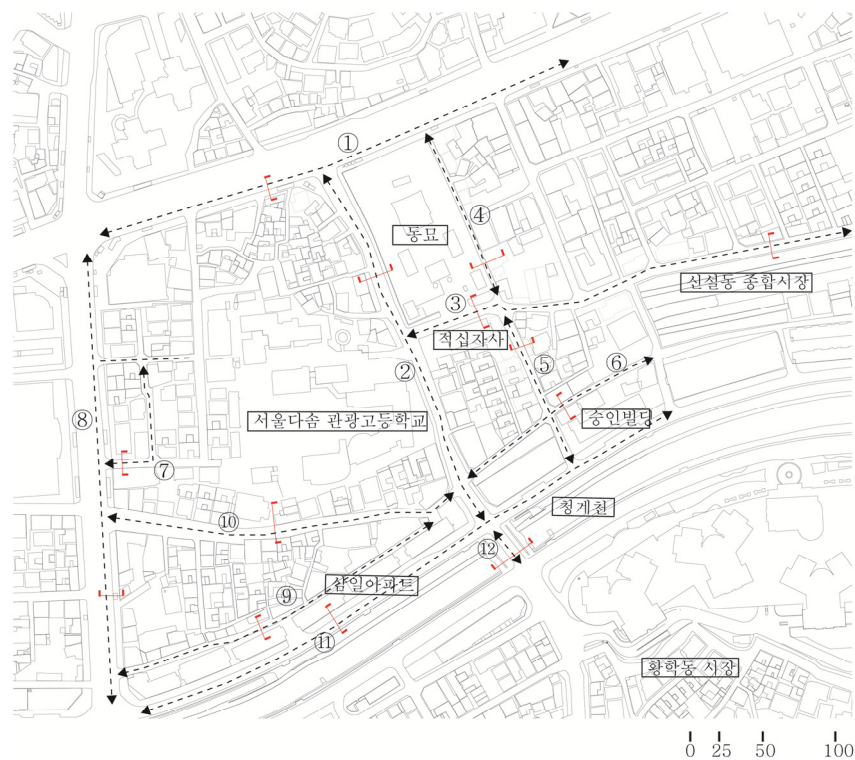
취급품목	종류
의류	상의, 하의, 신발, 모자 등
액세서리	선글라스, 안경, 안경케이스, 벨트, 시계, 팔찌, 목걸이 등
시청각물	CD,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LP판, 서적 등
식료품	건강 식품, 수입과자 등
길거리 음식	오뎅, 토스트 등
공구	드라이버, 전동드릴,
주방용품	식기류, 냄비 등
가전제품	노트북, 핸드폰, 전등 등
민속 골동품	조각품, 그림, 가구 등 각종 골동품
생활 잡화	완구류 혹은 다품종들을 복합적으로 취급



[그림4-8] 노점 취급품목 비율(좌:평일, 우:주말)

■ 가로별 현황 조사

동묘 벼룩시장의 노점의 분포는 평일과 주말에 큰 차이를 보인다. 평일에는 종로, 종로58길, 난계로 27길을 중심으로 노점이 분포해 있는 반면 주말의 경우 종로, 종로 56길, 종로58길, 난계로 25길, 난계로 27길, 종로60길, 지봉로, 지봉로 4길, 지봉로 2길, 청계천로, 영도교 등을 중심으로 노점이 분포한다. 이에 노점 점유공간 영역이 확대되는 주말을 기준으로 각 가로별로 숫자를 지정하여 해당 노점의 물리적 행태를 관찰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현장관찰을 바탕으로 기술하였으며, 노점 사진과 가로의 특징이 드러나는 구간을 중심으로 단면도를 작성하였다. 현장 조사는 2017년 10월 13일(목요일), 10월 15일(일요일), 11월 19일(일요일), 11월 29일(수요일), 12월 3일(일요일) 등 5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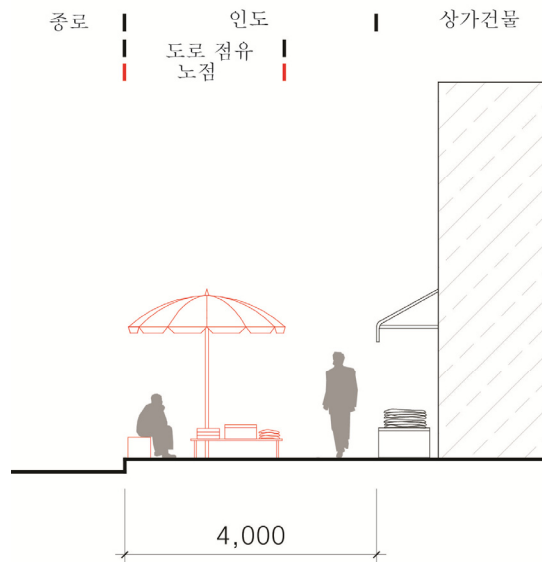


[그림4-9] 주요 노점 분포 가로 키맵

① 종로 변: 폭 26m의 종로를 중심으로 동묘앞역 3번출구와 4번출구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교통 통과량이 많은 곳이다. 종로 변을 따라 약 400m에 걸쳐 노점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동묘 벼룩시장으로 진입하는 주 동선인 동묘앞역 3번출구부터 들어선 좌판형 노점은 벼룩시장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한다. 노점은 인도와 차도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전거 거치대, 지하철 환풍구 등을 점용하는 방식으로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다. 그 밖에 노점은 아니지만 점포 앞에 물건들을 늘어놓는 등 점포의 확장된 형태도 보인다.



[그림4-10]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종로변)



[그림4-11] 종로변 단면도

② 종로 58길 : 동묘 서측 담장을 따라 중고 의류를 판매하는 노점이 밀집해 있는 동묘 벼룩시장의 주요 가로이다. 초기에는 동묘 담장을 따라 구획된 노상주차장을 노점이 점유하였으나, 종로구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보행로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이후 노점이 조성된 보행로 앞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다.⁶⁴⁾ 장이 들어서면 보행로의 이용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노점상 물품 혹은 수레 등의 적치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의류 노점의 구역은 파라솔 및 스탠드 형 옷걸이로 나뉘진다. 반면 건너편으로는 상가 중심의 점포들이 늘어서 있는데, 노점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점포상들 역시 자신의 점포 앞에 노점을 설치하는 등 확장된 형태의 점포가 발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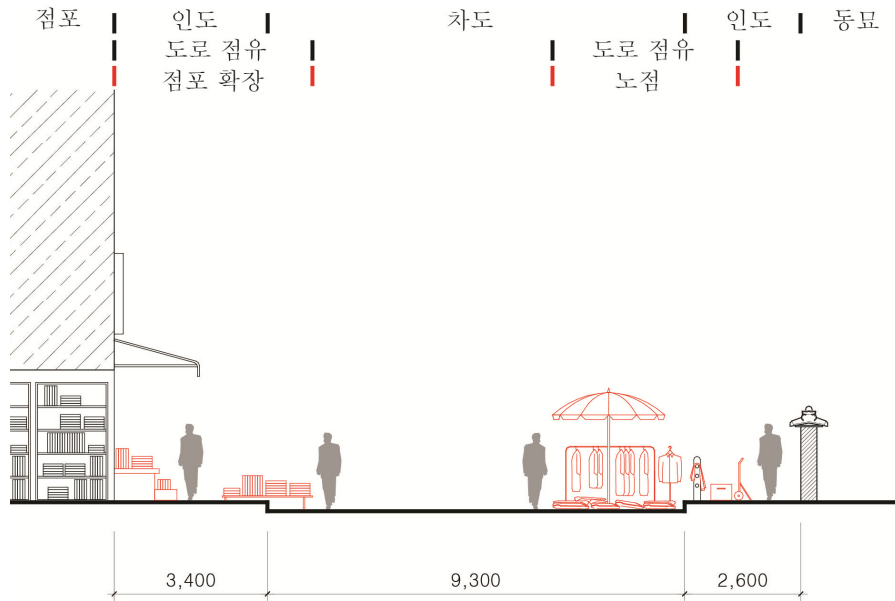
방문객이 종로 58길에 집중되면서 종로구는 2016년 11월 21일부터 종로58길 일대를 토·일요일, 공휴일 12시부터 18시까지 차량을 통제하는 ‘보행전용거리’로 지정하였다. 주말에 차량과 방문객이 많이 몰려들면서 보행자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종로구는 2016년 5월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 9월 한 달간 시범운영 후 10월부터 주말 차량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⁶⁵⁾



[그림4-12]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종로 58길)

64) 서울시, 『동묘역 일대 생활형산업 및 벼룩시장 발전방안 연구』, 2006.11. p69

65) 「동묘벼룩시장 주말에 ‘차없는 거리’로」, 『헤럴드경제』(2016. 1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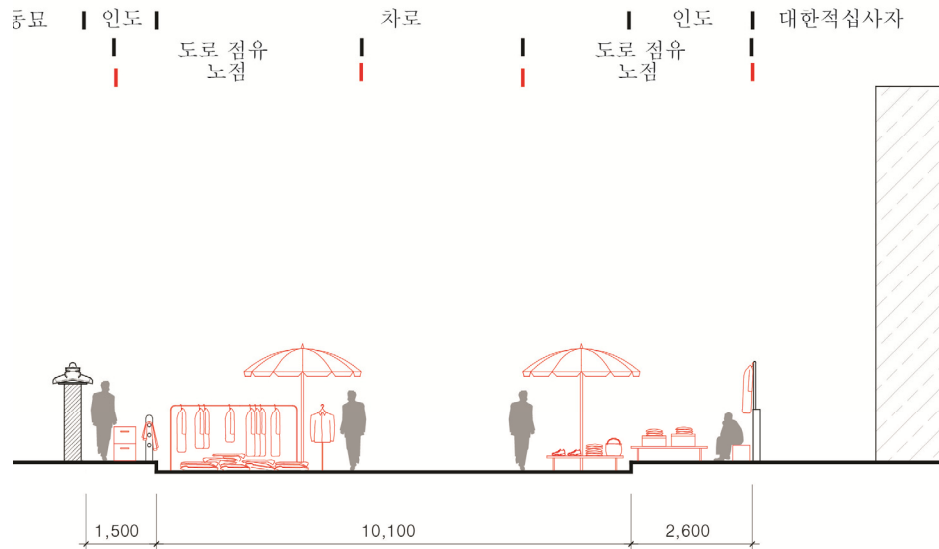


[그림4-13] 종로 58길 단면

③ 난계로 27길: 동묘입구가 있는 곳으로 동묘 남측 담벼락을 따라 중고 의류 노점이 밀집되어 있는 동묘 벼룩시장의 주요 가로이다. 노점은 바닥에 넓은 방수 천막을 깔아놓고 그 위에 의류를 적치하여 영업행위를 한다. 사람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옷을 고르는 행위는 동묘 벼룩시장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한다. 건너편 대한적십자 외벽을 따라 설치된 인도를 점유한 형태로 노점이 분포하고 있으며, 외벽 난간 등에 옷을 걸어 진열하는 등 거리 설치물의 일부를 점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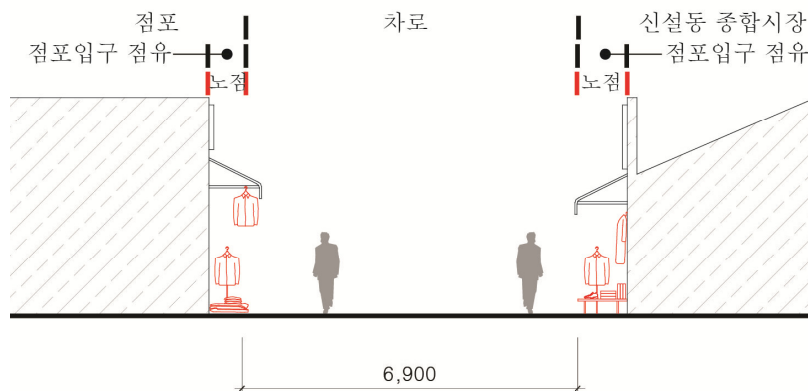


[그림4-14]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난계로 27길)



[그림4-15] 난계로 27길 단면-1

서울 풍물시장으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가로에 약 160m 길이의 신설동 종합 시장이 위치하고 있다. 원단 업종의 점포가 주를 이루는 신설동 종합시장의 경우 주말이면 영업을 하지 않아 이 시간대를 이용하여 노점이 가로 양쪽의 점포입구를 점유하고 있으며, 차로 선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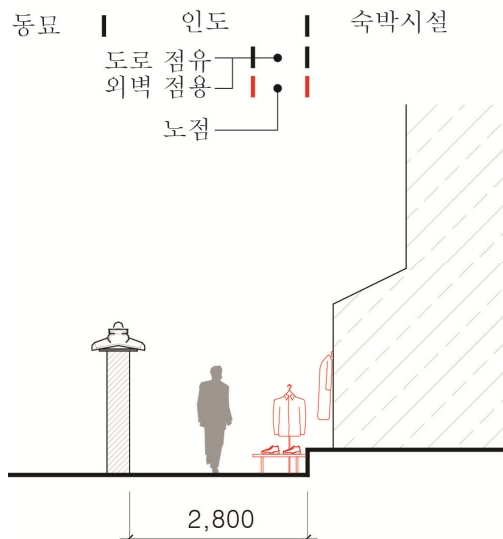


[그림4-16] 난계로 27길 단면-2

④ 동묘 동측 담벼락 : 동묘 동측 담벼락을 따라 폭 3m가량의 골목이 형성되어 있다. 길이 좁아 통과인구가 비교적 적은 곳이나 좁은 길을 따라 먹거리 노점과 중고 의류 노점이 분포되어있다. 점포의 경우 건물의 벽을 활용하여 물품을 진열해 놓기는 등 점포 확장형태를 보인다. 반면 식당에서는 동묘 담벼락 바로 옆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등 이로 인한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지적되기도 한다.⁶⁶⁾



[그림4-17]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동묘 동측 담벼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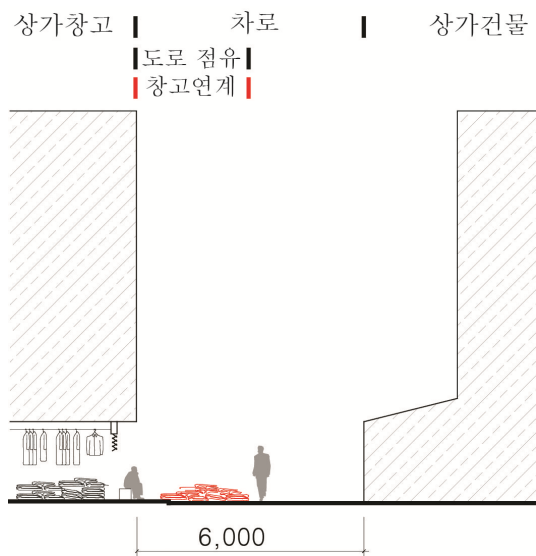
[그림4-18] 동묘 동측 담벼락 단면

66) 임진강 외 (2016). 「도심문화재 주변 노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묘벼룩시장을 중심으로」, 조형디자인연구 2016, p280

⑤ 종로 60길: 노점이 밀집된 공간은 아니나 창고 개방형태의 노점이 발견되는 가로이다. 설비 관련 점포가 늘어선 폭 6m의 가로에는 보일러 시설 등 설비 부품들이 적치되어 있다. 노점의 경우 상가건물 1층의 창고와 연계된 형태로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건물 전면의 공지 및 도로를 점유하여 중고 의류를 적치해 놓고 있다. 의류 창고로 활용되는 컨테이너도 발견된다. 승인빌딩 서측에 면한 공간은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나, 주말이 되면 차량형 노점이 점유하여 상업행위를 한다.



[그림4-19] 동묘버룩시장 노점현황(종로 60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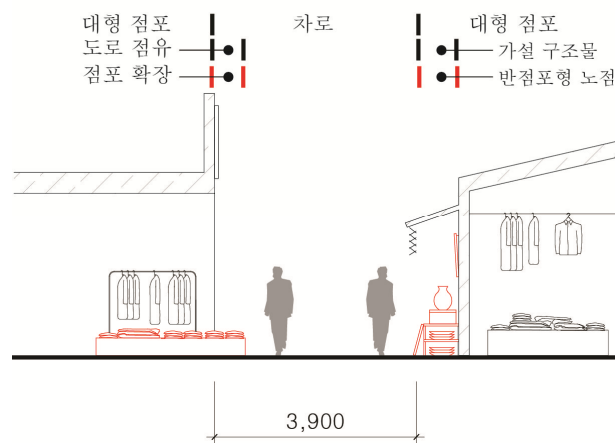


[그림4-20] 종로 60길 단면

⑥ 난계로 25길: 가죽 및 원단 도소매업종의 점포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동묘 벼룩시장의 중고 의류 상권이 확대되면서 의류 점포가 들어서기 시작한 곳이다. 동일상가아파트, 송인빌딩, 송인상가, 삼일아파트 뒷편으로 나있는 이면도로를 따라 노점이 형성되어 있으며, 노점 밀도는 다른 가로에 비해 낮은 편이다. 금속, 가죽, 의류, 가방 등의 원자재를 판매하는 점포들이 밀집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를 이용하여 주말 시간대에 노점들이 점포 입구에 좌판을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한다. 특이한 점은 건물 외벽에 깊이 1m가 안 되는 협소한 공간을 만들어 물건을 진열하는 등 반 점포 형식의 노점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유희부지에 컨테이너를 2층 높이로 쌓아 올려 창고로 사용하면서 점포식으로 물건을 파는 형태도 보인다.



[그림4-21]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난계로 25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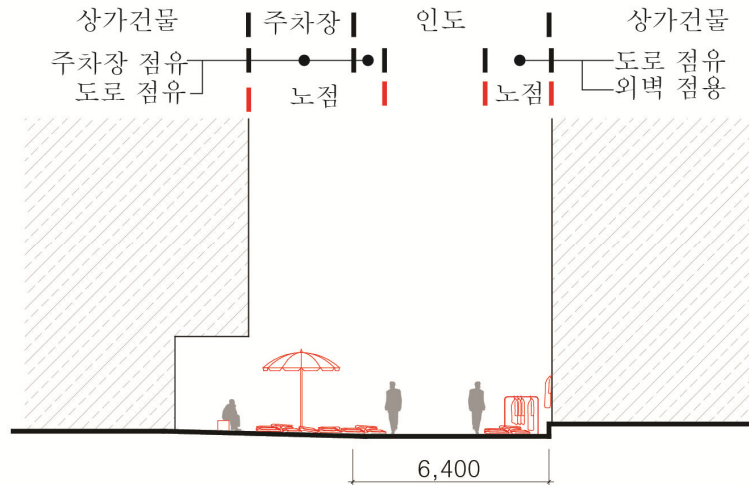


[그림4-22] 난계로 25길 단면

⑦ 종로 56길: 대로변인 지봉로에서 동묘 벼룩시장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주말이 되면 노점이 크게 형성되는 곳이다. 중고 의류와 골동품 각종 공구 등을 취급한다. 특이한 점으로 건물의 입구 계단, 벽면, 유리창, 창살 등에 건물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물건을 진열해 놓는다. 이 중에는 영업을 하는 식당의 유리창에 부착물로 옷을 진열하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의류 점포들도 진열대를 도로로 확장하여 장사를 하고 있으며,



[그림4-23]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종로 56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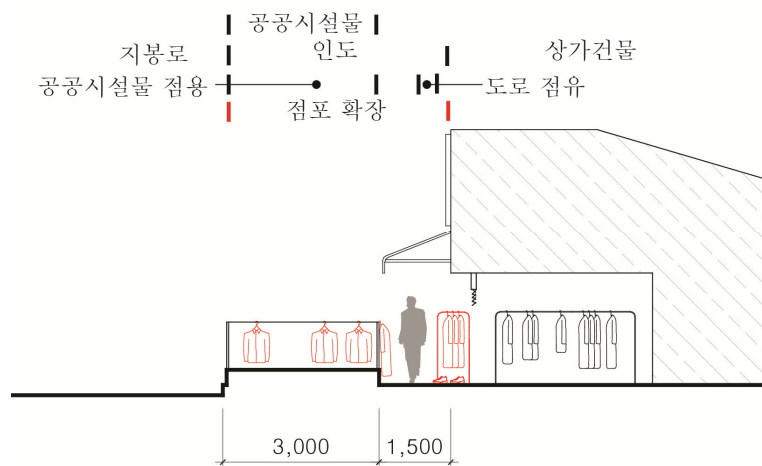


[그림4-24] 종로 56길 단면

⑧ 지붕로: 동묘역 5번출구와 버스정류장이 있는 폭 18m인 대로변에 중고 의류나 생활잡화를 판매하는 노점이 주말을 이용하여 확대되고 있어, 주말에는 방문객들로 붐빈다. 인도와 차로의 일부를 점유하여 노점상 행위를 하거나 지하철 환풍구나 지하철 출입구를 점용하여 물건을 진열해 놓는 모습을 보인다. 가로변은 상가를 중심으로 주로 음식점을 하는 상권을 이루고 있으며, 몇몇 점포에서 의류를 판매한다.



[그림4-25] 동묘버락시장 노점현황(지붕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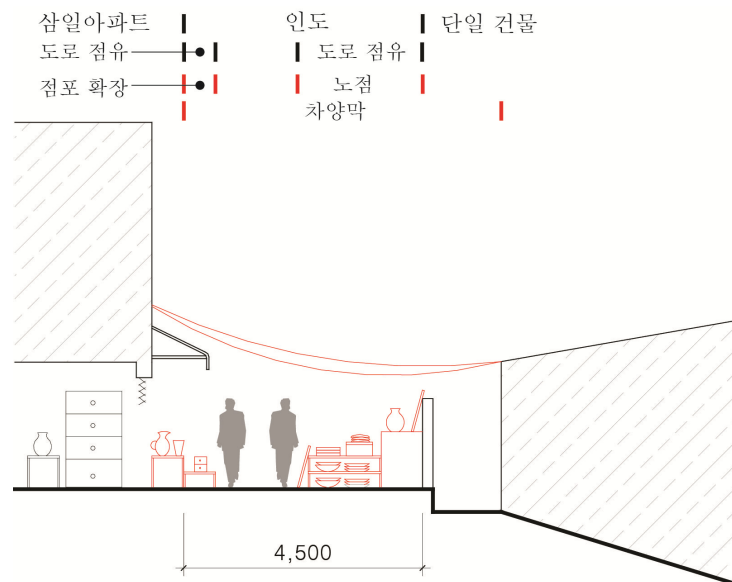


[그림4-26] 지붕로변 단면

⑨ 지붕로 2길 : 삼일아파트 뒤편으로 골동품, 의류, 생활잡화를 파는 점포와 노점 밀집구역이 형성돼있다. 점포는 물건을 길거리 일부를 점유하여 진열하고 있으며, 노점을 마주보고 있다. 4m 폭의 도로는 점포 및 노점의 물품 진열로 2m 남짓 남아있으며, 보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도로 위에는 양 점포에서 설치한 차양으로 인하여 아케이드 형태의 시장이 형성된다. 인근 상인이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나 길거리 음식을 파는 식당가가 가로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그림4-27]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지붕로 2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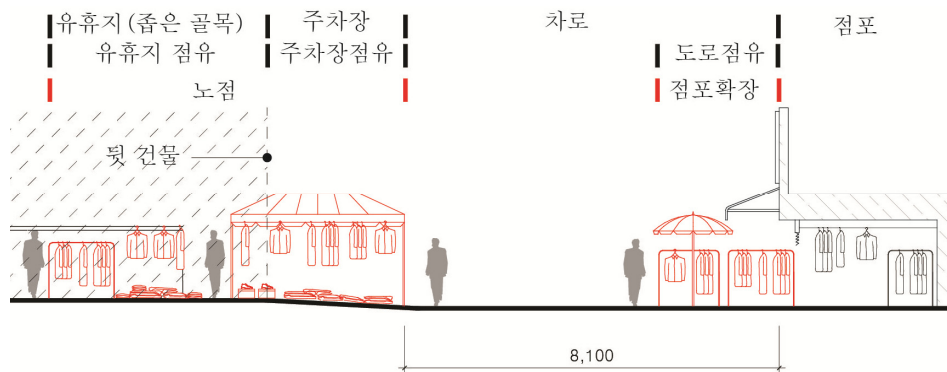


[그림4-28] 지붕로 2길 단면

⑩ 지봉로4길: 지봉로 2길과 더불어 냉동기계업종의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며, 동묘 벼룩시장의 중고 의류 상권이 확대되면서 점차 의류 점포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주로 점포를 중심으로 점포상인이 전면에 노점을 차려 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성빌딩 전면부를 주말에는 천막형태의 노점이 설치되며, 폭 2m 미만의 건물 사이에도 노점이 들어서 등 유흥지를 활용한 노점이 다수 발견된다.



[그림4-29]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지봉로 4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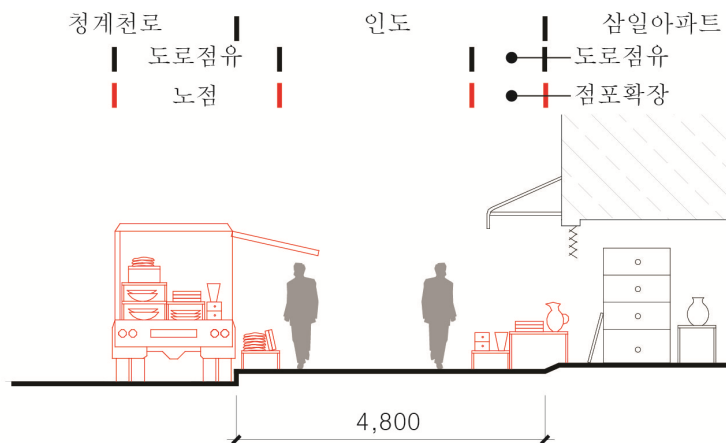


[그림4-30] 지봉로4길 단면

⑪ 청계천로: 청계천 북쪽을 따라 이어지는 폭 4m의 청계천로변 인도위에 주말이 되면 노점이 밀집된다. 평일에는 점포상인들이 물건의 유통과정에서 화물차를 주정차시키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공간으로 이용되며, 주말이 되면 노점으로 대체된다. 노점은 차량형과 좌판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점포에서 운영하는 노점 역시 발견된다. 차량형의 경우 트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도 및 차로를 일부 점유한 형태로 트럭의 짐칸에 물건을 진열하여 상업행위를 한다. 동일상가 아파트 및 승인빌딩 전면에는 평일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넓은 공간을 주말이면 노점이 점유하면서 상권이 형성되는데, 주로 골동품, 공구류, 중고 의류 등을 판매한다. 인도에 설치된 노점과 비교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어, 차량형 노점과 좌판형 노점이 뒤섞여 있다.



[그림4-31] 동묘버룩시장 노점현황(청계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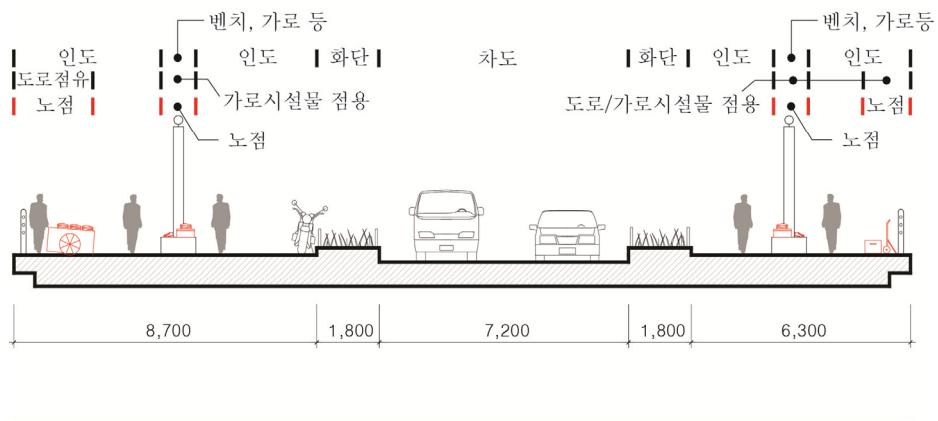


[그림4-32] 청계천로 단면

⑫ 영도교: 영도교는 청계천을 가로지르는 폭 8m, 길이 30m의 교량으로 황학동 시장과 동묘 벼룩시장의 경계에 놓여있는 곳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영도교 양쪽 인도의 중앙에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위에 물품을 진열하여 노점상을 한다. 중앙에 일렬로 설치된 가로등은 자연스럽게 노점 구역을 나누는 분리대 역할을 한다. 좌판형 외에도 수레형 노점 등이 발견되며, 횡단보도 옆에 작은 보따리 위에 물건을 파는 노점도 발견된다. 평일에도 소수의 노점이 보이지만 일정치 않으며, 몇몇 노점 적치물들이 방치되어있다. 그 밖에 인근 도소매업 점포들의 물건을 유통하는 오토바이들이 인도와 차로를 점유하며 주정차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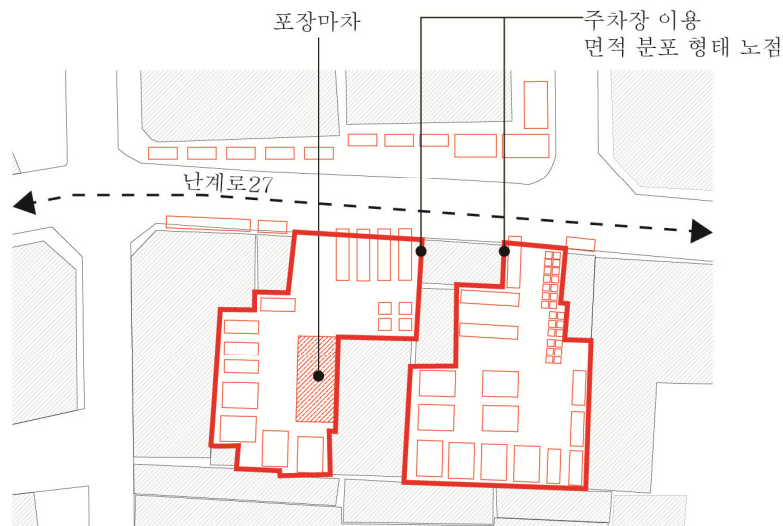
[그림4-33] 동묘벼룩시장 노점현황(영도교)



[그림4-34] 영도교 단면

■ 노점의 분포 유형

제2장 2절에서 분류한 [표 2-1]에 따르면 노점은 분포 형태에 따라 선적 분포, 면적 분포, 혼합형 분포 등으로 구분된다. 동묘 벼룩시장의 노점 분포방식은 주로 선형적 분포를 이루고 있어, 가로를 따라 방문객들의 선형적 이동과 소비를 유도한다. 또한 일부 사설 유료주차장을 점유하여 면적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난계로 27길에 면한 천일주차장, 재원주차장, 제일주차장 등 세 곳이 있다. 주차장 영업이 쉬는 일요일에 좌판 및 천막형 노점들이 설치된다.



[그림4-35] 노점의 면적 분포의 대표 지역(난계로 27길 유료 주차장)



[그림4-36] 재원 주차장 노점



[그림4-37] 제일 주차장 노점⁶⁷⁾

■ 노점의 형태적 유형

앞서 제2장 2절에서 정리한 노점 유형 분류([표2-1])에 따르면 노점을 구성하는 시설물 형태에 따라 포장마차, 차량, 손수레, 좌판, 부스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되며, 노점의 이동성 여부에 따라 고정형, 반고정형, 유동형으로 분류된다. 분류표를 기준으로 동묘 벼룩시장의 노점 형태를 살펴보면 크게 차량, 손수레, 좌판의 세 가지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부스형 및 포장마차 노점에 비해 이동성이 높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노점에 대한 단속에 쉽게 대응 할 수 있다. 또한 이면 도로 및 대로를 점유하는 노점상인들의 경우 영업시간이 일정 시간에 국한되어 노점을 설치하고 철거하기에 유용한 형태를 택하고 있다.

[표 4-2] 동묘 벼룩시장에서 발견되는 노점 유형

		
좌판형	수레형	차량형
		
천막형	벽 부착형	적치형

반면 평일과 주말의 여부에 따라 노점의 형태적 유형을 달리하는데, 차량형 노점의 경우 주말에 한하여 발견된다. 특히 트럭에 물건을 실은 채 짐칸을 펼

67) 재원주차장과 제일주차장 사진에 한해 로드뷰(map.daum.net) 활용. 그 외 현장관찰사진은 본 연구자 촬영.

쳐 좌판 형태로 활용하기도 한다. 주로 청계천로를 따라 일렬로 늘어서 인도와 차도를 점유하여 영업을 한다.

그 밖에 일반적으로 유형화되지 않은 형태의 노점이 동묘 벼룩시장에서 발견되는데, [표 4-2]에 보이는 바와 같이 건물 외벽이나 유리창, 난간 등에 옷걸이 혹은 기타 부착장치 등을 사용하여 물품을 벽에 진열해 놓는 방식 등이 있으며, 이를 ‘벽 부착형’이라 하고자 한다. 그 밖에 간이형 천막을 설치하여 노점 공간의 경계를 구획하는 ‘천막형’ 등이 발견된다. 또 다른 형태로는 ‘적치형’ 노점으로 이는 동묘 벼룩시장 노점의 독특한 상품 진열 방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방문객이 즉각적으로 상품을 식별하도록 배열한 것이 아닌 바닥에 천막을 펼쳐 놓고 그 위에 상품을 무작위로 쌓아놓는 방식이다. 이는 좌판형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그림4-38]과 같이 동묘 벼룩시장의 방문객들이 바닥에 쌓여있는 옷이나 책 등을 들쳐가며 고르는 모습은 동묘 벼룩시장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좌판형 노점과 차별성을 지닌다.



[그림4-38] 의류 적치물



[그림4-39] CD 적치물



[그림4-40] 서적 적치물

■ 노점의 점유 방식

동묘 벼룩시장에 위치한 노점은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간을 점유하고, 필요에 맞게 변용하면서 상업행위를 한다. 동묘 벼룩시장의 가로별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노점이 도시공간을 점유 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시적 점유 방식, 창고 연계 방식, 점포 확장 방식, 반 점포형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시적 점유 방식: 도로(차로, 인도), 가로시설물(벤치, 난간, 지하철역 입구, 지하철 환기구, 자전거 거치대), 건물(출입구, 외벽, 유리창, 계단, 난간), 유흥지, 주차장 등의 도시공간을 노점상 물건을 진열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동묘 벼룩시장이 들어서는 12시부터 장이 마치는 6시 사이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설치되고 해체된다.(그림 [4-15] 참조) 대부분의 노점에 해당하는 점유 방식으로 모든 가로에서 발견된다.

② 창고 연계 방식: 창고연계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대표적 유형으로 [그림4-21]와 같이 상가건물 저층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혹은 기 업중을 창고로 변경하여, 창고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형태의 노점상을 한다. 두 번째로 [그림4-28]과 같이 이면도로에 물건을 상시 적치해 놓은 상태로 노점상을 하며 방문객이 줄어드는 일몰 시 간이천막으로 덮어 창고로 사용한다. 그 밖에 컨테이너 방식으로 [그림4-21]의 중간 사진처럼 유흥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그 전면에 물건을 적치하여 노점상을 한다.

③ 점포 확장 방식 : [그림4-13]과 [그림4-26]의 경우처럼 점포는 노점의 형태를 띠면서 점포 입구 혹은 점포 전면의 인도와 차로를 점유하는 형태로 확장한다. 일시적 점유 방식의 노점과 더불어 동묘 벼룩시장의 경관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④ 반 점포형 : [그림4-22]과 같이 기존 건물에 가설 구조물을 추가하여 폭 1m 미만의 협소한 내부 공간을 조성한다. 이는 도로에 전면이 노출되어 노점의 성격을 띤다. 동시에 좁은 공간은 진열대인 동시에 창고 역할을 하고 있어 점포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또한 철재 셔터를 설치하여 영업을 마친 후 문을 개폐할 수 있다. 일부 도로를 점유하기도 하지만 건물 대지의 건폐율을 100%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투리 땅을 점유하게 된다.

■ 노점의 물리적 행태

노점의 물리적 행태는 점유공간의 종류와 그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 점유하는 형태적 유형, 분포 유형 등 크게 네 가지 물리적 요소들 간의 관계로 파악된다. 점유 공간의 종류는 인도, 차로(대로 및 이면도로), 주차장, 유흥지, 건물(입구, 외벽, 계단, 난간, 유리창 등), 가로시설물(벤치, 지하철 환풍시설, 지하철 입구, 자전거 거치대 등)이 있다. 점유방식으로는 일시적 점유 방식, 창고연계 방식, 점포확장 방식, 반점포 형식 등이 있다. 노점의 형태적 유형으로는 좌판형, 수레형, 차량형, 천막형, 적치형 등으로 분류되며, 분포 유형으로는 선형 분포, 면형 분포, 혼합형 분포로 분류된다. 노점의 점유공간에 나타나는 노점의 점유방식·형태적 유형·분포 유형간의 관계는 다양하게 조합되며, 이를 종합하면 다음 [표4-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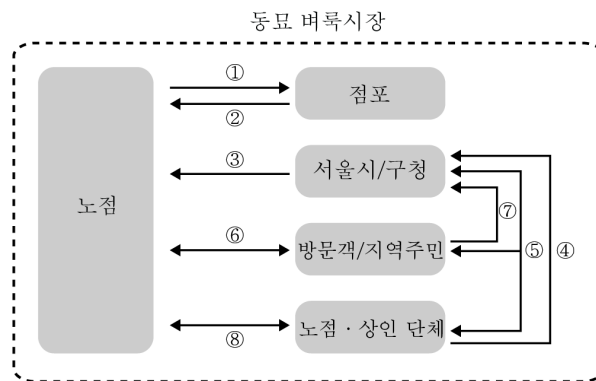
주요한 특징으로 동묘 벼룩시장의 노점은 주로 좌판과 적치의 형태를 띠며, 인도, 차로, 이면도로, 주차장, 유흥지, 건물, 가로시설물 등의 도시공간을 따라 선형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점유 가능한 도시공간을 다양한 형태로 변용하여 일시적으로 노점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동묘벼룩시장 노점의 물리적 행태

점유공간	점유방식				형태적 유형						분포 유형		
	일시적 점유	창고 연계	점포 확장	반점포 형식	좌 판	수 레	차 량	천 막	적 치	벽 부 착	선 형	면 형	혼 합 형
인도	○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
이면도로	○	○	○	○	○	○	-	○	○	-	○	-	-
주차장	○	-	-	-	○	-	○	○	○	-	○	○	-
유흥지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가로시설물	○	-	-	-	○	-	-	-	-	○	○	-	-

2. 동묘 벼룩시장 노점의 사회적 관계

노점이 도시공간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현상 외에 다양한 행위자와의 사회적 관계가 존재한다. 이에 동묘 벼룩시장의 노점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를 개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노점 관련 행위자로는 점포, 노점 단체, 구청, 방문객 등이 있으며,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통해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4-41]과 같다.



[그림4-41] 동묘 벼룩시장 노점 사회관계망

■ 노점과 점포와의 관계

① 노점이 점포에 행사하는 영향: 동묘 벼룩시장이 활성화 된 현재에는 노점과 점포는 상생 관계를 맺는다. 노점의 증가로 인하여 동묘 벼룩시장에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점포 역시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중고 의류를 판매하는 노점이 활성화됨에 따라 점포의 업종을 중고 의류매장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냉동기계업이 밀집되어 있던 지봉로 2길과 지봉로 4길 그리고 가죽 및 원단 도소매업이 밀집되어 있던 난계로 25길, 난계로 27길을 중심으로 중고 의류업 혹은 의류 창고로 업종을 변경하는 점포가 발견된다. 이는 중고 의류 중심의 노점상 상권 확대와 맞물려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 혹은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기존 집적산업의 시장여건 변화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⁶⁸⁾

또한 의류 수선가게, 세탁소 등 중고 의류와 연계된 2차 소비 공간이 등장하면서, 일련의 쇼핑패턴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 밖에 점포주가 해당 점포 전면에 진열대를 확장하는 등 노점의 형태를 따르기도 한다. [그림4-22]와 같이 반점포 형태로 노점이 점포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노점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즉, 노점은 형태적인 측면에서 점포 확장형, 반점포형 등과같이 노점형태와 점포형태를 결합한 형태를 만들었으며, 동묘 인근 점포상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② 점포와 노점간의 갈등 및 상생관계: 점포주와의 합의 하에 점포 앞에서 노점상을 하기도 하는데,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은 시간대를 이용하기도 하며, 노점의 업종이 점포와 상관없을 경우 점포영업 시간대에도 점포 앞에 노점을 하기도 한다. 또한 점포 건물의 전기인입선을 연장하여 노점상하는 대에 사용하기도 한다.([그림4-42]참조)



[그림4-42] 전기 인입선을 연장하여 노점에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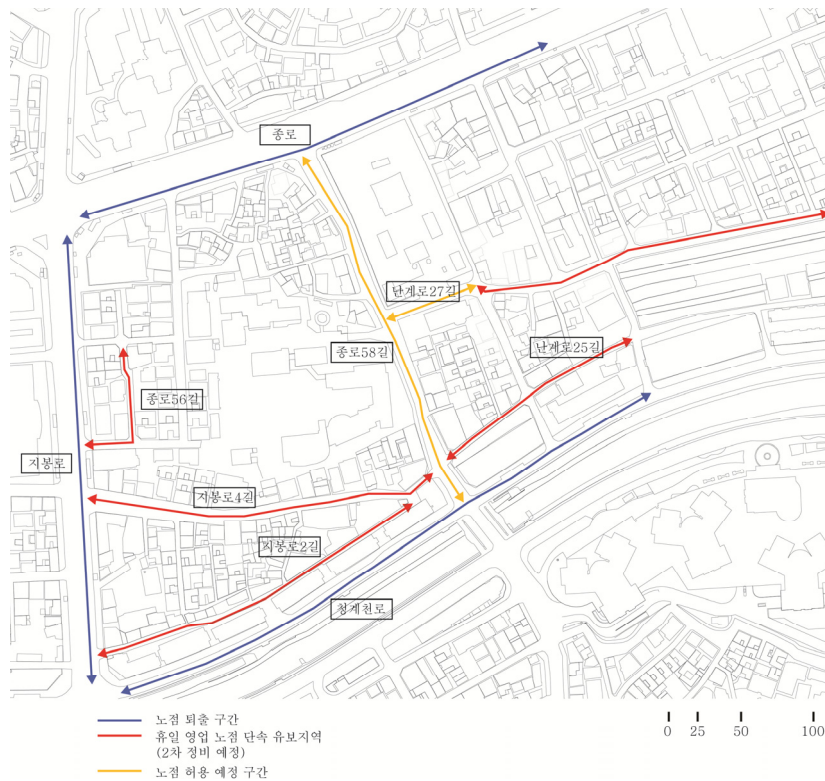
반면 갈등적 요소도 있는데, 의류 원단 점포가 밀집해 있는 난계로 27길 신설동 종합시장의 경우 노점으로 인한 점포 통행차량의 불편이 야기된다. 또한 점포주가 점포 앞 인도에 자신이 직접 노점을 설치하거나, 노점자리를 대신 맡아놓는 경우, 또는 점포 물건을 적치하여 노점을 방해하는 경우 등을 찾아볼 수 있다.

68) 서울시, 『동묘역 일대 생활형산업 및 벼룩시장 발전방안 연구』, 2006.11. p76

■ 노점과 서울시/구청의 관계

③ 단속 및 정비 대상으로서의 노점

‘동묘 주변 노점 정비방안(2015)’에 따르면 동묘 주변 노점정비에 관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⁶⁹⁾ 첫째, 동묘 주변 이면도로(비닐원단골목, 내동기계골목 등), 청계천변 등 신노점 발생 및 통행 불편을 조장하는 노점 대상으로 정비한다. 둘째, 인접구(동대문구, 중구)로 부터의 노점 유입 방지 위한 정비의 일환으로 난계로 주변 노점 정비를 강화한다. 셋째, 동묘공원 주변도로(종로대로, 청계천로, 지봉로, 난계로) 노점을 퇴출한다. 넷째, 동묘에 인접한 종로58길과 난계로 27길 일부에 한하여 노점 허용구간을 지정한다. 다섯째, 노점 허용 지역의 판매 품목 제한으로 구제웃과 먹거리를 비허용 품목에 포함시킨다.



[그림4-43] 노점 정비 예정도(「동묘주변노점 정비방안(2015)」 참조)

69) 종로구, 「현안검토회의자료」 안건 내용, (2015. 10. 07)

중구청에서 작성한 ‘노점 정비 예정도’ ([그림 4-43])에 따르면 종로, 지봉로, 청계천로 등 동묘 벼룩시장을 둘러싸는 대로변은 노점 퇴출구간으로 지정되었다. 동묘인근의 난계로 27길과 현재 주말과 휴일에 한해 보행자 전용 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종로 58길은 노점 허용 예정 구간으로 지정되었다. 그 밖에 종로 56길, 지봉로 4길, 지봉로 2길, 난계로 25길, 난계로 27길 일부 등 이면도로는 2차 정비예정 구역으로 휴일에 영업하는 노점에 한해서 단속을 유보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즉, 대로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일부 이면도로의 경우 주말에 한해 노점을 허용한다.

④ 노점 단속에 대한 대응: 노점 단속에 대해 노점상인들은 대부분 수긍하고, 노점을 일시적으로 철수한다. 하지만 노점은 노점상 단체를 통해 항의의사 표현을 한다. 전국노점상연합 등에서는 점포와 노점간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는데, 평일 청계천변의 도로 및 영도교에는 각종 오토바이와 트럭 등 주변 점포에서 취급하는 물자를 나르기 위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되어 있음을 지적한다.([그림4-44] 참조) 그 밖에 적치된 점포 물건들도 발견되는데, 이는 청계천 인근 상가들이 영업하기 위해 도로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결과이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점포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노점에게는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단속을 진행하는 등 형평성에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노점상 단체들의 입장이다.



[그림4-44]평일 청계로 도로변



[그림4-45]주말 청계로 도로변

⑤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점·상인 단체와 서울시·구청과의 상생관계

동묘시장 상인회가 주체하고, 서울시 종로구 동묘지역 노점상 연합회가 후원한 ‘2017 추석맞이 전통 동묘시장 한마음 대축제’가 2017년 9월 28일 동묘 벼룩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동묘시장을 홍보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동묘시장 상인회는 창신동, 송인동 일대 총 5개의 주민센터에 쌀 240포를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시니어클럽, 새마을금고, 정보산업고등학교 등 지역 유관단체에 현미쌀 550포를 무료로 지급하였다. 이는 2017년에 개최된 두 번째 행사로 동년 2월에는 ‘2017 전통시장 다시 찾기 판촉전⁷⁰⁾’ 행사가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지원으로 개최되었다. 이는 서울시, 구청은 노점을 대상으로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으로 구성된 동묘 벼룩시장 상권을 인정하고 정부 주관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등 노점에 대한 단속과 허용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46] ‘2017 전통시장 다시 찾기 판촉전’ 포스터(서울시, 2017)

70) ‘2017 전통시장 다시 찾기 판촉전’은 2017년 2월 6일부터 동년 2월 10일까지 서울시 24개구 124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전통시장 제품 대규모 할인, 공연 등 이벤트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개최한 행사이다. 종로구 전통시장에 속한 동묘 벼룩시장에서는 ‘대보름 맞이 할인행사’라는 이름으로 모든 점포가 참여하여 20~30% 제품 할인을 하였으며, 옷놀이 대회, 기념품 증정 등의 행사로 구성되었다.

■ 노점과 방문객과의 관계

⑥ 다양한 종류의 중고품 공급

벼룩시장이라는 단어는 ‘벼룩이 들끓을 정도로 오래된 고물을 판매하는 시장’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다.⁷¹⁾ 다시 말해 온갖 종류의 중고품을 사고 파는 시장을 가리키며, 동묘 벼룩시장의 경우에도 중고 의류, 골동품, 중고 서적, 중고 CD, 중고 가전제품, 중고 전자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중고품을 취급한다. 이러한 중고품은 저렴한 가격, 다양한 볼거리, 희소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동묘 벼룩시장의 주된 방문객 층은 중년·노년층이었다. 저렴한 가격의 중고물품을 구입하고 소일거리로 과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골동품을 구경하기 위해 나온 노인들로 주말이 되면 동묘앞입구역청사 내부에서부터 밀도 높은 방문객들이 이어진다. 저렴한 가격의 작업복, 작업화 등의 중고 의류와 중고 핸드폰, 전자제품, 가전제품 등은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 근로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동묘 벼룩시장 가로변에서 외국인들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래에 방영된 유명 TV 프로그램 등 미디어를 통해 동묘 벼룩시장이 소개되면서 젊은 방문객들이 증가하였다. 이는 ‘구제’, ‘빈티지’, ‘레트로’, ‘복고풍’ 등 희소가치를 지니는 중고제품을 소비하려는 젊은 층들의 소비경향과 맞물려 방문객의 연령대가 젊은 층으로 확대되었다.⁷²⁾

또한 서울시 방문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서울시의 ‘인기 쇼핑지’로 관광공식홈페이지(korean.visitseoul.net)에 소개되면서 기존에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던 황학동 벼룩시장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묘 벼룩시장 인근에는 청계천, 서울 풍물시장, 황학동 벼룩시장, 동대문 운동장 등 연계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있어 이와 연계한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다.

71) 두산백과(terms.naver.com, 검색일: 2017.12.11.)

72) 천혜정 외(2015), 「20대 소비자에게 벼룩시장 및 중고품의 의미는 무엇인가?-황학동/동묘 벼룩시장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유통연구 20(3)

⑦ 노점으로 인한 민원 발생

동묘벼룩시장의 증가하는 노점과 방문객으로 혼잡도가 높아져 그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민원·제안 창(democracy.seoul.go.kr)에 올라온 동묘 벼룩시장 고나련 민원사항을 보면, 노점상인들로 인한 통행의 불편, 보차혼용 도로로 인한 통행의 불편, 노점상인 간의 분쟁으로 인한 불편, 불량품 판매, 폭리 및 환불·교환 불가로 인한 노점상인과 소비자 간의 분쟁, 화장실 등 공공시설 부족을 지적하였다. 민원 사항 중 보차혼용 도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로구는 2016년 5월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차 없는 거리’ 기본 계획안을 세웠다. 이후 2016년 9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시범운영 후 10월 1일부터 주말 및 공휴일과 종로 58길에 한하여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였다. 다음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민원·제안 창에 게시된 민원사항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 2014년 1월 22일 게시된 민원사항

제가 청계천길과 동묘앞 풍물시장길을 자주 가는데...(중략)... 동묘앞역시장은 도로를 점거한 채 영업하는 상인들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중략)... 주말에는 교통단속요원도 없구 정말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는 곳 같네요.

• 2014년 9월 24일 게시된 민원사항

돈도 없고 산에 갈 기력도 부족하고 해서 주말이면 동묘에 나가서 좌판에 늘어놓은 물건들을 구경합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사람들이 근처에서 천오백원하는 자장면 사드시고 동묘를 구경하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입추에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배짱 좋은 차들이 지나가면서 보행자들은 한쪽으로 비켜서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공무원 차량이라면 제가 말도 하지 않습니다만 꼭 자자용 승합차들이 밀어 들이닥치면 한창 흥정하고 있는데 산통 다 깨집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벼룩시장 진입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서 자동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묘에서는 자리를 가지고, 물건 파는 사람이 오만불손해서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경찰들도 순찰을 강화해서 동묘에서 시비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신속히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10월 14일 게시된 민원사항

서울시 종로구 동묘와 신설동 일대는 벼룩시장이 형성되어 무질서하게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 주말이면 발 디딜 공간도 없을 정도로 복잡하기만 합니다. ...(중략)...한때는 구청에서 단속한다고 야단법석이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자리를 깔고 무질서하게 물건을 파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일주일 내내 장사하는 부류와 주말에만 장사하는 부류로 나뉘는데 주말에만 장사해도 수입에 괜찮은지 악착같이 천막을 치고 장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략)... 고장난 물건도 환불, 교환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각종 사기꾼들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고 재주를 부려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략)...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는 상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공정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일에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0월 25일 게시된 민원사항

동묘 벼룩시장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수 만 명이 모이는 그야말로 대규모 중고장터입니다. 화장실은 지하철 6호선, 1호선에 화장실이 있고 동묘 내에 공용화장실이 있습니다만 화장실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므로 새로운 화장실 건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화장실을 짓는데 필요한 부지선정과 건립 또는 건물임차와 인테리어 등에 대해서는 동묘상가회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합니다.

■ 노점과 노점·상인 단체와의 관계

⑧ 동묘 벼룩시장의 노점상은 전국노점연합회, 민주노점연합회, 동묘시장 상인회, 종로구 동묘지역 노점상 연합회, 동묘역노점상협회, 님마 공동체 등의 노점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점상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없다. 노점은 동묘 인근 일대를 구획하여 소속 단체에 따라 각기 다른 구역에서 영업을 하도록 유도된다. 그에 따라 단체 사이에서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노점 단체는 소속 회원들의 노점상 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동묘시장 상인회와 같은 경우는 노점 뿐 아니라 점포상인들의 권리 보호하는 단체이다. 그 일환으로 동묘시장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5년 8월 29일에 공식적으로 등록되면서, 동묘 벼룩시장은 정식으로 상권을 갖춘 시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4절 소결

도시개발로 인해 철거된 노점상인들이 동묘 인근에 정착하면서 동묘 벼룩시장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그 노점의 규모가 확장되고 도시공간에 보다 끈고히 고착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노점의 물리적 현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묘 벼룩시장의 노점은 주로 좌판형과 적치형의 물리적 유형을 띠며,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간을 점용하며 노점상 행위를 한다. 주로 취급하는 품목으로는 중고 의류, 골동품, 악세서리, 중고 서적, 중고 공구 등 중고품들이며, 이는 저렴한 가격, 희소성, 추억을 회상시키는 복고풍 등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은 방문객을 유입시키며, 동묘벼룩시장의 고유한 상권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동묘 인근 관광지와 연계성, 기존 황학

동 벼룩시장과의 유사한 성격의 상권형성, 서울 풍물시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 등으로 보아 동묘 벼룩시장은 독립적 공간으로써 형성된 장소가 아닌 주변의 도시적 맥락과 일정부분 연계되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고 시장의 성격을 띠며 노점이 확장됨에 따라 기존 점포는 변화된 상권에 맞춰 업종을 변경하게 된다. 점포는 점포확장형, 창고연계형, 반점포형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며 노점의 모습과 유사해진다. 이에 가로변 혹은 주차장, 유흥지 등에 선형적·면적 분포를 띠며 밀집된 노점은 동묘벼룩시장의 대표적인 경관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동묘 벼룩시장 일대 도시공간은 물리적으로 변모하였으며, 노점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하여 고착화 되기도 한다. 경기침체, 기존 상권쇠퇴 등의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노점의 인식변화, 점포 및 정부와의 관계, 상권망 형성 등의 사회적 요소가 존재한다. 그 밖의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노점상 관련단체의 성장과 도시빈민운동의 일환인 노숙인 삼일아파트 점거운동 등 사회운동을 들 수 있다.

즉, 동묘 벼룩시장의 노점이 ‘정착-확장-고착화’ 되는 대에는 비가시적인 사회적 관계가 작용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동묘 벼룩시장의 형성 및 고착화과정에서의 물리적·사회적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 4-4]과 같다.

[표 4-4] 동묘벼룩시장 형성 및 고착화 과정에서의 물리적·사회적 관계

물리적 관계	도시 개발	청계천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한 노점 철거 -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사업으로 인한 노점철거 - 황학동 롯데캐슬 건설로 인한 황학동 벼룩시장의 노점 축소 	
		기타	- 동묘 지하철역 개통으로 인한 역세권 발달	
	도시공간 점유	다양한 노점 형태	점유 공간	- 인도, 차로(대로, 이면도로), 가로시설물(벤치, 난간, 지하철역 입구 외벽, 자전거 거치대, 지하철 환풍기 등), 건물(외벽, 유리창, 계단, 난간, 출입문), 유흥지, 주차장 등
			점유 방식	- 일시적 점유 방식, 창고연계 방식, 점포확장 방식, 반점포 형식
			점유 형태	- 좌판형, 수레형, 차량형, 천막형, 적치형, 벽부착형
			분포 형태	- 선형 분포, 면형 분포, 혼합형 분포
	상권 변화	점포 업종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저층부를 창고로 사용 - 노점 상권에 따른 점포 업종 변경 - 옷 수선가게, 세탁소, 식당 등 2차 소비공간 형성 	
	유통환경 구성	판매 공간	노점	- 도시공간점유 형태로 노점밀집지역 형성
			점포	- 노점 형태로 점포의 확장 형태
		저장 공간	동묘 인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 저층부 창고 임대 및 소유 - 유흥지에 컨테이너 창고 적치 - 노점 공간에 판매 물품 상시 적치, 천막으로 물품 보안
			외부	- 동묘 외부 지역 창고에 물품 저장
		인근 상권과 연계	- 인간의 서울 풍물시장, 황학동 시장 등 동묘벼룩시장과 유사한 상권과 연계	

사회적 관계	경제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침체로 인한 노점 및 노점 방문객 증가 - 서울풍물시장의 영업부진으로 인해 동묘 벼룩시장으로의 노점 유입 - 동묘 인근의 기존 직접산업인 원단, 공구, 냉동기계업의 쇠퇴 			
	사회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삼일아파트 점거운동과 연계하여 노점거리 형성 - 노점단체의 성장으로 인한 도시공간에서의 노점상 권리 증대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울시는 노점의 정비와 부분적 허가를 실시 			
	점포와의 관계	갈등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 앞 무단 노점 점유 - 점포 앞 점포소유 적치물로 인하여 노점설치 방해 - 노점으로 인하여 점포차량 이동에 방해 		
		상생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가 영업하지 않은 시간대를 활용하여 점포와의 합의 하에 노점상 영업 - 노점으로 인한 상권형성으로 점포 매출 향상 - 공구, 냉동기계, 가죽, 원단 업종에서 중고 의류 판매업 또는 의류 창고로 변경 		
	노점 관리 주체	노점상 관련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묘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전국노점연합회, 민주노점연합회 등 동묘지역 노점 관리 및 시장홍보 		
		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변(종로, 지봉로, 천계로)을 중심으로 노점 단속 - 노점상 생계유지 및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 한하여 노점허가 거리로 지정 - 재래시장 축제행사 지원 		
	상권망 형성	물품 유통망	구매	의류 수거함, 고물상, 수해지역, 온라인, 파산신청 사업체, 지인, 도·소매상의 점포 방문 등을 통해 구매	
			판매	소매 도매	일반 개별 소비계층 대상 지방 및 해외 유통망 형성
소비문화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묘 벼룩시장을 찾는 소비층 다양화. 기존 노년 중심이었던 소비층이 현재 젊은 세대와 외국 관광객 및 외국 근로자 등으로 확대 - 빈티지, 복고, 레트로, 구제 등으로 불리는 중고 물품과 같은 차별적인 물품을 통해 동묘 벼룩시장만의 상권 형성 - 의류 구입 후 인근 의류 수선가게, 세탁소, 식당 등에서 2차 소비패턴 형성 			

제5장 결론

1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노점을 연구하는데 있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우선 언론 보도자료를 포함한 문헌자료를 통해 노점에 관한 쟁점 변화과정을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구체적 공간인 청계천 일대의 노점의 이주 및 정착 과정을 조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간적 범위를 축소하여 동묘변 룡시장을 중심으로 노점이 정착하여 시장으로 성장하고 고착화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연구 내용의 첫 번째 범주인 거시적 관점에서 노점쟁점의 시대별 변천과정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된다. 이를 요약하면 ① 근대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위생개념이 등장하고, 도시계획이 실시되면서 노점이 정비되는 ‘노점 정비시기’ (대한제국-일제강점기), ② 독립 운동 및 6.25전쟁으로 인해 전주민 노점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노점 확산시기’ (1945년- 1950년대), ③ 경제성장 중심 도시구조 재편에 따라 노점이 활발히 철거되고 이전되었던 ‘노점 단속시기’ (1960년대- 1970년대), ④ 야간통행금지조치 해제로 야간에 운영하는 노점이 형성되고, 이어 국내에 개최한 국제행사로 인한 노점상 단속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부스형, 차량형 등의 새로운 노점형태가 등장한 ‘노점 단속강화시기’ (1980년대- 1990년대 중반), ⑤ IMF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자 대규모 실업자, 미취업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노동력이 노점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노점이 다시 확산되는 ‘노점 재생산시기’ (1990년대 후반), ⑥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청계천 복원 사업,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 등 도시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 노점이 철거되고 이전됐던 ‘노점 이주시기’, ⑦ 푸드트럭 활성화 정책, 야시장 조성 등 지역활성화의 방안으로 노점상을 활용한

‘노점 전환시기’ (2010년대)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점의 철거 및 이주와 노점의 형성 및 재생산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노점에 대한 단속과 규제로 점철된 정부의 노점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노점은 주로 생계의 이유로 도시공간을 점유하며 재생산 되었어 왔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 노점은 지역활성화의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동시에 노점총량제를 도입하여 노점의 감축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등 노점에 대한 모순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내용의 두 번째 범주로는 청계천일대의 도시개발 과정을 통한 노점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뉜다. ①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의 시기로 청계천 복개공사 및 청계고가도로가 건설된 시기이다. 이로 인해 청계천 2가 등 청계천 중심부에 있던 노점은 청계 8가 지역으로 밀려났다. 청계고가도로가 건설되고 안정기에 접어들자 다시 청계 3가에서부터 9가 일대의 도로변으로 노점 거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②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시기로 삼일아파트 전면에 노점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특별한 도시개발은 부재하였으나, 90년대 후반 경기 침체로 인하여 노점이 급격히 증가하여, 성동공고 일대부터 삼일아파트 13동까지 분포되었던 노점은 청계 9가까지 확장하게 된다. ③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시기로 청계천복원사업,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 황학동 롯데케슬 건설 등으로 노점은 다시 한번 대규모 철거 및 이주과정을 겪게 된다. 그 과정에서 노점은 동묘 벼룩시장, 서울 풍물시장, 한양공고 뒤편, 훈련원공원 주변 등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으나, 한양공고 뒤편과 훈련원공원 주변의 노점은 전부 철거되어 현재 동묘 벼룩시장을 중심으로 노점밀집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연구 내용의 세 번째 범주로는 동묘 벼룩시장의 노점을 대상으로 동묘 벼룩시장의 형성과정과 고착화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동묘 벼룩시장은 1950년대

부터 이어진 청계천 도시개발에 따른 노점의 이주 및 정착과정의 흐름선상에서 형성되었으며, 특히 청계천 복개 사업 및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동묘 인근에 노점이 밀집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경기 침체로 인한 노점 및 노점 방문객 증가, 동묘 지하철역 개통으로 인한 역세권 발달 등의 요인이 있었다. 동묘 벼룩시장 노점상인 심충 인터뷰를 통해 1980년대 후반 시작된 노점상 운동을 통해 노점상들이 도시공간을 점유하여 상업행위를 지속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 세력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온 노점상 단체의 관리와 보호 하에 노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스콧 운동’의 일환으로 노숙인들을 주축으로 삼일아파트를 점거한 사회운동은 동묘 벼룩시장 일부에 노점거리가 형성되는 등 노점의 사회운동은 동묘 벼룩시장이 형성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어 동묘 벼룩시장에 밀집한 노점의 물리적 현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때, 노점이 확장되는 주말을 기준으로 동묘 인근 12개의 가로를 대상으로 노점이 가로변을 점유하는 형태에 관하여 분석하였으며, 노점은 주로 중고 의류, 중고 악세서리, 민속 골동품 등 주로 중고 물품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형태적으로는 적치형 노점, 벽 부착형 노점 점유 방식으로는 일시적 점유방식, 창고 연계 방식, 점포 확장 방식, 반 점포형 등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도시 공간을 점유·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착 및 고착화 과정에서 노점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점포와의 관계, 서울시 및 구청과의 관계, 방문객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노점상 및 점포상인 단체와의 관계가 존재하며 그 관계망 내에서 상생 혹은 갈등을 빚는 등 노점의 사회적 역할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내포한다. 이와 같은 과정 내에서 동묘 벼룩시장을 찾는 소비층 다양화, 중고 물품과 같은 차별화된 상권 형성, 수선가게, 세탁소, 식당 등 2차 소비패턴 형성, 중고 물품 유통망 형성 등 동묘 벼룩시장만의 상권체계가 형성되면서 현재에 이른다.

2. 연구 시사점

본 연구는 노점의 시각으로 청계천 일대 도시개발과정을 재구성하고, 동묘 벼룩시장을 대상으로 노점이 도시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청계천 일대의 도시개발 과정은 노점 이주 과정과 맥을 같이함을 지적한다. 청계천 개발에 있어서 주요한 행위자는 정부, 시민단체, 점포상인이었으며, 노점상인이 배제되었다. 그에 따라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계천 일대의 도시개발 즉, 청계천 복개공사, 청계고가도로건설, 청계천 복원사업, 동대문 운동장 복원사업, 황학동 롯데캐슬 개발 등에 의해 노점은 이주와 해체 그리고 정착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 그 결과 청계 2가에서부터 9가까지 청계천변을 따라 즐비하였던 노점은 청계 8·9가의 동묘 벼룩시장 등지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맥락 내에서 동묘 벼룩시장은 청계천변에서 사라져가는 공간인 노점공간을 발견 할 수 있는 희소가치를 지닌다. 또한 정비되지 않은 재래식 형태의 노점을 유지한 채, 도시공간을 점유하는 과정을 관찰 할 수 있어 청계천변에 존치된 노점밀집공간을 연구·분석했다는 가치를 지닌다.

둘째, 동묘 벼룩시장이 형성된 배경에는 단순히 도시개발에 의해 철거된 노점상인들의 이주 및 물리적 측면 뿐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의 사회적 관계 내에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노점은 도시공간을 점유하면서 동묘 벼룩시장이라는 가시적 공간을 형성하였다. 동묘 벼룩시장이 현 모습을 유지하고, 확대되는 이면에는 비가시적인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다. 노점은 정부의 단속이 되는 동시에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다양한 노점 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노점 권리를 보호받는다. 또한 노점상권으로 인해 그 일대의 점포 상권은 중고 물품 시장으로 변모하였으며, 이에 동묘 벼룩시장만의 고유한 상권을 형성하여 방문객들을 유입시키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 과정을 통해 동묘 벼룩시장의 노점은 최초에 도시공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지만, 현재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하게 되었다.

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한계점

지정된 공간에 고정되어있지 않고, 시간·시기별로 이동하는 노점의 특성상 노점 분포, 점유 방식 등 노점의 물리적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동묘벼룩시장 노점상인의 이주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인 스스로 사회적으로 불법적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다만 몇몇 노점상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주 및 정착 과정의 일부를 내부자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또 다른 연구의 한계점으로 과거 청계천 일대 노점에 관한 자료 부재를 들 수 있다. 청계천변 노점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진행한 연구 부재로 인해, 신문 보도자료의 단편적인 사건을 통해 과거 노점 이주 과정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노점의 이주과정에 대한 거시적 흐름은 분석하였지만, 시기별로 밀도있는 분석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향후 과제

본 연구의 주 내용은 시기별 노점의 쟁점 변화, 청계천 일대 노점의 이주 및 정착 과정, 동묘 벼룩시장의 노점의 물리적·사회적 관계 등 세 범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주제가 광범위하기에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각각의 주제를 독립적 연구과제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

또한 노점의 문제는 이해집단에 따라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어, 중립적인 연구자 입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노점 연구는 주로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노점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의 유관주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노점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인자로는 소비자나 노점상인이 주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 포함하였으며, 향후 노점을 연구함에 있어 주요하게 다뤄야할 요인으로 지적된다.

[참고문헌]

■ 단행본

고동환(2013). 조선시대 시전상업 연구

박진한 외(2013).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근대도시 형성, 1920년대 경성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운동

■ 연구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3). 노점상의 실태와 대응방안

_____ (2001). 노점상 관리방안 중·장기 대책 모색

서울시(2006). 동묘역 일대 생활형산업 및 벼룩시장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2015). 거리가게 디자인 개선가이드라인 연구

서울연구원(2012). 특화거리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 종로노점거리를 중심으로

■ 연구논문

강현수(1995). “도시 비공식 부문 이론의 새로운 전개와 우리나라 대도시 연구에 대한 함의”,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30(2): 51-69

김영기(2010). “전통시장 및 인접구역의 생계형 노점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유통연구 15(5):155-174

김준희(2011). “도시공간과 노점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 1980년대 노점상 운동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1(2):66-101

김진언(2016). “도시 공간 속 노점상에서 드러난 비공식성과 공식성의 상호작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측 강남대로의 노점상에 대한 사례연구”, 지리학논총 62:175-185

박재은 외(2015). “거리가게 가로환경 적용기준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4):217-231

박천익 외(1995). “도시 ‘비공식부문’ 종사자들의 경영실태분석: 대구·경북

- 지역 소매업 점포경영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 1:61-80
- 안주영(2007). “시장의 장소성과 노점상에 관한 연구 - 서울 황학동시장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8): 133-175
- 엄정윤 외(2010). “‘노점상’ 관련 보도에서 나타난 언론의 공간인식 분석”,
한국언론학보 54(3): 255-275
- 이승석 외(2008).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경주
시 안강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경주연구 17(2): 60-76
- 임진강 외(2016). “도심문화재 주변 노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묘벼룩시
장을 중심으로-”, 조형디자인연구, 19(1): 268-287
- 조명래(2003). “청계천의 재자연화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한국환경사회
학연구 ECO, 130-165
- 진양교 외(2000). “황학동 시장의 역사적 연원”,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8(1): 43-51
- 진예린(2016).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의 계획·정책결정 과정으로 살펴본
도시 비공식성과 공식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상호작용”, 지
리학논총 62:161-174
- 채상원 외(2017). “도시 비공식성과 공식성의 상호구성-김포시 개별
입지공장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2(3): 305-320
- 천혜정 외(2015). “20대 소비자에게 벼룩시장 및 중고품의 의미는 무엇인
가?”, 유통연구, 20(3): 189-211
- 최재송(2007). “지방자치단체의 노점상 문제 해결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19: 57-76
- 홍성태(2004). “청계천 복원 사업과 청계천의 파괴-이명박 시장의 신개발주
의와 이익의 정치”, 경제와 사회, 63: 39-65
- 황진태(2015). “노점상 연구에서 도시 비공식성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함
의”, 한국공간환경학회, 53: 54-85

■ 학위 논문

- 김병욱(2008). “공간의 생산과 미디어 담론: 청계천의 1960년대 복개공사와 2005년 복원공사에 대한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지아(2014). “서울시 도시형 장터 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동래(2015). “도시의 비공식적 공공장소로서 포장마차의 특성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동욱(2007). “선택모형을 이용한 거리환경개선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연구: 노점상 정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명훈(2017). “거리가게(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상업가로 변화 및 이용자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열(2012). “재래시장 정책과 오일장의 변화”,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상현(2007). “택지개발지구 내 노점상의 분포와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공학석사학위논문

■ 기타 자료

- 인터넷 웹 사이트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

『한국고중세사사전』, terms.naver.com/list.nhn?cid=42957&categoryId=4295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신문 보도자료

「家畜市場規定」, 『동아일보』(1922. 11. 02)

「各市場에 防火班을 組織」, 『경향신문』(1954. 07. 04.)

「간선도로변 포장마차·露店 뒷골목등에 옮기도록 유도」, 『동아일보』
(1986. 03. 07.)

「京城洞名點考 (3)」, 『동아일보』, (1936. 03. 21.)

「규제개혁 상징 ‘푸드트럭’ 절반이 폐업」, 『파이낸셜 뉴스』 (2017.04.17.)

「國際市場에 波 曲折重첩 公設市場論再擡頭」, 『경향신문』 (1952. 01. 29.)

「樂園市場組合 結成大會舉行」, 「서울의 断面 (4) “삶”을爲한 露商轉身」, 『경향신문』 (1948. 07. 14.)

「노점상 단체, 중구청 ‘기습 철거’ 규탄 집회」, 『뉴시스』 (2013. 07. 02.)

「露店地域設置 市警委서 對策研究」, 『동아일보』 (1948. 10. 06.)

「露店占用料增收」, 『경향신문』 (1952. 03. 16.)

「露店철거대책으로 街販店 증설 영세업자끼리 과당경쟁 부채질」, 『동아일보』 (1989. 09. 09.)

「露店行商도 自動車시대」, 『경향신문』 (1987. 03. 24.)

「동묘벼룩시장 주말에 ‘차없는 거리’ 로」, 『헤럴드경제』 (2016. 11. 21.)

「無許可建築, 露店等取締」, 『경향신문』 (1947. 08.30.)

「무의탁 노인 음식대접」, 『매일경제』 (1993.12.07.)

「무섭지 않습니까? 봄철의 전염병 주사를 맞아 물리칩시다」, 『경향신문』 (1948. 04. 04.)

「物品强奪한 警官 首都廳에 摘發罷免」 『동아일보』 (1947. 12. 27.)

「不正露店에 鐵槌」, 『동아일보』 (1938. 10. 01.)

「빼앗긴 삶터 짐거하는 예술계릴라들」, 『한겨레』, (2008. 01. 25.)

「서울중구청, 노점 20곳 강제 철거…쑥대밭 된 ‘삶의 터전」, 『민중의 소리』 (2015. 08. 12.)

「서울 청계천 노점상 강제철거...노점상들 불지르며 저항」, 『동아일보』 2003. 11. 30.)

「서울 성동공고 청계천변 불법노점 58곳 정비」, 『연합뉴스』 (2014. 08. 27.)

「市街衛生을 妨害하든」, 『동아일보』 (1922. 09. 27.)

「“쌀”謀利에는極刑」, 『동아일보』 (1946. 07. 14.)

「쓰레기 적환장이 돼버린 동묘의정문앞...」, 『경향신문』 (1983.03.19.)

「옛主人맞이는 昨今の『서울』」, 『동아일보』 (1953. 07. 17.)

「自由市場 앞 露店 明渡逐出로 彷徨」, 『경향신문』 (1947. 7. 26.)

「戰災同胞 주머니털던 露店厚生會解體令」, 『동아일보』 (1948. 04. 16.)

「天幕까지도 撤去 商街(는 北倉洞에 移動『경향신문』 (1954. 06. 26.)

「청계천에 풍물벼룩시장 만든다」, 『매일경제』 (2007. 08. 21.)

「청계천서 쫓겨나 동대문서 길 잃다」, 『주간경향』 (2009. 10. 29.)

「청계천 노점상 강제철거 1주일」, 『경향신문』 (20013. 12. 07.)

「淸溪川의 堤防工事 五月부터 十萬圓豫算으로 改修 道土木課에서」, 『동아일보』 (1946.04.28.)

「靑天霹靂撤去令 영洲洞露商들은어디로!」, 『경향신문』 (1952. 05. 10.)

「忠武路露店을 突然撤去 市廳處事에 物議!!」, 『경향신문』 (1952. 07. 13.)

「한쪽선 철거하고, 또 한쪽선 생기고... ‘노점의 아이러니」, 『헤럴드경제』 (2015. 05. 27)

「4大門안 11개 幹線道路변 露店·雜商人 장사못한다」, 『동아일보』 (1982. 02. 24.)

「7~8월 노점 2만6천여곳 철거」, 『한겨레』 (1989. 09. 19.)

「86게임 앞으로 100일 大會준비 어디까지 왔나 亞洲의 젊음 잠실벌에서 技와 힘을 겨룬다」, 『매일경제』 (1986.06.12.)

Abstract

Study on Space Occupancy of Street Vendor Through the Process of Street Vendor's Migration : Focused on Dongmyo Flea Market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or : Suh, Yehre

The spaces occupied by street vendors, who lined the streets during the 1980s and 90s, were recognized as spaces that also represented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As they began to be identified as illegal spaces that negatively affected urban hygiene and traffic, vendors, considered tax evaders, have been subject to crackdowns and forced removals. Even the Cheonggyecheon, which had a high concentration of street vendors since the 1950s, saw mass removals and migrations because of urban developments, such as the covering of the Cheonggye stream, construction of the Cheonggye overpass, and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As a result, most street vendors who had existed on either sides of the stream have largely been removed or regulated, with centers forming in select areas like

the Dongmyo Flea Market. Hence, this study focused on street vendors, considering their presence as urban spaces in decline, i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periodical changes in issues over street vendors from the Korean Empire era to the 2010s were analyzed using literature that also comprised news articles. The analysis showed street vendors repeatedly went through removal, relocation, and reproduction in each period according to government policies toward them, economic situations, and urban development strategies. Evidence, though, shows that the government's regulations on street vendors have a fundamental limit. Starting from the 2010s, street vending was promoted by the government for regional revitalization, which follows recent research trends on street vendors. In the academic setting, a proposal to deviate from the perspective that equates street vendors as the urban poor has been suggested, along with the study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formal and informal (street vendors) urban sectors, to flexibly accommodate street vendors in urban space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has had contradicting stances on street vendors by regulating and cracking down on pre-existing vendors.

Second, a specific area was selected to conduct the study. The migration and settlement of street vendors because of Cheonggye stream development, since the 1950s, was analyzed. This urban development induced the removal and migration of existing street vendors, leading to the current, high concentration of vendors around Cheonggye 8 ga and 9 ga. The Dongmyo Flea Market. It is worth studying in that it established a unique business area, while

maintaining its form—a collection of conventional street vendors.

Third, street vendors generally around Dongmyo, and then, undergo expansion and occupation through migration and settlement caused by urban development, as well as physical and social relationships. The Dongmyo Flea Market, now transformed, occupies various urban spaces, such as roads, buildings, and street furniture, with display stand/heap display/wall attached forms of street vendors at its center. While it has formed a unique scenery in Dongmyo, it has also affected neighboring stores. As a result, hybrid street vendors and stores, such as expanded stores or semi-stores, have appeared; they have also manifested their influence physically through the changes in the type of businesses these stores conduct. Today, the Dongmyo market has formed a wholesale distribution network that not only exports second-hand clothing to local regions and overseas, but also acts as a retail center. The introduction of warehouse buildings for mass storage for the market has strengthened its distribution environment, too. Street vendors have expanded amidst regulations and civil complaints through the support and protection they receive from their social relationships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orough offices, and visitors. Other social factors, such as the growth of street vendor rights from rise of street vendor organizations, have also changed the government's perspective toward them. The development of consumer trends, like the focus on using second-hand products by younger generations, has also influenced their growth.

Finally,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outlines how the urban development process of the Cheonggye stream area

is in line with the migration of street vendors. Second, it shows the Dongmyo Flea Market was formed not only physically (for instance, through the removal of street vendors by urban development projects), but also through social interactions between various actors. In short, it shows how street vendors, who inhabit a diminishing urban space, occupy and actively transform urban spaces through their different physical characteristics, thus adapting to evolving urban environment and policy.

■ Keywords: street vendors, urban development, migration, Cheonggye stream, Dongmyo Flea Market